

성남지역 여성사 자료집

성남문화원

조선시대 외출하기
위한 여인이 가마
타는 모습



조선 시대
외출복을
입은 여인
의 모습



혼례복을 입은 여인과 뒷모습



조선시대 혼례모습



기독교 여자 청년회



성남가정법률사무소



새마을
부녀회



선교 일하
는 여성

청년 지역
인사 모임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모임



여성 민우회



여성 복지
회관



전남 여성회 전회



성남문화원



합사원 복지회



음식업 종업회

차례

축 사 / 7

축 사 / 9

발간사 / 11

들어가는 말 / 15

제1장 전통시대 여성의 생활과 의식 / 박순임17

1. 전통시대 여성들의 삶 / 20

1) 전통시대 여성의 지위 / 20

2) 전통시대 여성교육과 이상적 모델 / 24

2. 전통시대 역사에서 본 성남지역 여성의 삶 / 27

3. 전통시대 성남지역의 여성 인물 / 32

1) 열녀, 효녀 / 32

2) 여성 지식인 강정일당 / 35

4. 전통시대 여성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자료 / 39

제2장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의 전개과정 / 천희숙 63

1. 개항기 성남 여성운동의 흐름 / 65

2. 1910년대 성남 여성운동의 특성 / 68

3. 1920년대 성남 여성운동 / 71
4. 1930년대 성남 여성운동 / 73
5. 1940년대 성남 여성운동 / 77
6.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에 관한 자료 / 78

제3장 일제하 성남지역 여성교육과 민족운동 / 김도형 159

1. 근대화와 여성교육론 / 161
2. 한말 성남지역의 구국교육운동 / 165
3. 일제하 성남지역의 교육운동과 여성 / 168
4. 일제하 성남지역 여성교육에 관한 자료 / 174

제4장 해방 후 성남 여성의 관련 자료 / 서승갑 199

1. 성남 여성의 정치·사회적 동향 / 202
2. 성남시 여성단체의 현황 / 204
 - 1) 성남 여성단체의 사회 활동 / 204
 - 2) 사회복지와 관련된 성남 여성단체 활동 / 216
 - 3) 문화 관련 여성단체 활동 / 223
3. 해방 후 성남 여성 활동에 관한 자료 / 231

편집후기 / 281

색 인 / 285

들어가는 말

성남은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팽창하는 서울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1973년에 경기도 광주군에서 분리 독립된 신생 도시이다. 17세기 조선 인조 때 남한산성이 축성된 이후 성의 남쪽이라는 뜻에서 성남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성남 일대는 한강과 가까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고대사회부터 역사적으로 매우 주목을 받는 곳이었다.

조선시대 광주는 수도인 한양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삼남지방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지역 사람들이 서울로 드나드는 남·북 교통로의 관문으로서 중요시되었다. 전통시대 성남은 광주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성남 자체의 역사로 독립된 지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분당 신도시 개발과 판교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2000년대에 주목받는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성남시는 대략적으로 구 성남과 신도시인 분당, 새롭게 조망되는 판교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속성으로 인해 여성들의 역사적 인 삶의 내용도 상이하게 전개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의 독자성을 융합하여 하나의 문화로 아우르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비나 도비·시비로 진행되는 성남지역의 여성사에 관한 연구는 미래의 성남지역사 연구에 기본적인 토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성사 연구는 기존의 역사서술이 남성 중심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여성들의 삶을 밝히는 부수적인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사 연구의 방법론이 활성화되고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성사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 대략적인 여성들의 삶의 모습과 전통시대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상이하게 펼쳐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과 흐름을 재정리하여 통합해 보고 현재 성남지역 여성들에 대한 삶의 일단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 자료집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여성사의 흐름이나 중요 사항을 부분적으로 정리한 후 광주지역을 포함한 성남지역 여성사 자료를 정리하였다. 전통시대 성남지역의 여성사에 관한 자료가 빈약한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남지역의 여성사를 전체 여성사의 시각에서 비교하거나 구체화하려고 노력한 점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성남지역 여성사 관계 자료는 시기별로는 전통시대와 근현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1장의 경우 전통시대 성남지역의 여성사를 조망하였는데 가능하면 기존의 여성사 자료집에서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사료보다는 새롭게 발굴하여 첨가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제2장의 경우 성남지역은 근우회 활동이나 여성운동에 주안점을 두고 여성운동의 전체 흐름을 소개하는 데 치중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능한 한 현 성남지역의 여성사 자료를 보완하려고 시도하였다. 일제 강점기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에서 편찬 여성운동도 소개하였다. 제3장은 개화기 이후 이 지역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많이 활용된 점을 고려하여 서양사상이 흘러드는 과정을 추적하여 정리하였다. 이런 관계로 이 부분에서는 서양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인식과 학교 교육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다. 제4장의 현대권은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성남지역 여성들이 인식하는 여성의 위상이나 자향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조망하여 여성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인문 지리적인 속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적인 공간 형성에 적용하여 새로운 생활 방식을 지향한 성남지역의 여성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야만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시현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남지역의 여성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편집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빈약한 자료집이지만 앞으로 성남지역 여성사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전통시대 여성의 생활과 의식

1. 전통시대 여성들의 삶

- 1) 전통시대 여성의 지위
- 2) 전통시대 여성교육과 이상적 모델

2. 전통시대 역사에서 본 성남지역 여성의 삶

3. 전통시대 성남지역의 여성 인물

- 1) 열녀, 효녀
- 2) 여성 지식인 강정일당

4. 전통시대 여성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자료

- ▶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시조 온조왕
- ▶ 『삼국사기』 「열전」 제8 都彌
- ▶ 『목은시고』 권33 유대언 부인 원씨의 만사
- ▶ 『輿地圖書』 四、廣州人物
- ▶ 『廣州邑誌』
- ▶ 『閨閣叢書』
- ▶ 겹너 야담
- ▶ 이경석 가문 기증고문서
- ▶ 강정일당 시

제 1 장 전통시대 여성의 생활과 의식

박 순 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

오늘날은 페미니즘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여성사 관련 자료집이 연이어 출간되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역사와 문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급진적이며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페미니즘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인간에 대한 균형있는 새로운 이해의 노력이란 측면에서 고무적인 점이 없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성남지역의 여성사 정리는 지역의 역사, 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성남 지역은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환경으로 여러 차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다. 서울로 통하는 관문이기도 했던 까닭에,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은 다른 지역의 삶과는 크게 달랐으며, 특히 여성의 삶은 이러한 역사·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직접적으로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 작업은 성남 지역 여성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 삶의 이상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 여성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조망해 보는 데서 출발한다. 여성과 관련된 세반 제도와 여성 교육, 그리고 일부 지식적인 여성들의 삶을 참고하여 전통시대 여성들의 지위와 의식을 살펴본다.

현재의 성남이 전통적인 행정구역이 아니므로 이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뚜렷이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일반적인 흐름을 통해 유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전통시대 여성들의 삶

1) 전통시대 여성의 지위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오늘날에 비해 어떠했을까? 고대신화에 등장하는 유화가 부여에서는 신묘에 모셔졌으며, 고구려에서는 호국신으로 섬겨진 것을 보면, 이 시대 호국신과 생산신은 대개 여성의 성을 가진 듯하다. 백제, 신라, 가락국에서는 각각 소서노, 西追聖母, 허황후를 숭배하였으며 산신의 대부분도 여성이었음이 이를 입증한다. 통치자에게 조언을 하던 노구(老嫗), 민간의 '할망' 등이 신묘(神母)의 위치에 있었고 제사를 관장하는 시조묘의 아로나 기우제의 운재부인 등도 다 여성이었다.

유화의 오곡종자(五穀種子), 알영의 권독농상(勸蠶農桑), 기우가 다 농업과 관련이 있고 알영과 세오녀 등이 직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보면, 베헌 조개가 화폐로 사용되던 시대에 경제유동도 자연 여성의 활동에 좌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고대사회의 여성들은 대개 개방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골품제에서는 모계를 중시하였고 자녀도 대개 어머니에게 귀속되어 양육과 교육을 받았으니 가정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고대국가가 설립되자 남성중심의 지배집단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가족에 대한 통제를 가했는데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방식을 택함으로써 가부장제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원시사회 여성들의 지위는 차츰 축소되고 여성의 생산적 기여도 위축되어 갔다.

신라에서는 선덕, 진덕, 진성 등 여성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선덕과 진덕은 삼국 각축기 중에도 현명하게 통치하였다.

고려시대의 여성들은 조선에 비해 활동이 자유로웠고 재산이나 재산 상속에서도 차별이 없었다. 혼인제도에는 그 시대의 여성 지위가 잘 나타난다. 고대에는 중매혼이 일반적이거나 자유혼도 있었다. 통일신라에서는 자유혼이 사라지고 남채와 남매 등 중국의 예식이 나타난다.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다가 고려 말엽에는 규범이 강화되어 예를 갖추지 않은 결혼은 간통으로 간주되었다.

고대사회에서는 다처 내지 축첩이 많았고 적서구분도 크지 않았다. 통일 이후에 적서관념이 나타나다가 고려시대에 오면 중혼이 법적으로 규제되면서 타인의 처첩과 혼인하면 처벌되었다. 가출한 유부녀나 도망한 유부녀임을 알고 혼인해도 처벌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왕실을 제외하고는 일부 일처였다. 그러나 여말에는 공녀문제로 다처의 법제화가 논의되면서 다처제가 생겨난다. 이는 이후 조선에 들어가 중혼 규제, 적서분변 강화 등에 의해 축첩을 포함하는 일부일처제로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된다.

서류부가혼은 남녀 구분상속 및 친족제도에서 연유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상속을 받고 출가의인 관념도 없었으나 가난한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처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서류부가혼이 여성의 지위를 보장해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간통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대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한해 간통죄가 적용된 반면 고려시대에 오면 혼인 외의 모든 성관계를 간통으로 처벌하였다. 간통에 대한 처벌도 세분되어 간통자의 상호 관계에 따라 달랐다. 주인과 종이나 가까운 친척끼리 간통을 했거나 관리가 관할 내 백성을 간통한 경우는 중벌로 다스렸다.

여종과 남자 주인의 관계와 달리 여자주인과 남자 종과의 관계는 중형으로 다스렸으니 여기에 남녀 차별이 드러난다. 남편은 처의 간통에 대해 고발하거나 죽이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여성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다. 여성들은 간통죄로 처벌된 뒤에도 남편에게 기저당하고 자녀안(妾女案)에 올라 침공(針工)이 되었으며 자손들의

벼슬길에 제한을 받았던 것을 보면 고려시대가 남녀 동등한 사회도 아니었고 자유로운 성이 가능한 사회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고려시대에 이혼은 남편의 일방적인 기처(棄妻)가 많았다. 기처는 남성의 출세를 위해 행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재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장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거의 이혼 권한이 없었다. 이혼제도로 보면 고려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전시대와 마찬가지로 남성 못지않은 부담을 담당했다. 16세 이상 60세까지의 장정은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는데 평민 여성도 조나 공을 바치기 위해 남성과 함께 노동하였으며, 동원된 남편 대신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다.

공녀(貢女)제도도 조혼의 관습이 생기게 하고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고려 후기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에 들어서자 유교가 정치이념이 되면서 여성의 생활에 각종 규제가 이루어졌다. 건국 초기에 풍기문란을 이유로 여성의 외출이 규제되고 특히 사관 출입과 무속신앙 행위를 제한하였다. 여성의 실행(失行)을 단속하기 위해 재가를 금지하고 「삼강행실도」를 반포하여 부덕을 권장하였다.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서류부가혼을 금지하고 원영제도를 실시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세 번째 결혼만을 금지하였으나 성종 대에 이르자 재혼 자체를 금지하였다.(『경국대전』 권3 「예전」 제과)

경제적인 면에서 여성은 상당한 노동을 하고서도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 17세기 말에는 정책적으로 장려된 면직 면업에 여성들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가정경제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는 1890년대 이후 일본 면제품의 수입으로 농촌 수공업이 과탄 상태에 이르게 될 때까지 국가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였다.

농업노동의 상당부분도 여성들이 담당해야 했다. 특히 남성이 국가에 동원되어 있는 동안에는 남성의 몫까지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하층민의 경우 용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도 뽕나무의 재취나 갯바지 등 가정경제와 국가경제에 중요한 생산활동을 하였지만 대부분은 가정에서 하는 노동이었으므로 활동의 가치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수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상업 활동에 종사하기도 하였고, 국가에 물품을 납부하고 그 값을 받아 축적하기도 하였다. 숙종 때 李喜重의 妻 朴氏는 동전을 私鑄하는 것을 주동하였다가 섬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故判府使 李和英의 妻 董氏는 규정 이상의 奉足을 소유하고 浸漁하여 원성을 샀다.

상민여성들은 상층 여성들에 비해 행동 규제가 컸었고 외출도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상층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은 종교적 활동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출가는 여성들이 남편 사후 절계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여성들이 사회 규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되기도 하였다. 사원 출입은 풍기문란을 일으킨다 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왕실의 여성들은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원에 출입하고 시납하였다. 명종 때 문정대비는 섭정하면서 도첩제를 부활하여 출가를 허용하고 승과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평민층에게도 영향을 미쳐 한국 불교가 계승되게 된 것이었다.

조선후기 서학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신자의 2/3가 여성이었고 선교에도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동경을 지키는 여성들도 있었다. 이어 평민과 하층에도 전파되었다. 가부장적 현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향한 여성들의 신앙은 순교로까지 승화되었다.

일반 여성들과 달리 사회생활이 가능했던 여성들은 기녀, 무녀, 궁녀, 의녀 등 직역의 부담을 가진 천민층이었다. 의녀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된 제도이다. 외출이 가능했으므로 사대부 집안의 수색 등에도 이용되었고, 기녀가 되기도 하였다. 기녀들은 남성 지배 사회에서 필수적인 존재였고 대

부분 권세 있는 양반과 연결하여 안락을 보장받으려 했다.

궁녀들도 후궁이 되고 후계자를 출산하는 길만이 신분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모해 등 정변의 주인공 또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궁녀 자신들의 의지로 개입하기도 하였지만 대개는 정권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희생물이 되는 사례가 많아 통제, 억압받던 여성들의 사회적·정치적 욕구가 왜곡된 결과를 낳았다.

부녀들은 천민 신분이지만 왕실과 가까이 연결되어 국정외 방향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풍기문란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무속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무세가 국가재정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의 갈등을 다소 해소하는 직업여성으로서 의의가 있다.

대체로 국가의 성립과 발전 이후에 여성들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은 점차 축소되었고 가정으로 한정되어 갔다. 역사는 지배자 위주로 서술되어 있고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서술되었으므로, 여성에 대한 기록은 왜곡되거나 누락이 많았다고 본다. 가정 내에서의 활동도 적극 순응하거나 저항했던 여성들만이 부각되는 한계가 있다. 가부장제의 강화를 통해 가족을 제권성하고, 가족을 통제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했던 조선시대 특히 중기 이후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게 철저히 예측될 수밖에 없었다.

2) 전통시대 여성교육과 이상적 모델

우리 고대사회에서의 여성교육은 가정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습득

시키는 정도였다. 가정생활에 한정된 교육으로 사회적 질서에 익숙한 남성과 동등할 수 없었다. 고대사회에서 귀족신분의 남성에게는 관료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고, 따라서 교육도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루어졌지만 여성은 여기서 소외되었다.

고려는 귀족자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세우고, 유교의 경전과 한문학의 소양을 닦게 하였다. 지방 자제들을 관료체제에 흡수시키기 위하여 지방에 박사들을 파견하기도 하였고, 향학을 세우기도 하는 등 유교 교육에 힘을 써 상류 지식인 계층에 유교적인 의식과 의례가 널리 확산되었다. 서민에게도 律, 書, 算 등의 기술학에 대한 교육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여성교육은 실생활을 통한 부덕의 습득과 가정 기술의 습득에 머물렀다. 유교 경전이나 한문학의 소양은 가르치지 않았지만, 귀족 여성의 경우 유교의 경전이나 중국의 여성교훈서류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문자교육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여성이 지녀야 할 부덕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려 여성의 墓誌에 “부모에 孝順하고 형제와 우애하며 시집가서는 婦道에 힘써 시부모를 공경하며 정성스럽게 奉祭祀하고 시집형제족속과 화목하되 친정 식구에게 보다 더 후히 행해야 한다”(『조선금석총람』, 1919)는 내용이 있어 여성 교육의 지향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여성의 가사기술 교육은 女工으로써 가정경제를 담당하게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낮에는 베풀에 앉고 밤이면 옷을 지어 가정경제를 꾸려 가는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겼던 것이다. 실제로 옷감이 화폐로 통용되던 당시에 있어 여성의 길쌈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고, 남편이 무능한 경우에도 어려운 가정경제를 꾸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 女工에 의지함이 컸다.

고려 여성들은 남편의 수입과 자신의 女工을 통해 모은 자본을 長生庫 등을 통해 이자늘이를 하였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양반의

수입원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자놀이는 고려 후기에 가서 유학의 급속적 미덕이 강조되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도 가부장권 사회 속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조선시대는 이러한 여성의 부덕을 강렬한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중요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유교적인 덕성을 지니면서 또한 불교적인 계율을 지키는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으로 여겨졌다(한국여성사 편집위원회, 1972). 여성에게 유교적인 덕성을 중시하면서도 불교적인 계율과 신앙을 덕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고려시대의 여성 교육의 특색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은 삼국시대 이래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남성들의 활동무대인 공적인 영역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열등한 존재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게 되었다.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한 몫을 하게 되었다. 이는 전통사회의 여성관의 기본 틀을 형성함으로써, 여성의 삶과 교육이 가정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고려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삶과 교육의 특징은 비교적 자유로운 남녀유별관에 따른 사회화 과정으로 규정지어 볼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불교적 계율과 유교적 부덕의 함양과 함께 가사기술을 익히는 것이 기본이었다. 여성의 삶과 교육에 있어 유교적 부덕의 함양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게 된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위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역시 여성 교육기관을 가지지 못했다. 규방에서 제적인 교육보다 부덕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소혜왕후가 『열녀전』, 『소학』, 『여교』, 『명감』 등 네 책을 자료로 하여 내훈을 만들기 이전까지는 모두 환문 『內訓書』밖에 없었다.

중기 이후에야 『규중요람』(閨中要覽), 『계녀서』(戒女書), 『여사서』(女四書), 사소전, 海平 尹氏의 『規範』과 安東 金氏의 『내훈 너제서』 등 한글로 된 내훈서가 많아졌다. 이들 내훈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여성교육의 내용을 보면 채소응대, 방적채봉, 요리, 육아, 자녀교육이 여성의 직분이었고 내외법 이후에는 사회와 단절되어 가사에 국한된 생활교육만 받았다.

부부, 효친, 모의, 부의, 돈복, 근면, 등에 여성교육의 목표를 두고 정숙한 몸가짐으로 가사기술을 익히고 근검절약하며 경순인종하는 아내, 효친하는 며느리로서의 도리와 자녀교육에 이르기까지 유교 정신에 맞는 도덕규범을 습득시키고자 하였다. 부덕, 부언, 부용을 여인이 갖추어야 할 인품으로, 부공을 그 임무로 삼아 이를 기르고자 했다.

2. 전통시대 역사에서 본 성남지역 여성의 삶

전통시대 성남지역 여성들의 역사는 경원대학교 성남 발전연구소에서 발간한 성남의 현재와 미래에 기고한 경원대학교 천화숙 교수의 글을 원용하였다.

성남의 금토동에서 무문토기가 발견되고 태평동, 수전동, 사송동, 하산운동 등에서 지석묘 및 청동기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탄천 주변의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청동기인들이 거주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지석묘는 이 지역에서 권력자와 국가 발생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청동기 시대 이 지역 여성들은 다른 지역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육아, 토기제작, 조리, 방적 등 일상의 노동 부담이 많았다. 신석기 말 이후 농경지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남성들이 농토를 개간하고

집단간의 싸움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가부장적 권위가 강화되었고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게 복속되어 갔다. 여성들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법과 풍속이 생겼으니 성남지역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고조선이 멸망하자 성남을 포함한 인접 한강 유역은 낙랑과의 활발하게 교류하며 경제활동이 촉진되었다. 온조의 유민 집단이 하남 위례성을 중심으로 백제를 세우니 이 지역에 새로운 국가가 성립되었다.

삼국시대 이 지역은 비옥한 평야와 교통상의 이점으로 인해 여러 번 변화를 겪었다. 고대국가가 완성되어 가면서 신분제가 정착되고 신분에 따른 정치적 진출, 복식, 가옥 등 여러 가지 규제도 발생했다.

삼국 초기 성남은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에 인접하였다. 백제의 귀족들은 주로 부여족 계통이었는데 성남 지역의 일부 사람들도 지배층에 편제되었을 것이다. 귀족 여성들은 정치적인 진출은 하지 못했더라도 신분에 따라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평민은 주로 생산에 종사하였고 일부는 상공업에도 종사하였다. 조세와 역역, 공부(貢賦)의 의무를 부담하였고 여성은 조세 의무의 대상이었다. 고구려 봉상왕이 국내의 남녀 15세 이상을 동원하여 궁실을 수리하였다는 사실(『삼국사기』 권 49, 「창조리전」)을 보면 여성도 역역을 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성남지역이 삼국의 상호 쟁탈 대상 지역이었던 까닭에 전쟁에 대한 부담이 더욱 과중하였을 것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편제하자 성남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는 한산주가 되었다. 한산주는 지방군인 정을 둘이나 배치할 정도로 큰 지역이었고 국방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시되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각종 조세를 부담해야 했고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규정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특히 9세기 이후 자연재

해가 빈발하자 농민들이 과산하거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성여왕 대에 와서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자 농민들은 도적이 되어 저항하였고 신라는 쇠망하기 시작했다.

후삼국 시대에 이 지역은 궁예의 휘하에 들어갔다가 고려의 영토에 편입된다. 왕건은 지방 호족을 통합하기 위하여 29명의 부인을 취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호족 왕규의 두 딸이 제 15, 16 왕비(광주 원부인, 소광주원부인)가 된다. 왕규는 해중에게도 딸을 준다. 왕규의 외손녀인 경화궁부인 임씨는 삼촌인 광종과 혼인하였다. 이 지역의 호족인 왕규 집안에서 3대에 걸쳐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은 이 지역의 비중을 잘 말해준다.

고려 성종 대에 오면 12목 중 광주목에 편제되어 중요한 지역이 된다. 광주는 몽고의 침입으로 수난을 겪는데 2차 침입 때 광주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최우 등 무신 집권자들이 강화도로 천도하며 함흥의지를 다지자 몽고가 다시 침략해 왔고 광주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광주는 장기간 동안 몽고군의 포위 속에서 방위에 성공하였다. 전쟁에 필요한 물품은 광주 사람들이 조달하여야 했으니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고물이 컸으리라 짐작된다. 고려정부에서는 당시에 드물게 이 지역의 상요(常徭)와 잡역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려사』 권 80, 식화지 진흥 고종 22년 5월)

14세기에 들어 고려는 원과의 교류를 통해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지방의 향리 자제들이 성리학을 적극 수용하였다. 광주지역은 성리학의 수용에도 적극적 역할을 하였는데 그 중심인물이 둔촌 이집(李集)이다. 이집은 이색, 정몽주, 이숭인, 정도전 등과 교유하면서 (이남복, 『둔촌 이집연구』, 한국중세사연구 4, 1997) 성리학의 식견을 쌓았다. 그는 신진사대부로서 당시 고려의 현실을 개혁하려고 하였다. 그러다 영천에 은둔하였다가 다시 광주 탄원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아들 이지직과 함께 이 지역의 성리학 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선진성은 뒷날 실학의 집성지로 또 한번 발현되

었다.

여성들은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 많은 여성이 정절을 잃고 자결하거나 남편 대신 가계를 직접 꾸려야 했다. 『고려사』 권 121 『열전』 34에 실린 열녀, 호수 처 유씨처럼 몽고와의 전쟁 이후부터 『열녀전』에 기재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전쟁이 치열하고 여성의 고통이 컸음을 시사한다.

이뿐 아니라 원나라가 요구하는 공녀는 황실에 국한되던 것이 점차 일반관료들에게까지 전파되어 많은 고려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정구복, 『공녀』, 국학자료원, 2002) 이들은 황족의 시중을 드는 경우 뿐 아니라 관리들의 첩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류계로 전락되기까지 하였다.

이 시기 여성의 남성에 대한 상대적 지위는 조선시대보다 나은 편이었다고 하겠다. 혼인제도는 壻留離家婚이어서 가족 내 여성의 지위도 높았다. 이혼이나 재혼도 가능하였으며 부모 사후 딸 아들이 동등한 상속을 받았다. 남편 사후 장성한 아들이 있어도 어머니가 호주가 되는 등 여계의 계승권을 인정하였다.

고려말에는 충신 조건, 김약시, 김자수 등이 있어 이 지역이 절의의 고장임을 시사한다. 열녀들이 많은 것도 전쟁 뿐 아니라 이러한 지역의 문화적 도덕적 배경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광주는 지리적, 군사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수도 방어를 위하여 남한산성이 건설되었고 매 사냥터와 같이 군사훈련 장소로 주목을 받는 등 군사, 교통상의 중요한 위치였다. 광주지역에는 5개의 역참이 있었는데 그 중 성남지역에는 낙생역이 있어, 용인, 죽산, 안성, 수원, 남양을 이었다. 역에는 역리와 역민이 배치되는데 이들의 집단적 거주로 인해 낙생 주변에는 역로를 따라 마을이 나타나 있다. 노변마을은 삼거리, 판교, 신촌, 궁안, 원천, 평촌 등을 이루었다. 역에는 국가에서 지급한 토지가 있어 그 토지에서 역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다.

역민들은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과 진상, 공부 등 관수품의 운반

그리고 변경의 급보 왕명 및 각종 행정명령문서 전송, 왕의 행차와 군사, 관원들의 행차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식사와 수발을 담당한다. 관료는 경상, 진라, 충청에서 올라오는 길목이라 하여 삼남대로라 하였으며 원이 설치되었다. 관료원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게 되자 관리나 상인 등 여행객들 상대로 주점이 설치되고 낙생장도 생겼다. 이런 까닭에 이 지역에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관료 남, 북에 이문(里門)을 세워 도적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밤 10시에 문을 닫고 아침에 열어서 여행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였다.(성남문화원, 『관료 마을지』, 2001)

또한 이 지역에는 천림산 봉수가 있어 남산의 목벽산 제2봉수에 연결되는 제2기 봉수노선에 위치하여 경상도로부터 오는 봉수를 연결해 주었다. 여기에는 봉수군 25명과 보인 75인이 편성되었는데 봉수군은 봉수대에서 기거한 듯하고 보인은 농사를 지으며 물자를 공급하였던 듯하다.

이렇게 역과 군사시설이 있는 까닭으로 이 지역 주민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 중종조에는 낙생역이 폐락하고 인가도 3-4호밖에 없는 적도 있었다(『중종실록』 권 56, 중종 21년 정월 신축). 따라서 여성들 스스로가 생계를 위해 나서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 이동인구가 많은 까닭에 행상이나 주점을 경영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낙생장의 존재가 이런 배경을 잘 설명해 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여성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특히 병자호란은 이 지역이 주 무대였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청군이 남한산성을 장시간 포위하자 인조가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주민들의 상황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산성 밖의 주민들은 청나라 병사의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 피난하지 못한 사대부와 서민의 부녀자들은 대부분 청군에게 납치당하였다. 이때 유린당한 여성은 전쟁 후에도 정절을 잃었다는 이유로 외

면담하거나 버림받았다. 포로로 잡힌 여성들도 가족들이 몸값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귀환시켜 주지 않아 매춘부가 되거나 관창의 노비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이므로 정절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수절을 강요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에 회의가 일어나고 차츰 일상생활의 예의로 관심이 이동된다.

실학이 일어나자 성호를 위시하여 순암 안정복, 권철신, 홍유한 등 광주지역 사람들이 주도해 나갔다. 이 지역에 실학이 활발한 것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므로 다른 곳보다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기 쉬운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천주교도 실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광주 퇴촌면의 천진암은 이벽이 젊은 실학자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직접 가르친 곳이었다. 또한 동부면 구산리에는 유방계, 모방 등의 초기 서양신부들이 포교사업을 벌일 준비를 하던 곳이다. 그리고 외무니(운중동)는 파리의 젊은 신부 루도비코볼리의가 순교한 곳이다.

실학과 천주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의식도 진전되어 적극적이고 활발한 여성이 등장한다. 남성들처럼 학문이 깊은 여성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지역에서도 강정일담이란 여성 학자가 등장한다.

3. 전통시대 성남지역의 여성 인물

1) 열녀, 효녀

고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정절이 남편이 생존해 있을 때에만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과부의 수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포상의 대상도 아니었다. 삼국시대에 오면

남성들이 계속 전쟁에서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던 까닭에, 남편을 따라 죽거나 수절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을 더 이상적으로 받아들였다.

고려시대에도 남편 사후 자식이 없는 여성과 재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고려말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정절이 강조되고 여성의 성 통제가 강행되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명분론에 집착하여 가족관계의 유지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통제하였다.

여성들이 재가하여 낳은 자식은 관직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삼가녀를 자녀안(姪女案)에 올림으로써 양반의 수척 증가를 억제하였다. 수절하는 과부들을 표창하고 내훈류 서적이 보급되어 부녀 정절관이 향촌사회에까지 정착되면서 수절은 사회의 습속이 되었다.

『고려사』 『열녀전』에 수록된 여성들은 주로 난리를 만나 지조를 지킨 여성들이다. 조선 초기에는 주로 시묘(侍墓), 수절한 여성들이 표창을 받은 사례가 많고, 후기에는 남편을 따라 죽거나 실절하지 않으려고 죽은 여성, 그리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여성들의 사례가 많다.

세종·성종 때에는 여성의 풍기문란을 막기 위하여 상사(上寺)금지령 등, 외출이 통제되고 재가녀 자손 금고법이 제정되는 등 법적 조치도 취해졌다. 따라서 전시대에는 문제되지 않던 간음·개가 등을 처벌하고 이혼시키기도 하였다. 열녀에게 정문 등의 표창과 실제적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정절을 장려했다.

16세기 이후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향촌에 정착되자 정절관은 굳건해졌다. 조선 전기에 표창받은 여성들은 중인 이상이 대부분이며, 후기의 경우는 양인·천민이 많다. 전기에 많던 간음·개가 등은 후기에 가면 격감하고 양인 이하의 신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층에게까지 정절 이데올로기가 보급되어 수절은 점점 보편화되고 표창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며 목숨을 버린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바뀌어 갔다.

성남 지역의 열녀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로 나뉜다.

- * 남편이 죽은 후에 시묘살이를 하며 죽을 때까지 겸소하게 산
경우 : 성경운의 처 이씨, 이연침의 처 안씨, 이민의 처 이씨
- * 병자호란 때 겁탈을 피하려고 죽은 경우 : 허적의 처 이씨, 임희선의 처 남씨, 정우익의 처 김씨
- * 남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와 싸운 경우 : 이훈의 처 변씨, 박담의 처 이씨
- * 남편이 죽자 따라 죽은 경우 : 이후함의 처 임씨, 김약연의 처 홍씨

사회적 관습이든 유교적 이데올로기이든 실천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순간적 결의는 이들의 결연하고 강인한 의지에서 비롯된 용기였다. 전통시대 여성들에게 있어 정절은 그 자체가 바로 자신들의 생명이었다.

이러한 정절 이데올로기와 함께 여성에게 강요된 또 다른 윤리는 '효'였다. 효녀의 유형은 시대별로 다른 특징을 지닌다. 고대에서 고려시대까지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 등을 팔거나, 부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효의 주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에 오면 부모의 목숨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랑이에게 물려간 부모의 시체를 찾기 위해, 그리고 신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다.

효의 범주가 죽은 부모에 대한 장례, 제례까지 확장된 것이다. 고려시대까지는 부모의 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훼손시키는 것은 효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조선시대에 오면 단지할복(斷指期服)한 행위가 표창되는 정도까지 가게 되었다. 이는 열녀관의 변화와 함께 유교적 규범이 점점 형식적으로 확고해졌음을 시사한다.

효부의 유형도 시부모 봉양으로부터 시부모의 목숨을 구하거나

신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경우로 변화하였다. 효부들은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천명제의 혼숙이 정착된 것과 관련이 있다.

적장자(嫡長者) 상속이 17, 8세기에 정착되고, 국가의 강력한 통제 제로 가부장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손의 성공에서 자신 존재의 의의를 찾는 경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성남 지역에도 이러한 효녀와 효부의 사례가 발견된다. 내은이는 사비의 신분이었으나 아버지가 강도에게 살해당하려 하자 자신의 몸으로 가려서 결국 함께 죽음을 모면하였고, 안도병의 처 류(柳)씨와 구용서의 처 유(兪)씨는 집에 불이 나자 신주를 내오기 위해 사당으로 갔다가 불에 타 죽었다. 이훈의 처 변씨와 박담의 처 이씨는 시부모를 강도로부터 보호하다가 죽었고, 이반의 처 신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였다.

신주를 모셔오기 위해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간 효부는 돌아가신 조상에게까지도 목숨을 바쳐 효를 실천한 것이다. 이 사례는 전통시대 이 지역 여성들이 얼마나 희생적이며 강인하였는가를 보여준다.

이처럼 전통시대 여성은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제약 속에서 고통과 인고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목숨마저도 과감히 버리는, 강인하고도 굳센 아내였다.

2) 여성지식인 강정일당

조선 중기 이래로 사회, 문화적인 제반 제약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여성 지식인과 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사임당, 허난설헌, 정부인 장씨, 황진이와 배창 등에 이어, 18세기에 이르면 임윤지당(任允曄堂), 강정일당(姜靜一堂), 남의유당(南意幽堂), 서령수각(徐

습壽閣)과 김삼의당(金三宜堂), 이사주당(李師朱堂), 이병허각(李憑虛閣) 등이 학문과 문예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임운지당, 강정일당은 성리학을 깊이 탐구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적인 능력이 남성에 못지않았음을 입증하였다.

이들 중, 성남지역과 연고가 있는 강정일당은 특히 불우한 환경을 학문으로 극복한 여성이다. 정일당은 학문을 늦게 시작했으나 성리학에 관한 이해의 깊이는 매우 심오하였다. 빈한한 환경에서도 시문과 서예에 소양을 발휘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많은 저술을 하였는데 유감스럽게 다 유실되고 사후에 수집된 글만 『정일당유고』에 실려 있다.

정일당은 영조 48년(1772년)에 전주인 강재수(○在潞)와 청강 권서옹의 딸, 안동 권씨 습하에 태어났다. 세조 때의 공신이며 의정부 좌찬성을 지낸 문장가 강희맹이 10대조이고, 조부 강심환과 아버지는 모두 단명하여 벼슬에 나가지 못했으므로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다.

어머니는 성리학자 권상하의 동생인 참판 권상범의 원손이다. 친, 외가 모두 조선 후기의 명문가로 노론 계열에 속하였다. 정일당은 20세 때 14세인 윤광연과 결혼하였다. 혼수를 마련할 형편이 못되어, 결혼한 3년 후에야 겨우 시집으로 갔다. 윤광연은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하여 여러 지방을 다니며 상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과천을 거쳐, 후에 남대문 밖 약현(藥峴: 지금의 중림동)에 살았다. 자식을 9명 낳았으나 모두 죽었다. 만년에 와서야 형편이 나아져 광주부 대왕면(청계산 동쪽)에 산을 사서 조상의 묘를 이장하였다.

정일당은 결혼한 후에 본격적으로 학문을 하였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삶바느질로 생계를 꾸리면서 남편에게 학문을 권유하였다. 남편은 큰 학자가 되지도, 벼슬을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아내 정일당의 권유에 따라 안빈하며 부인과 더불어 학문을 토론하며 지냈다. 정일당 유고에 수록된 글 중에는 남편에게 권학하고 충고한 내용의 편지들이 많다. 윤광연이 스스로 회고한 다음 글에는 아내 정

일당과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내가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여 면려하였고, 나에게 한 가지 허물이라도 있으면 걱정하여 문책하였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중경의 바른 자리에 서게 하며, 천지간에 과오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부부지간에 마치 엄한 스승을 대하듯이 하였고, 조심하고 공경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이명춘 번역)

아내의 학문과 충고를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윤광연이 있었기에 정일당의 학문과 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윤광연의 절손한 인품도 함께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정일당은 61세인 1832년(純祖 32년)에 타계하여 청계산 동쪽(大旺面 洞退里) 선영에 안장되었다. 윤광연은 1836년에 정일당의 시문을 수습하여 문집으로 엮었다. 당시의 분위기로 여성들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전 재산을 기울여 엮어내었으니 아내로부터 받은 감화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정일당유고』에는 詩 38수, 書 7편, 尺牘 82편, 書牘紙 2편(8條), 記 3편, 題跋 2편, 墓誌銘 3편, 行狀 3편, 祭文 3편, 銘 5편, 雜著 2편이 수록되어 있다.

13경을 두루 읽고 깊이 침잠하였으며 전적들을 널리 보아서 고금의 역사와 정치 변동을 밝게 알았으며, 周禮, 爾雅, 春秋左氏傳, 近思錄, 擊蒙要訣 등의 책을 탐독하였다고 한다. 유교 경전 뿐 아니라 역사서, 문학서, 성리서 등을 읽고 수양과 실천에 정진하였다.

小學에서는 敬身篇이 총괄편이 되고 학문은 格物致知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다고 견해를 뚜렷이 세우고 中庸을 통해 천지와 사람의 이치를 탐구하였다. “戒懼”(戒懼・恐懼)가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하였다.

“하늘이 병부(命賦)한 성품에는 남녀의 다름이 없다. 부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太姬와 太任과 같은 성인이 되기를 기약하지 아니하면 이는 자포자기한 사람이다”고 하여 남녀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

고 여성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실상 임윤지당의 생각과 동일한 것이다. 이 두 여성은 증용의 “戒懼” “愼獨”의 수양을 쌓으면 마침내 “中和”의 경지에 이른다고 확신하였다.

스스로는 성과 경으로써 심성을 수양하여 성품의 본래 면모를 체득하고 安心立命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여성으로서의 가정 관리도 철저히 하고 언행에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하니 수양과 실천이 일치하는 완성된 인격을 볼 수 있다.

죽고 사는 것이 모두 각자의 분수에 달려 있으므로, 근심할 필요가 없고 오직 근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 도리를 다하였는가 라고 하며, 죽음에 임했을 때도 단정하고 자상하여 평상시와 같았다고 하니 평생 동안의 존심양성한 결과라고 보겠다.

정일당이 시를 짓기 시작한 것은 26세 때부터였다. 초기의 작품들은 학문과 수양에 관한 내용이 많고, 후기에는 남편 대신 쓴 증답시, 송축시, 훈계시 등이 많다. 서정적인 시보다 도학군자다운 지성적인 시가 많아 다른 여성에 비해 강한 자의식을 가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통시대의 숭한 규제의 질곡 속에서도 남성 못지않은 집념과 의지와 지성으로 스스로 성인의 경지를 지향한 여성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오늘날 사는 성남 여성들에게도 크게 고무적인 일이다.

밤 깊어 못 생명 쉬고 있는데
 밤은 비어 흰 달이 더욱 밝구나,
 마음이 씻은 듯 맑으니
 환하게 밝은 성, 정을 보겠네. (‘밤에 앉아서’)

정일당의 심성 수양의 경지를 보여주는 이 시는 맑은 거울과도 같아서 욕망과 갈등으로 탁해진 현대인의 심성을 환히 비추고 있다.

4. 전통시대 여성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자료

- ▶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1 시조 온조왕
- ▶ 『삼국사기』 『열전』 제8 都彌
- ▶ 『목은시고』 권 33 유대언 부인 원씨의 만사
- ▶ 『輿地圖書』 四, 廣州人物
- ▶ 『廣州邑誌』
- ▶ 『閨閣叢書』
- ▶ 검녀 약담
- ▶ 이경석 가문 기증고문서
- ▶ 김정일당 시

- ▶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1 시조 온조왕

始祖 溫祚王

一云, 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扶餘王解扶婁庶孫, 母召西奴, 卒本人延陀勃之女, 始歸于優台, 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優台死, 寡居于卒本, 後, 朱蒙不容於扶餘, 以前漢建昭二年, 春二月, 南奔至卒本, 立都號高句麗, 娶召西奴爲妃, 其於開基創業, 頗有內助, 故朱蒙寵接之特厚, 待沸流等如己子, 及朱蒙在扶餘所生, 韓氏子儒留來, 立之爲太子, 以至嗣位焉, 於是沸流謂弟溫祚曰, 始, 大王避扶餘之難, 逃歸至此, 我母氏傾家財, 助成邦業, 其勤勞多矣, 及大王厭世, 國家屬於儒留, 吾等徒在此, 鬱鬱如疋贅, 不如奉母氏, 南遊卜地, 別立國都, 遂與弟率黨類, 渡俱帶二水, 至弥鄒忽以居之

혹은 이르기를, 始祖(시조)는 비류왕으로서, 아버지는 優台(우태)니 北扶餘王(북부여왕) 解扶婁(해부루)의 庶孫(서손)이며, 어머니는 소서노니 卒木人(졸본인) 延陀勃(연타발)의 딸이다. 소서노가 처음 優台(우태)에게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長子(장자)는 沸流(비류)요 次子(차자)는 溫祚(온조)였다. 優台(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卒木(졸본)에서 寡婦(과부)로 지내었다. 뒤에 朱蒙(주몽)이 [北(북)] 扶餘(부여)에 容納(용납)되지 못하여 前漢(전한) 建昭(건소) 2년(西紀前(서기전) 2월)에 南(남)으로 卒木(졸본)에 이르러 都邑(도읍)을 세우고 國號(국호)를 高句麗(고구려)라 하고 소서노를 취하여 妃(비)로 삼았다. 그 소서노가 建國(건국)에 內助(내조)의 공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朱蒙(주몽)의 寵愛(寵애)가 특히 두터웠고, 沸流(비류) 등을 마치 친아들과 같이 대우하였다. 朱蒙(주몽)이 扶餘(부여)에 있을 때 禮氏(예씨)에게서 낳은 아들 薺留(유유)가 오자 그를 太子(태자)로 세우고 (드디어) 位(위)를 잇게 하였다. 이에 沸流(비류) 溫祚(온조)에게 말하기를, “처음 大王(대왕)이 扶餘(부여)에서 難(난)을 피하여 여기로 도망하여 오자, 우리 어머니께서 家財(가재)를 기울여서 도와 邦業(방업)을 이룩해 그 勤勞(근로)가 많았다. 大王(대왕)이 세상을 싫어하자[昇天(승천)], 나라는 薺留(유유)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한갓 여기에 (붙어) 있어 혹(虜)과 같아 답답할 뿐이다.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南(남)쪽으로 가서 땅을 택하여 따로 國都(국도)를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 아우(溫祚)와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溟水(매수)와 帶水(대수)의 두 江(강)을 건너 彌鄒忽(미추홀)에 가서 살았다 한다.

▶ 「삼국사기」 열전 제 8

都 彌

都彌, 百濟人也, 雖編戶小民, 而頗知義理, 其妻美麗, 亦有節行, 爲時人所稱, 蓋婁王聞之, 召都彌與語曰, 凡婦人之德, 雖以貞潔爲先, 若在幽昏無人之處, 誘之以巧言, 則能不動心者, 鮮矣乎, 對曰, 人之情, 不可測也, 而若臣之妻者, 雖死無貳者也, 王欲試之, 留都彌以事, 使一近臣, 假王衣服馬從, 夜抵其家, 使人先報王來, 謂其婦曰, 我久聞爾好, 與都彌博得之, 來日入爾爲宮人, 自此後爾身吾所有也, 遂將亂之, 婦曰, 國王無妄語, 吾敢不順, 請大王先入室, 吾更衣乃進, 退而雜飾一牌子薦之, 王後知見欺, 大怒, 誣都彌以罪, 韃其兩眸子, 使人牽出之, 置小船泛之河上, 遂引其婦, 強欲淫之, 婦曰, 今良人已失, 單獨一身, 不能自持, 況爲王御, 豈敢相違, 今以月經, 渾身汚穢, 請俟他日薰浴而後來, 王信而許之, 婦便逃至江口不能渡, 呼天慟哭, 忽見孤舟隨波而至, 乘至泉城島, 遇其夫未死, 掘草根以喫, 遂與同舟, 至高句麗蒜山之下, 麗人哀之, 丐以衣食, 遂苟活, 終於羈旅

都彌(도미)는 百濟人(백제인)이었다. 비록 백촌의 小民(소민)이지만 자못 義理(의리)를 알며 그 아내는 아름답고도 節行(절행)이 있어,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개루왕이 듣고 都彌(도미)를 불러 말하기를 “무릇 婦人(부인)의 德(덕)은 貞潔(정결)이 제일이지만, 만일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좋은 말로 꾀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사람의 情(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아내 같은 사람은 죽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를 시험하려고 일이 있다 하여 都彌(도미)를 머물게 하고, 近臣(근신) 한 사람에게 왕의 衣服(의복)과 말·從者(종자)를 빌려주어 밤에 그 집에 가게 했는데, 먼

저 사람을 시켜 왕이 온다고 알렸다. 왕이 와서 그 婦人(부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래 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都彌(도미)와 장기내기를 하여 이겼다. 내일은 너를 데려다 宮人(궁인)을 삼을 것이니, 지금부터 네 몸은 나의 所有(소유)이다”고 하면서 亂行(난행) 하려 하였다. 婦人(부인)이 말하기를 “國王(국왕)에겐 방령된 말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順從(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大王(대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소서. 내가 옷을 고쳐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물러와 한 婢子(비자)를 단장시켜 들어가 수청을 들게 하였다.

후에 왕이 속은 것을 알고 크게 怒(노)하여 都彌(도미)를 죄로 얹어 두 눈동자를 빼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어 작은 배에 싣고 물 위에 띄워 보냈다. 그리고 그 婦人(부인)을 끌어들이어 강제로 상관하려 하였는데, 婦人(부인)이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單獨一身(단독일신)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大王(대왕)을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어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月經(월경)으로 온 몸이 더러우니 다른 날 깨끗이 목욕하고 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믿고 허락하였다. 婦人(부인)은 그만 도망하여 江(강) 어귀에 이르렀으나 건너갈 수가 없어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는 중 홀연히 한 척의 배가 물건을 따라 오는 것을 보았다. 그 배를 타고 泉城島(원성도 : 위치 미상)에 이르러 그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아니하였다.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산산(蒜山 : 위치 미상) 아래에 이르니,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衣食(의식)을 주어 구차스럽게 살면서 客地(객지)에서 일생을 마쳤다.

▶ 『목은시고』 권 33 유대연 부인 원씨의 만사

柳代言夫人元氏輓詞

北原元大姓
西海柳名家
早寡身心苦
多孫闕闕華
山橫浮曙日
風細散朝霞
回首驪江上
迢迢一路斜

▶ 『輿地圖書』 四

廣州 人物

內隱伊 私家婢子也 竊入其廬 恫殺人 以其身 蔽其父 自當其害 竟
與父俱免事

▶ 『廣州邑誌』

1. 李氏

正卽成景溫之妻也燕山朝景溫遠謫遇害李氏殯葬盡禮哀號過節廬于

墓側手其祭饌服闋不食肉臘白其裳終其身中宗朝二年旌門

2. 安氏

本州人副正鄭世祿之妻弘文博士漢英之女也烈女旌門其弟掌令李彦忱之妻也幼性孝友其兄鄭氏婦嘗讀力氏女教喜而讀學自是知禮義盡讀烈女傳女小學仍喜涉經史能通其義年十四適李氏事舅姑誠孝待所天如賓凡朝家有事彦忱或謀及令人每服其見識裁治家事井井有條理明宗乙亥彦忱被謫卒于配所令人絕勺飲日夜哭不絕聲耳目口鼻流血幾死復甦令人賣庄資以葬需嘗曰夫人禮不可守墓于外兄備几筵之供送墓所每坐必向墓山三年粟米所罄沃傷斥鹽醬伏苦席位必血衣裳盡赤服闋哀至則哭過三十年如一日朔望俗節祭影堂咸自製祭文詞之悲惻見者垂涕奉姑比夫生時加勤及姑歿令人年已六十歲食水飲泣血柴瘠如少年時年過稀而每當諱日入廚親具祭羞曰今不自備祭可再乎事聞旌門

3. 李氏

孝子李旻之妻宗室海農君著之女也旻及弟昇死於父李氏泣血三年再葬日損生以從曰忍死至此爲有稚子今子已六歲雖無母可以生遂自決事聞旌門贈淑夫人昇之妻姜氏隨父在豐德間夫死亦投海死

4. 李氏

韓山人參議許稷之妻通小學論孟平君凜然有丈夫風丙子亂稷入南漢夫人率子女自楮子島避亂向峽行至黔丹山下賊卒至夫人知不免拔佩刃自裁事聞旌門稷題曰生己丑死丙子夙有德終取義三男女承厥祀命旌門

家翁識

5. 安氏

本州人儒生尹齊之妻楓崖敏學之孫女丙子亂齊被虜安氏毀形三次往尋終不得因自縊死事聞旌門

6. 南氏

引儀林希選之妻也居退村而丙子亂殉節旌閭

7. 金氏

善山人進士鄭友益之妻居京安而丁丑亂避兵春川與家人相失不知死所後友益夢金氏來言曰吾屍在於牛頭某崖之下須從草徑處來覓遲明往尋則屍在懸崖下背負葦歲兒子顏貌如生裙帶有血書曰遭亂奔避得全難必死後爾面如得見舅姑則死猶生矣葬之日復夢告友益曰正月二十五日是吾死日云後詢問於同時避亂者月日不異事聞旌門

8. 柳氏

士人安道明妻居儀谷而家中失火冒烟入祠宇抱祖先神主而死廟廟朝旌門

9. 俞氏 薛氏

士人具龍瑞妻俞氏具聖揆妻薛氏家中失火妻二人冒焰入祠宇婢德伊亦隨入俱死景宗朝并旌門

10. 李氏

學生姜澤傳妻居旺倫面烈女旌門

11. 李氏

李廷柱妻居細村面烈女旌門

12. 金氏

李鎮弼妻居實村面烈女旌門

13. 李氏

宗室仁城君之女監察南澈係婦居細村面烈女旌門

14. 邊氏

李堪妻居突馬面夜半強盜入室邊氏捍夫親冒白刃得免奉養老舅殫竭誠孝烈女旌門

15. 金氏

細村面居士人李光翼之妻陰之玄孫婦歸來歲夫卒金氏哀毀十有七月竟以自盡臨絕無憾咍之色謂其婢曰吾不能盡孝於舅姑曰吾不能告訣於舅姑曰驗吾勿以一革鮮附身曰葬吾必令歸而同穴曰善護立後兒勿絕之數語而已掌令朴題文哀詞曰生乎詩禮之門洵乎其王之溫而蘭之芬也穀之從一歲來及終泉之從萬歲其無窮宜乎其悲一十七月之未亡而樂一日之同也然舍魚取熊因君子之鮮或能之也操所重以輕生嗚呼貞婦之婦也自滅其身以同穴嗚呼烈女之烈也後事聞旌門

16. 朴氏

李俊恒之妻居宛馬面夫喪終制自決以從肅宗朝旌門

17. 李氏

孝子朴忱妻讓寧大君之後也居儀谷而月夜劫盜入湛老母在堂蒼黃奔竄?羣賊挺刃向忱李氏驚號翼蔽替受賊刃所臂幾墮肢亦驚歎而釋之忱與母俱出避得生李氏竟以殉旌門

18. 黃氏

西部面居士人安廷樞妻夫早歿黃氏絕食七日而死鄉中士林足文給復

19. 宋氏

慶安面居士人鄭德應妻肅宗朝戊戌大疫德應歿宋氏曰子爾青端將何所依卽自縊死今其家祭以同日

20. 申氏

大旺面居學生李○妻○亥丈夫及舅俱遭禍死申氏欲自引○弟址奪其刃面笑曰母病又欲何忍爲此申氏感其言乃至誠教姑竟至死及殯殮之日婢僕等忽告急舉家驚往視之則申氏已死矣傍有甕水一器又有新衾一領蓋欲爲自殮也事聞旌門

21. 安氏

本州人父土人裁晟高祖擢善時賢適幼學李載俊隨父居楊根邑治紅門里庚午大疫夫病革安氏知不能救遂自縊爲婢辛今所教鮮夫既歿一慟而止取筆作書于舅姑及其父置几上又取債簿遍償之曰不可取辱於身後又以錢若干分佩於兩婢子又爲一書付壁曰余雖溺死不可拯出爲蒿工輩所援挈遂取國中一顆香佩之辛今問其故答曰汝使吾不得死吾將投水矣聞魚驚惡香臭佩而辟之不欲爲魚腹之葬辛今日然則吾將從之又取一香攬衣袖而縫之至夜辛今聞睡安氏潛走至江辛今驚悟出趨曰主何去安氏頑曰汝復何言時大雨江漲黃流湯湯安氏先至溺焉辛今穴呼謂村人曰我主死矣村人驚出視之辛今說其由隨而溺死郡守李守顯則報道伯募民拯出數日而辛今浮出安氏屍竟不得事聞烈女忠婢兩旌門辛今死時年二十矣

22. 洪氏

士人金若澗之妻參議鍾秀之子婦其夫病劇作書告訣于父母其夫喪逝又爲告訣于舅父母勺水不入口舅姑泣而諭之洪氏順適其意約以至九日不死則當食至期而不死則曰天不使死從舅姑之命因姑粥飲家人信之防守稍弛至二十三日竟至自縊得遺訣於褥下其陳情敷義之辭不出一孝字已而境內士林舉其孝烈之狀自巡營狀聞旌闡

▶ 『聞聞叢書』

原文

무덤너쪽

등황죽완 인지가 상으로 다숫시 이시니 신인 진인 도인 지인 성인오 비금 다스손 던인 턴인 던인 성인 변인이요 가운데 다스손 공인 춘인 신인 달인 네인이오 아리로 다스손 소인 늘인 상인 등인 우인이라 하니 규합 중 엇지 인직 업스리요 성후턴비 숙녀턴부와 효절네힘과 툼의디락이며 직식선불의 디락을 넘서하여 부봉임축하다

넉디성후현비

숙녀

네힘

암하쳐죽 아국 불고승식 줄의 주는 말을 도라보지 아니축다

효녀

호부	
넋결	월산부인 아국
참의	논기, 아국 기성, 축석장의, 축성주의서 외론 집다
모교	
더석	
문당	스임당 룡곡 모친 숙덕묘화 덕이 뭉고 그림이 묘화더라 슈천녕 너즌 종실부인 비우옥마비로 옥노의 비화더라
직예	난설현 아국 시혹성당 시가 성당을 비화더라 옥봉 아국 도왕의 첩 감영조규 조규을 감동하여 올흐니라
녀공	진이 아국 기성 박연뉴명 박연폭포의 일흠을 머무다
검협	
녀선	
마녀	
녀불	
송니	
선서부인	
봉후녀즌	
집경녀즌	
니장	
남자소임녀즌	
녀즌단조첩조명목	
쇼명죽	

(현대표기)

부열녀록(付列女錄)

중황자왕 인재(人才)가 위로는 다섯이 있으니 신인(神人)·진인(眞人)·도인(道人)·지인(至人)·성인(聖人)이요, 그 다음 다섯은 덕인(德人)·현인(賢人)·지인(智人)·선인(善人)·변인(變人)이요, 가운데 다섯은 공인(公人)·충인(忠人)·시인(詩人)·달인(達人)·예인(禮人)이요, 아래로 다섯은 소인(小人)·능인(能人)·상인(商人)·중인(中人)·우인(愚人)이라 하니 규합(閏閏) 중에 어찌 인제가 없으리요. 성후현비(聖后賢妃) 숙녀열부(淑女烈婦)와 효절예행(孝節禮行)과 충의지략(忠義智略)이며 재색선불(才色仙佛)의 대략(大略)을 열서(列敘)하여 봉임칙(縫紉則)에 붙인다.

역대(歷代) 성후현비(聖后賢妃)-16명 나열.

숙덕(淑德)-10명 나열.

예행(禮行)-16명 나열.

암하 처자(妻子), 우리나라, 불고승식(不顧僧食), 종이 주는 밥을 돌아보지 않았다.-절에 가지 않았다는 의미.

효녀(孝女)-7명 나열.

효부(孝婦)-9명 나열.

열절(烈節)-25명 나열.

월산부인, 우리나라

충의(忠義)-20명 나열.

논개, 우리나라 기생(妓生), 축석루에서 외를 잡다.

모교(母教)-13명 나열.

지식(知識)-17명 나열.

의기(義氣)-10명 나열.

문장(文章)-16명 나열.

사임당, 윤곡(栗谷) 모친(母親), 숙덕묘화(淑德妙畵),
덕이 맑고 그림이 묘하다.

숙천영내자, 종실부인(宗室夫人), 비우옥막, 비로 옥
노의 비하더라.

재예(才藝)-18명 나열.

난설현(蘭雪軒), 우리나라, 시학성당(詩學盛唐), 시
(詩)가 성당(盛唐)을 배웠더라.

옥봉(玉峯), 우리나라 조왕의 첩, 감영자규(感詠子規),
자규를 감동하여 읊었다.

여품(女品)-36명 나열.

황진이, 우리나라 기생, 박연유명(朴淵留名), 박연폭
포에 이름을 머무르다.

검협(劍俠)-8명 나열.

여선(女仙)-38명 나열.

마녀(魔女)-3명 나열.

여불(女佛)-2명 나열.

승니(僧尼)-3명 나열.

선서부인(善書婦人)-8명 나열.

봉후여자(封侯女子)-약 10여명 나열.

집정여자(執政女子)-1명 나열.

여장(女將)-1명 나열.

남자소임여자(男子所任女子)-6명 나열.

여자 단자첨자 명목-21명 나열.

소명록(小名錄)-19명 나열.

▶ 겁녀 아담

劍女

丹翁曰：聞之湖南人曰：蘇凝天進士，有聲於三南，舉以奇士目之。一日，有一女子拜見而曰：“竊聞盛名久矣，欲以薄軀得侍巾櫛，倘值許否？”凝天曰：“汝不改處子之儀，然而自薦于丈夫，則非處子之事也，豈亦人隸乎？倡家之女乎？亦既事人，而姑未改未 之狀乎？”對曰：“人隸也。而主家已無唯類，無所於歸，卿有一段情願，不欲仰望凡子而終身，故男服而行世，不自輕污，勸擇天下之奇士，而自薦于座下矣。”凝天納之爲妾，與居數年。

其妾忽具猛酒嘉膳，乘間夜月明，而自敘其平生曰：“身是某氏婢也，而適與主家娘子同歲而生，故主家特與娘子而爲使，使爲將來嫁時轎前婢，年僅九歲，而主家爲勢家所滅，田園盡爲所奪，而只餘娘子與乳姆，逃匿他鄉，隸而從者，唯此一身耳。娘子纔踰十歲，而與賤身謀爲男裝，而遠遊求劍師，經二年始得之，學舞劍，五年始能飛空往來，露技於名都會，得累千金，以買四寶劍，乃之瞽家，爲將鬻技者，而乘月舞之，飛劍所割，頃刻數十頭，而瞽家內外皆已赫然血斃矣，遂飛舞回來，而娘子沐浴改爲女服，設酒饌，以復瞽告于先墓，而瞽賤身曰：‘吾非吾親之男子，雖生存於世，終非嗣續之重，而男裝八歲，方行千里，縱不污身於人，寧爲處子之道乎？欲嫁必無所售，使得售，何得稱意之丈夫哉？且吾家單子，絕無強近之親，誰爲吾主婚者耶？吾即自刎而伏於此，汝其賣我兩寶劍而葬于此，使得以骸骸歸于父母之兆，吾無恨矣。汝則人役也，處身之道，與我不同，不可從我而死也。葬我之後，必廣遊國中，而審擇奇士，爲之妻妾也。汝亦有奇志傑氣，豈其甘心低眉於凡子者乎？’娘子即伏劍，賤身賣兩劍，得五百餘金，即葬娘子，而以所餘買土田，使可繼香火，不改男裝而浮遊三年，所聞名高之士，莫如座下，故自獻其身，得侍下廬，而竊觀座下所能，乃文章小技，及星曆律算祿命卜筮符籙圖讖

等小術，而若處心持身之大力，經世範後之大道，則邈乎其未之及也。

其得奇士之名，無已太過乎！夫得過實之名者，雖在平世，亦難自免，況於亂世哉！座下憤之，其得全終，必不易矣。顧自今無居深山，而隴然圍然，處全州大都會，教授吏胥子弟，以足衣食而已，無他希覬，則可免世禍矣。賤身既知座下之非奇士，而要終身仰望，則是負宿心，而兼負娘子之命也。故明曉辭決，而將遊於絕海空山矣。男裝尚在，飄然更着而遊，寧復爲女子，低眉斂手於飲食縫紉之事乎。顧三年昵侍之餘，不可無留別之禮，且平生絕藝，不可將闕而不一見於座下，座下其強飲此酒，壯其鬱魄，得以詳看之。”

凝天大驚，而輒然嘿然，不能開一語，只受所擎之杯，既滿平時之量，止之。其女曰：“劍風其冽，而座下精神不烈，將倚酒力而支持，非洽醉不可。”更勸十餘杯，亦自飲半酒，既酣暢而發其裝，青氈巾，紅錦衣，黃繡帶，白綾袴，斑犀鞢，皎然蓮花劍一雙，渾脫女襦裳，而改服單束，再拜而起，翩然若輕燕，而瞥然騰劍，竦身挾之，始也四撒，花零冰碎，中高圍結，雪滾電鏢，未乃輕翔鴻與鶴羣，既不可見人，而亦無由見劍，祇見一段白光，掠東觸西，閃南擊北，而颯颯生風，寒色凍天。俄叫一聲，杳然割庭柯，而劍擲人立，餘光刺氣，冷遍於人，凝天初猶堅坐，已而顛縮，終則顛仆，殆不省事矣。其女收劍更衣，懷酒爲饋，凝天乃得蘇。明曉，其女男裝而果辭去，漠然不知其所向云。

嗟呼！女子之爲人隸，而尙能自珍其身，不忍輕委於凡夫，況於鴻儒奇士而不擇所從，如孔魚付之於陳陟，鮑永之於劉玄，獨何意哉！

<『雪橋別集』卷5『雪橋漫錄』6>

★ 안석경(安錫敬)

1718(숙종 44)~1774(영조 50).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숙화(淑華), 호는 완양(完陽)·삼교(雪橋), 아버지는 중관(重觀)이다. 안중관은 김창흡(金昌翕)의 문인으로 이병연(李秉淵)·민우수(閔遇洙) 등 당시 노론계 인사 및 홍세태(洪世泰) 같은 중인 출신 시인파도 교유한 노론계 학자였다.

1752년(영조 28)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곳 저곳 아버지의 임소(任所)를 따라 생활하였다. 당시 신흥도회가 형성된 홍천·제원·원주 등이 그 곳으로 참년기를 이리한 도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냈다.

이 때 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명예나 권력을 좇는 무리들이 날뛰는 환로(宦路)에서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아니고는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 없는 사회현실 속에서 심한 갈등을 하게 된다.

결국 세 차례 과거에 응하지만 모두 낙방하였다. 출세지향의 공부를 힘쓰지 않았던 그에게 낙방은 오히려 당연하기도 하다. 1752년은 과거에 응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지만, 그 해 아버지가 죽자 그는 곧 강원도 두메산골인 횡성 삼교(霜橋)에 은거한다.

삼교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후반기는 도회적인 생활을 떠나 벼슬을 단념한 채 산중에 은거하는 처사적인 생활이었다. 저서로는 『삼교별집』·『삼교만록』이 있다.

▶ 이경석 가문 기증고문서

「誦文」

恐

蓋凡人之捨生殉義 自古爲難 而婦人之殉義 爲尤難 蓋婦人之於死生之際 能裁擇義理 不失其中者 誠難矣 雖倉卒捐生於號辭痛罵之初 猶以爲難 況從容就死於日居月諸之後 又難之難也 除非烈烈之節 卓卓之操 愈久愈篤 則何以辨此耶

雖或見之往牒 聞之傳說 猶尙興感咨嗟 爲之流涕 矧同其閨而相其

事者乎 竊見李同享妻 呂原黃氏 自于歸之日 婦德甚著 和順靜□□□
治有範 奉祭祀以誠潔 事夫子以無違 未嘗有怠慢之容 疾遽之色

家甚貧窶 並日而食 平日所經歷 殆人所不能堪 而處之有力 無一毫
戚戚 底意 三十年 常如一日 此皆隣里之所共稔知 而嘖嘖者也 及其
夫子疾病危篤之時 必欲先爲自盡 而不能得 夫喪成服之日 飲藥昏空
幾殊 家人驚救 僅得甦活 而因成病廢之人 其子與婦 夙宵防守 至誠
扶護 爲日稍久 氣息漸完

則乃謂其子若婦 曰得賴汝輩誠孝 吾既不死於當時 吾豈復爲此舉
重貽汝輩之痛 而過於防護至此 遂處之夷然 若忘悲哀 而或照管家事
或撫教兒孫 使家人放心 又使其子婦 數次往省其本家經宿還 家人信
之 防護稍弛矣

其夫小祥漸近 其子婦適有故 又往本家 其子勉請夜深辭退 曉起往
省 則房門內鎖 寂然無應 排戶急入 則自裁於室隅衣櫥 已無及矣

由此觀之 蓋自飲藥復蘇之後 其志豈嘗一刻忘死 而隱忍含茹 強加
抑制外示寬譬之容 以緩家人之心 畢竟從容 遂其下從之若心 前既捨
命於號辭之際 後復就義於隱忍之餘 能其易而又能其難

嗚呼烈哉 以眇然一婦人之身 成千古卓烈之行 實是同閭之所共慘惻
而士林之莫不嗟歎者也 惟我國家 素重節義 而我聖上 尤軫顯忠褒節
之力 惟恐匹夫匹婦 苟有節行 或未上徹王 有俯詢旌贈 則黃氏之義烈
較著者 其不可泯沒也

審矣周萬等 或在此隣 或居一洞 平日飽聞其婦德之懿摯 尤服其節
行之特異 茲敢發文通告 伏願僉君子 特爲齊聲表揚 轉聞 春曹 以爲
仰達于天聽之下 重舉綽楔之典 幸甚幸甚

丁巳 二月 日

大護軍 洪周萬 前正言 朴宗謙 幼學 黃仁模 幼學 李義溶 大司
成 尹得孚 進士 尹衡鎮 幼學 李漢宗 幼學 李宇成 前兵使 尹範行
幼學 金載瑞 幼學 朴龜魯 幼學 李元相 幼學 尹觀基(手決) 幼學
朴泳源 幼學 具洪錫 幼學 林信詰 幼學 趙德興 監役 徐協修 幼

學 申光烈(手決) 宗簿正 洪榮淵 進士 尹華鑑(手決) 幼學 申光一
(手決) 前校理 朴吉源 進士 尹得應(手決) 幼學 鄭昶(手決) 前都
守 尹龜錫(手決) 幼學 黃仁燦 幼學 李元榮

번역

저어하건만 살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무릇 사람이 목숨을 버리고 의(義)에 죽는다는 것은 예부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부인(婦人)이 의에 죽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대개 부인이 사생(死生)의 즈음에 의리를 재택(裁擇)하여 그 중심을 잃지 않은 것은 진실로 어렵다.

비록 창후간(倉후間)에 울부짖고 통운(痛運)하는 당초에도 오히려 목숨을 버리기 어렵다. 하물며 조용하게 정한 날짜에 죽음에 나아가는 것은 어렵고 어려운 것이다. 이외에 얼얼한 절의(節義)와 탁월한 지조(志操)가 오래갈수록 더욱 더 돈독하지 않으면 어찌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비록 오래된 글 속에서 보았거나 전설을 들어도 감흥을 받고 자차(咨嗟)하여 눈물을 흘린다. 하물며 같은 마을에서 그 일을 상세하게 말하는 자 있겠는가. 절견(謁見)하오니 이동형의 아내인 장원 황씨는 우귀(于歸)한 날로부터 부덕(婦德)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화순(和順)하고 □□□ 예의범절이 있었다. 그리고 성결(誠潔)하게 제사를 받들고 어김없이 남편을 섬기어 태만한 모습이나 질거(疾遽)한 기색이 없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 하루에 한끼를 먹으면서 평일에 지나온 것이 자못 다른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방정(方正)하게 대처하면서 털끝만큼의 척척(戚戚)한 저의도 없이 30년을 하루같이 지냈다. 이것은 모두 인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알고 객객칭선(嘖嘖稱善)하는 바이다.

그 남편의 질병이 위독할 때에 기필코 먼저 자진하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였다.

지아버가 죽어 성복(成服)하는 날에 독약을 마시고 혼전하여 죽게 되었으나 이 때 가인들이 놀라 구제하여 겨우 살아났다. 인하여 병폐(病廢)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과 며느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지설(至誠)으로 부호(扶護)하여 얼마 만에 기식(氣息)이 완쾌되었다.

관바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의 효성에 힘입어 내가 그 당시에 죽지 않았다. 내가 어찌 다시 이러한 행동을 하여 거듭 너희들에게 아픔을 끼치겠는가. 지나친 방호(防護)가 이에 이르렀다” 하고 드디어 이연(夷然)히 대처하면서 슬픔을 잊었던 것이다.

그리고 집안 일을 맡아 관리하기도 하고 손자를 보살피기도 하면서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놓게 하였다. 또한 며느리로 하여금 자주 그의 친정에 보내어 부모께 문안드리고 경숙(經宿)하고 오게 하였다. 이에 집안 사람들은 안심하고 방호를 조금씩 늦추었다. 그런데 지아버의 소상(小祥)이 점점 다가올 무렵에 그의 며느리에게 연고가 있어서 또한 친정에 갔다. 그리고 그의 아들 면양(勉讓)이 밤이 깊어 인사하고 물러갔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 보았다. 그러나 방문은 잠겨 있고 조용하게 응답이 없으므로 문을 떠밀고 급하게 들어갔다. 그런데 방 모퉁이에 있는 의가에 자재(自裁)하여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이것을 연유(緣由)하여 살펴보면 아마도 지난번 독약을 마시고 다시 소생한 뒤로부터 일각(一刻)이라도 따라 죽음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숨어서 찰는 고통을 애써 억제하고 권으로 관비(寬譬)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인(家人)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였다. 그러나 끝내는 조용하게 하종하여 고심을 다하였다. 먼저는 목숨을 호벽(號擗)의 즈음에 버리고 뒤에서 다시 의를 은인(隱忍)의 나머지에 성취하니 쉬움과 어려움에 또한 능히 결행하였다.

아아 열제(烈戡)라 묘연한 한 부인의 몸으로 천고에 탁월한 행실을 이루었다. 실지로 이것은 같은 마을이 함께 참측(慘惻)하게 여기고 사립들도 차탄하지 않을 자가 없다. 오직 우리 국가는 본디 천의

를 증하게 여기어 우리 성상은 더욱더 현충(顯忠)·포전(褒節)의
발책에 힘썼다.

오직 궐부(匹夫)·궐부(匹婦)에게 진실로 절행이 있으면 행어나
왕에게 아뢰어 부순(俯詢) 청증(淸贈)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면 왕
씨의 의열이 교저(皎著)한 것을 가히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살피노니 주만(周萬) 등은 혹은 비린(比隣)에 혹은 한 동네에 살
면서 평일에 그 부덕의 의지(懿摯)를 충분하게 듣고 더욱이 그 절
행의 특이함에 감복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급을 띄워 동고하오니
구부려 바라옵건대 한 목소리로 표양(表揚)하여 춘조(春曹)에 알리
고 천청(天聽)의 아래에 도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작설(綽楔)의 편
이 거행되기를 바라고 바라나이다.

정사년(丁巳年) 2월 일

대호군(大護軍) 홍주만(洪周萬) 전정언(前正言) 박종겸(朴宗謙)
유학(幼學) 황인환(黃仁煥) 유학(幼學) 이의준(李義濬) 대사성(大司
成) 윤득부(尹得孚) 진사(進士) 윤충진(尹衡鎭) 유학(幼學) 이한종
(李漢宗) 유학(幼學) 이우성(李宇成) 전병사(前兵使) 윤범행(尹範
行) 유학(幼學) 김재완(金載琬) 유학(幼學) 박귀로(朴龜魯) 유학(幼
學) 이원상(李元相) 유학(幼學) 윤관기(尹觀基) 유학(幼學) 박영원
(朴泳源) 유학(幼學) 구홍석(具洪錫) 유학(幼學) 임신철(林信喆) 유
학(幼學) 조덕여(趙德輿) 감역(監役) 서협수(徐協修) 유학(幼學) 신
광렬(申光烈) 종부정(宗簿正) 홍락연(洪樂淵) 진사(進士) 윤화진(尹
華鎭) 유학(幼學) 신광일(申光一) 전교리(前校理) 박길원(朴吉淵)
진사(進士) 윤득응(尹得應) 유학(幼學) 정현(鄭眩) 전군수(前郡守)
윤귀석(尹龜錫) 유학(幼學) 황인찬(黃仁燦)

▶ 감정일당 시 (이영준의 정리를 인용함)

순서	제 목	연 도	형 태	주 제	주 제	비 고
1	敬次尊姑只一堂韻	1797	五言絶句	學問에 대한 立志	次韻(只一堂詩) 堂詩	
2	始課	1798	五言絶句	學問始作		
3	見書童被撻		五言絶句	訓成		
4	山家		五言絶句	安分, 自適		
5	自勵		五言絶句	勸學		
6	性善		五言絶句	心性修養		
7	呈夫子		五言絶句	남편 勸學		
8	敬呈夫子行規		七言絶句	남편 勸成 · 당부		
9	除夕感吟		七言絶句	修身 다짐		
10	病後	1822	七言絶句	達觀(體認誠明)		
11	偶吟		五言絶句	教訓(修養)		
12	讀中庸		五言律詩	學問, 修養		
13	示從孫謙顯		四言詩	訓成	孫婦(崔氏 · 權氏)	· 權
14	夜坐	1823	五言絶句	達觀(見性情)		
15	坦園	1824	五言絶句	安分自適		
16	謝海石金相公惠脫新鞋	1826	七言絶句	謝禮	代夫子作	
17	奉獻青箱子尊大人回甲壽席		五言律詩	頌祝(回甲)	代夫子作	
18	贈朴仲銘		五言絶句	訓成	代夫子作	
19	示同庚諸友		七言絶句	學問勸勉	代夫子作	

순서	제 목	연 도	형 태	주 제	주 제	비 고
20	坦園三章	1826	四言詩	自述, 修養, 連觀	代夫子作, 3章	
21	謹次丈席諸舞詩韻		七言絶句	追慕(宋時烈)	代夫子作, 次韻	
22	勉諸童		五言絶句	勉學訓戒		
23	除夜偶作		五言律詩	連觀, 自警		
24	謝安秀才號中兼示高信義		五言律詩	學問勸勉	代夫子作	
25	呈夫子		五言絶句	五言絶句		
26	元朝敬呈夫子	1830	五言絶句	學問勸勉		
27	除庭草		五言絶句	修養		
28	示誠主姪		五言絶句	訓戒		
29	(臨終詩)	1832	五言絶句	後悔, 憂憤	編錄前三日作	
30	主敬	未詳	五言絶句	修養(四敬)		
31	聽秋蟬	未詳	五言絶句	自然感興, 自適		
32	仰孔夫子	未詳	五言絶句	孔子讚揚		
33	寒末	未詳	五言絶句	安貧樂道		
34	坦園前路通乎康莊	未詳	五言絶句	修養, 勸勉		
35	誠敬吟	未詳	四言詩	修養(誠敬)		
36	謹次王陽成規燈草韻	未詳	五言絶句	訓戒, 自警, 次韻		
37	偶吟	未詳	五言絶句	追慕(某人)		
38	奉寄宗人東伯	1831	七言絶句	功德讚揚	代父子作, 拾遺	

제2장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의 전개과정

1. 개항기 성남 여성운동의 흐름

2. 1910년대 성남 여성운동의 특성

3. 1920년대 성남 여성운동

4. 1930년대 성남 여성운동

5. 1940년대 성남 여성운동

6.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에 관한 자료

- ▶ 여성운동의 종류
- ▶ 과정에서 합동으로
- ▶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의 여성에 대한 인식
- ▶ 여자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
- ▶ 교육과 사회와 신여성
- ▶ 여자운동선에도 방향전환이 필요 1
- ▶ 여자운동선에도 방향전환이 필요 2
- ▶ 가정부인의 눈물겨운 평생(문명 발달했으나 고생은 심해)
- ▶ 가정부인 해방과 모든 일의 사회화

- ▶ 여성과 사회의식
- ▶ 여성과 사치 1, 2
- ▶ 여성과 모방 1, 2
- ▶ S. J. 부녀해방운동사-부인운동의 조류-
- ▶ 가정생활개조와 그 실제
- ▶ 평론(評論) A. W. 생(生), 여학생운동에 대하여
- ▶ 가정생활의 실태적 -아버지와 자녀문제를 중심으로-
- ▶ 안광호(安光浩), 조선여성의 당면문제
- ▶ 조선여성이 향할 길-특히 신여성들에게 말하여 일꾼여자가 되기를 바란다-
- ▶ 김윤경, 부인운동과 인격문제
- ▶ 윤활석, 1931년의 여성운동과 금후전망
- ▶ 김옥엽, 가정제도와 성문제의 동향
- ▶ 조선여자의 사회적 지위
- ▶ 金善熙, 앞으로 權友會는 어떻게 되나
- ▶ 김윤경, 부인문제의 의의와 부인운동의 유래

제 2 장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의 전개과정

천 화 숙 (경원대학교 역사·철학부 교수)

1. 개항기 성남 여성운동의 흐름

19세기 후반에 들어 조선의 대내외적인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서구세력들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내적으로도 전통적 신분체제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치는 일부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세도정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한 대원군은 세도정권의 부패를 단절하고, 쇄국정책을 단행하면서 서양세력의 침투를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이 명성황후와의 권력다툼 속에서 제거되면서, 이제 조선은 서구열강의 손을 잡고 근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서구열강과 국교를 확대하게 되었다.

조선의 자주적인 근대화는 일본에 의해 좌절되었다. 19세기 중엽부터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시도한 일본은 대외적으로 상품판매 시장의 확보를 모색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조선에 눈독을 들였다. 일본은 조선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종래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각축을 벌였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입김은 더욱 거세게 된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하면서,

일본은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였고 1910년에 강점에 이르렀다.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의 여성들의 삶은 기존보다 많이 변화되었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인 여성관이 부정되고 새로운 여성관이 대두되었다. 이미 천주교가 전래하는 과정 속에서 성남을 비롯한 광주지역에서는 남녀평등에 입각한 여성관이 전파되었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남존여비라는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남녀평등의 관념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동학과 개화사상의 전파로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¹⁾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1886년 이화학당의 설립을 시작으로, 정신여학교·배화학당·송의학교 등 10개에 가까운 여학교들이 세워졌다. 여학교의 설립으로 여성들도 남자와 같이 교육을 받게 되었다. 여학교에서는 영어·음악·미술 등 근대적 지식을 교육하였고, 이를 통해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들에 의한 자율적인 근대 여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여성관이 도입되는 한편,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합병한 현실에 대해 온 국민들이 몸으로 저항하였다. 여성들도 물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을사조약이 있는 직후부터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일어나 거세게 투쟁하였다. 성남을 비롯한 광주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의병들이 일어나 일본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특히 1907년 일본이 강제로 군대를 해산하면서, 해산된 군인들과 기존의 의병들이 합세를 하여 일본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었다. 성남을 비롯한 광주에서도 의병이 조직되어 광주·수원·용인 등지에서 일본군과 대치하였고, 광주 부근에 있는 일본인 농장

1) 『독립선봉』 1886년 9월 5일.

을 습격하여 저장 곡식을 탈취하고 가옥을 불태우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일진회 회원의 집을 습격하여 태워버리는 등,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였다.²⁾

의병 활동 외에도, '교육과 실업을 진흥함으로써 경제적, 문화적 실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장차 국권회복의 토대를 마련한다'³⁾는 취지에서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었고, 일본에 진 빚을 갚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에는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었다. 의병이나 애국계몽운동은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반면, 국채보상운동에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구에서는 국권회복운동에서 여자의 참여를 논의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여자도 나라의 한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여성도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발표하고,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할 여성단체가 설립되었다. 여기에 자극받아 전국적으로 50개에 가까운 여성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에는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재력이 있는 여성들은 돈을 내기도 하였고,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밥 한술씩 덜 먹고 아낀 며칠 분의 식량을 의연금으로 내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녀·반지 등의 패물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국채보상운동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근대사회에 들어 여성들의 자의식에 의한 최초의 사회적 정치적 운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후 3·1운동이나 1920~30년대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발판이 되었다.

2)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85, 참조.

3) 『대한자강회회지서』, 및 『대한자강회규칙』, 『대한자강회월보』 제1호, 9~12쪽.

4)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8일.

2. 1910년대 성남 여성운동의 특성

조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폭압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여 갔다. 군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던 지방행정체제를 소규모의 면을 중심으로 개편한 뒤, 이를 토대로 면단위까지 경찰·행정관서 등이 설치되어 총독이 일원적으로 지배하는 식민지 탄압망을 구축하여 천지하게 조선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지배하려고 하였다. 또한 대대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벌려 강제적으로 조선 농민의 토지를 빼앗고, 일본에서 살기 어려워 이주한 일본인들에게 싼값으로 불하하였다.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쌀을 수탈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일본 벼 품종을 강제로 보급하였으며, 군수용 면직물과 군사 원료인 면화·누에고치의 생산을 늘리도록 강요하였다. 일본은 자국의 상품 시장을 확대하고 조선의 식량·원료를 더 효과적으로 반출하기 위해 각종 도로망과 철도 정비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국권회복운동 등 합병 이전에 조선의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의 명맥을 끊고자 민족운동가들을 대량 투옥·학살하거나 조선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고종의 인산일인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한다.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전남포·의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3월 초순 이후는 각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확산되어 갔다.

성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만세 시위운동에는 각계 각층을 망라한 것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교사·학생·농민·노동자·승려·관료까지 참여하였으며, 어린이와 거지까지도 주동적으로 시위에 가담하였다. 만세 시위운동에서 특기해야 할 일은 오랫동안 역사의 뒤편길에 있었던 여성들이 여러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단순 참여 이상의 주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수원과 안성 지역에서는 천대받았던 기생들이 만세운동을 전

개하였고, 개성에는 만세시위의 준비와 거사 진행을 모두 여성들이 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성남지역의 만세 시위운동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거국적인 3·1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일본의 지배정책에도 변화가 온다. 일본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총독부관계 폐지, 헌병 경찰제도의 폐지와 보통경찰제의 실시, 일반관리·교원의 제복과 大劍 폐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제한적 허용, 산업 개발 등 몇 가지 시정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허구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일본은 경찰병력을 증가시켜 조선 전역에 거미줄 같은 탄압망을 구축하였다.

한편 1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자본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농민의 대량 이동과 도시 노동자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으로 식량 수급을 왜곡시켜 일본 각지에서 쌀을 요구하는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여파는 조선에 그대로 미쳤다.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여 조선에서 쌀 생산을 증식하여 그것을 수탈하여 일본에 가져가려고 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은 조선 농민에 대한 강력한 수탈이었으며, 특히 심남을 비롯한 광주지역은 농지와 농민이 많은 관계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또 3·1운동 이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상품수출도 늘려갔다. 그리하여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장벽을 쌓은 채 상품수출을 크게 늘렸다. 일제는 주로 직물·의류·기계·금속제품 등을 조선에 수출하여 가뜩이나 취약한 조선의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수많은 기업들을 도산시켰다. 회사령을 폐지하여 일본의 민간자본이 조선에 진출하도록 하였다. 조선에 세워진 일본인의 공장에서는 조선의 노동력을 아주 싼값에 이용하는 등 많은 착취를 가하였다.

3·1운동 이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 변화는 조선의 독립운동과 여성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철저한 탄압으로

국내에서 무력항쟁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사람들은 국외로 빠져나가 만주와 상해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군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국내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한말과 1910년대를 풍미하였던 신실력양성론으로 돌아가 이른바 문화운동이 전개되었고,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노동운동·농민운동·학생운동·여성운동 등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불교계와 기독교 계열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도 전개되었다.

이 시기 여성활동을 주체적으로 이끈 여성들은 19세기 후반에 세워진 여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민제들이거나 미국이나 일본 등지로 유학을 다녀온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개화사상이나 기독교, 민족주의에 근거하기도 하고, 일부는 191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민족주의에 입각하던 사회주의에 입각하던 활동방법은 달랐지만, 여성단체들의 기본적인 활동 방향은 남녀평등에 입각한 여성 지위의 향상과 국가의 독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시기 여성들의 활발한 문화활동은 광주 출신의 유각경을 통해 전남지역 여성운동의 일단을 검토해 볼 수 있다.⁵⁾

조선 YWCA의 창립멤버였던 유각경의 사회활동과 여성운동은 주로 YWC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YWCA는 기본적으로 종교단체였지만,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운동 못지않게 여성의 의식개혁에도 앞장을 섰다. 기존의 여성운동은 주로 남성들이 중심이 되었고, 무엇보다 남존여비라는 봉건적인 전통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성운동 전개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YWCA를 통한 여성운동은 여성의 입장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전 시기보다 심도 있게 전개되었다. 또한 3·1운동 전개과정에서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의식변화가 있

5) 이하 유각경의 문화활동에 전화숙, 「1930·1930년대 여성운동과 유각경」(『성남문화연구』 6, 1999)과 기독교 여성단체의 활약에 대해서는 전화숙, 『한국 여성기독교 사회운동사』(제안, 2000)에 의거함.

었고,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이념이 국민주권주의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도 여성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 시기 여성운동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 여성문제의 주된 관심은 남성과의 권리동등 및 여성의 자주독립 등으로 요약된다. 즉 여성의 진정한 지위회복을 위해서는 남성에 예속된 결혼생활을 타파하는 것이 제1차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해방이나 남녀평등을 아무리 외쳐도 여성이 경제상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그 같은 구호도 결국 무위에 그치므로 경제상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생활을 면려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남녀평등의 첩경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여성은 교육을 받을 만한 능력도 충분하므로, 이런 것들이 모두 실천되었을 때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1920년대 성남 여성운동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당시 우리나라 현실은 몇몇 개의 여학교가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맹률이 매우 높았고, 자연히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여성해방의 논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여성단체들은 여성 해방 운동의 일환으로써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복 하는 데 주력하였다. 각종 강습소를 설치하였고, 특히 야학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여성들을 교육해 나가려고 하였다. 야학 교육은 정식 학교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주로 각 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야학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로 고무행상, 제사공상, 직조공장, 연초공장에서 과도한 노동을 하는 무산부인들이고, 행상을 하는 부인도 있었다. 야학은 3·1운동 이후 1920년대 경기도에만 40여 개가 설립되었고, 광주에도 부인야학이 한 개가 설립되었다.

한편 유각경이 속한 YWCA에서는 아편·축첩·매음·잡기 등을 금지하자는 운동과 함께 금주·금연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유각경은 선교사 부인들과 함께 1923년 조선여자금주회를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금주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920년 후반에 들어 유각경이 속한 YWCA에서는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20년 후반은 일제의 수탈농정으로 인해 심각해진 농촌사회의 피폐화에 대한 현실적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YWCA는 YMCA와 연대하여 농촌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촌 사업의 내용은 문맹퇴치운동·협동조합운동·농사계량·농촌지도자 양성 등 농촌문제 전반에 두루 걸쳤다. 이 가운데 YWCA는 문맹퇴치운동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농사강습 등을 주로 추진하였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 한반도 내에서 또 하나의 움직임은 바로 좌우합작이었다. 당시 식민지 현실 속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진영 간에 대립을 벗어나 민족의 공동된 과제로서 해방을 추구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사회·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민족세력의 단결, 좌우합작이 시도되었다. 신간회가 결성되었고, 여성계에서도 민족주의 세력의 중심채 역할을 담당하던 YWCA와 사회주의 세력 간에 연대가 모색되어 근우회를 창설하였다. 유각경은 근우회가 결성되는데 산파역할을 하였고, 임시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특히 근우회는 조국 독립과 함께 여성문제를 부각시켜 여성 해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좌우의 이념 대립을 자제한 채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일체 차별을 철폐하고,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을 타파하고, 조혼을 폐지하고 결혼의 자유를 인정하고, 인신매매와 공창을 폐지하고, 농촌부인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을 철폐하고 산전 산후 임금을 지원하고,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 노동과 야근을 폐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활동방향은 YWCA와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구축해 온 여성문제를 총망라 하는 것이었다.

4. 1930년대 성남 여성운동

1920년대 성숙한 여성운동은 1930년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성들은 문학·예술·교육 등 각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내외법이 되새기고, 따라서 장옷·쓰개치마 등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이 일제에 의해 암담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여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자,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일본의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경제공황의 책임을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자, 노동자와 농민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륙침략을 기도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대륙침략의 전진기지로 이용하는 동시에 일본의 독점자본을 우리나라에 진출시켜 경제공황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만

회하려고 하였다.

조세 공과 및 각종 전쟁 부담금이 증가되고, 통제 경제가 실시되자 일반 민중들의 생활난은 매우 심각하였다. 일본은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본인 노동자와 소작농을 살대로 무상으로 경지를 임대하거나 불하함으로써 이들을 우리나라로 이주시켰다. 일본인 노동자와 소작농이 우리나라로 많이 이주해 오며 따라 토지에서 박탈당하는 농민의 수가 많아지고, 한국인 소작농의 숫자가 증가하여 소작농의 경제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일본인 지주들을 중심으로 고율의 소작료가 매겨지고, 이것이 확산되면서 한국인 소작농의 부담이 커졌다. 또한 지주들이 소작료를 매개로 자주 소작권을 이동하면서, 소작농들의 부담은 더욱 커져갔다. 여기에 일제가 전쟁 준비로 인한 각종 세금을 인상하자, 지주들은 소작농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이것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식량조달 위험을 받아 식사 횟수를 줄이고 草根木皮로 연명하는 농민들조차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만주·시베리아·일본 등지로 이주하여 궁핍한 생활을 타결하려고 하였다. 한편 대다수의 농민들은 지주들의 행동에 저항하여 투쟁운동(소작쟁의)을 전개하였다. 소작쟁의는 1920년대부터 나타났지만, 3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⁶⁾ 농민들이 소작쟁의를 일으킨 목적은 소작료를 인하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지만, 지주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부담하게 소작농들에게 전가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소작쟁의는 단순히 소작료 인하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농민들의 경제사정이 나빠지게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제의 수탈정책에 있었음을 인식한 농민들

6) 1900년도에 발간된 『조선농지연보』를 보면 경기도 지역의 소작쟁의 횟수는 1900에 95건, 31년에 54건, 32년에 34건, 33년에 117건, 34년에 321건, 35년에 1873건, 36년에 1299건, 37년에 1996건, 38년 122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선총독부 농림국, 1940, 『조선농지연보』 1집 26-28쪽 ; 『경기도 향토문화유산』, 2000, 623쪽에서 재인용).

은 관공서를 습격하여 일제의 탄압을 규탄하고 일제타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성남을 비롯한 광주지역에서도 소작권을 박탈당한 농민들이 당국에 진정하여 소작권을 반환받기도 하였고,⁷⁾ 소작료를 징수할 때 저울을 변조하여 더 많은 소작료를 받은 지주에게 저항하는 농민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⁸⁾

공장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도 일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국수탈정책과 세계대공황 등으로 조선 농촌이 파멸해지면서,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였다. 이들은 주로 도시로 모여들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민족적 차별 속에서 일본인 노동자보다 긴 노동 시간과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등에 시달리면서 노동에 종사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1930년대 들어서서 경제공황으로 더욱 악화됐다.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늘어나면서 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도리어 내렸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들보다 더 큰폭으로 임금이 깎였다.⁹⁾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공장으로 나오게 된 한국인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에 비해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고, 숙련공이 된다고 해도 아주 낮은 임금을 받아야만 했다. 또한 장시간의 노동과 형편없는 식사로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 모습은 마치 중병을 앓은 환자처럼 쇠약한 모습이었다. 극도로 쇠약한 몸이지만 쉬지 못하고, 계속 노동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장 내에는 특별한 규율이 있어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매를 맞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해야만 했던 한국인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이라고 하는 차별과 함께 나라를 잃은 국민으로서 당해야만 했던 설움을 동시에 견디어 내어야만 했다.

7) 『동아일보』 1938년 4월 5일.

8) 『동아일보』 1935년 11월 16일.

9) 강동진, 『일제강점기의 한국노동자의 생활상-주로 한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43, 1993.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해야만 했던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의 확립, 최저임금제의 설정,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의 획득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여성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미 1920년대부터 전국 각지에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각종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노동쟁의)이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이 만주 침략으로 전시체제를 구축하면서 노동 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자, 노동쟁의는 더욱 극심하였다. 뿐만 아니라 1930년 노동쟁의는 대중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 30년대 노동쟁의는 단순한 경제적 투쟁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반제 투쟁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성남지역에서도 항일비밀결사 조직인 남한노동공조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¹⁰⁾ 남한노동공조회는 1930년에 결성되어, 중부면 산성리를 근거로 활동하였다. 남한노동공조회에는 농업이나 점원·목공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이 단체는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일제의 만행을 인식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남한노동공조회는 일제에 적발되어 추적을 받자 지하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조직을 전환하여 광주공동조합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다가 1934년 석계환 등이 주도하여 광주공산당협의회로 조직을 재편하는 동시에 노동야학을 통해 투쟁역량을 확대해 나갔다. 나아가 영등포와 인천 등지의 산업 중심지로 세력을 확장시킨 다음, 영등포와 인천 지역 노동자들의 동맹과업에도 적극 관여하기도 하였다.

10) 이기하, 『한국공산주의운동사』, 국토출판원, 1976, 1175-1176쪽.

5. 1940년대 성남 여성운동

1940년대 들어 여성들의 삶은 일제식민지 지배 기간 중 가장 비참한 시기였다. 일본은 만주 침략 이후 1938년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1940년에 독일·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체결한 후,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제2차 세계 대전에 가담하였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을 대륙병참기지로 설정하고, 조선의 모든 자원을 끌어내 침략전쟁에 동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체제적인 노동자와 지식인들을 탄압하는 한편, 국가체제를 급격히 전시총동원체제로 전환하였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동원하기 위하여 주요 식량 전부를 통제하고, 군수작물과 축산물, 지하자원 등을 수탈하였다. 또한 한국어 사용 금지, 신사참배, 황씨개명 등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공사장·군수공장·전쟁터 등지로 내몰았다.

여성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끌려간 여성들은 혹독한 노동을 해야만 했다. 일본은 한국 여성들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하여, 일본 여성들이 일할 때 입는 ‘몸배’라는 바지를 강제로 입도록 하였다. 이 시기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연행되는 것이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에 참가하면서 전선이 남방 각지로 확대되자, 징병제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몰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로 일본군의 성 노리개로 내몰렸다. 정신대로 끌려간 여성들은 주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난한 집 여성들이었다. 일본은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인신매매나 유괴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정신대로 내몰았다. 정신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법적으로는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이었지만,¹¹⁾ 실제로는 11세 어린 나이부터 동원하

기도 하였다.¹²⁾ 정신대로 끌려간 여성들은 만주·대만·남아시아·남양군도 등 일본군의 점령지 구석구석까지 내몰려졌다. 정신대로 간 여성들은 위안부로서의 생활만이 아니라, 빨래·청소·음식 나르기·물베기 등의 잡일을 하였고 심지어는 낮에는 공장 노동자나 공사장의 일꾼으로 동원되는 등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하여야만 하였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은 역사학 전반에서 보면 특수사로 간주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남지역 여성사를 종합 정리하는 작업은 여러 과제가 중첩된 것이어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에 관한 성남지역 자료는 전국적인 여성운동의 흐름을 일차적으로 정리한 후 여기에 광주지역과 성남지역에서 발생한 여성 운동을 조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성남에 국한된 자료에 한계가 있어 가능하면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6.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에 관한 자료

- ▶ 여성운동의 조류
- ▶ 과정에서 합동으로
- ▶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의 여성에 대한 인식
- ▶ 여자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
- ▶ 교육과 사회와 신여성
- ▶ 여자운동선에도 방향전환이 필요 1
- ▶ 여자운동선에도 방향전환이 필요 2

11) 조선총독부, 『여과정신대근무명』, 『조선』 8월호, 1944.

12) 정진섭,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실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2001, 을별, 21쪽.

- ▶ 가정부인의 눈물겨운 평생(문명 발달했으나 고생은 심해)
- ▶ 가정부인 해방과 모든 일의 사회화
- ▶ 여성과 사회의식
- ▶ 여성과 사치 1
- ▶ 여성과 사치 2
- ▶ 여성과 모방 1
- ▶ 여성과 모방 2
- ▶ S. J. 부녀해방운동사 -부인운동의 조류-
- ▶ 가정생활개조와 그 실제
- ▶ 평론(評論) A. W 생(生), 여학생운동에 대하여
- ▶ 가정생활의 실태 -아버지와 자녀문제를 중심으로-
- ▶ 안광호(安光浩), 조선여성의 담면문제
- ▶ 조선여성이 향할 길 -특히 신여성들에게 말하여 일꾼여자가 되기를 바란다-
- ▶ 김윤경, 부인운동과 인격문제
- ▶ 윤향식, 1931년의 여성운동과 금후전망
- ▶ 김옥엽, 가정제도와 성문제의 동향
- ▶ 조선여자의 사회적 지위
- ▶ 金善毗, 앞으로 權友會는 어떻게 되나
- ▶ 김윤경, 부인문제의 의의와 부인운동의 유래

▶ 여성운동의 조류

(1) 여자청년회의 조직

조선에서 여성운동이 그 맹아를 보인 것은 1919년 만세 소요사건

무렵부터의 일로서, 김마리아 사건의 발발은 여성이 천시되던 사회에서는 경이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 후 기독교계의 학교에서 수학한 조선여성들에 의해 여자 청년회가 조직되었는데, 그 사업으로서 부인 야학, 지방순회강연 등을 벌이면서 여자 계몽운동이 전선에 과급되어, 크고 작은 여자청년회가 각지에서 조직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성단체를 통일시키기 위해 1924년에는 조선여성기독교청년회(朝鮮女子基督青年會)가 출범하여, 우익적 여성운동의 대동단결을 형성하였지만, 사회운동으로서는 하등의 적극적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2) 조선여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의 창립

1924년경부터 조선에서도 사회주의운동이 침투하여, 박연한 민족운동을 대신하는 기운이 일어나고, 1924년 5월 10일에는 조선 최초의 여성 주의단체(主意團體)인 조선 여성동우회가 정종명(鄭鍾鳴), 정칠성(丁七星), 허정숙(許貞淑), 주세죽(朱世竹) 등에 의해 창립되었다.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신사회의 건설과 여성운동의 통일 및 훈련”에 있었다. 당시 회원은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순회강연 등을 통해서 지방 미조직 여성회득에 노력한 결과, 전선 각 도시에서 수십 개의 단체가 결성되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조선 여성동우회가 조직됨에 따라 여성운동 분야는 여자 기독교 청년회와 함께 2대 산맥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전자는 사회주의사상을, 후자는 민족주의적 자유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각각 활동하게 되었다.

▶ 파쟁에서 합동으로

(1) 조선여성개방동맹(朝鮮女性開放同盟)의 창립

조선 여성동우회는 창립 당시 북풍 서울 양파의 인물을 망라했었기 때문에 곧 내부에 암투가 발생했다. 당초에는 북풍파의 세력이 강대하였으므로 각파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곧 서울파가 자위책(自衛策)으로 1925년 1월 김정숙(金貞淑), 주월산(朱月山) 등 차파 인물로써 조선 여성개방동맹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북풍파를 견제하였다.

(2) 경성여자청년동맹(京城女子靑年同盟)의 창립

서울파의 조선 여성개방동맹의 창립은 북풍파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북풍파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산계급 여자의 단결력과 상호부조로써 여성의 개방을 기(期)한다”라는 목적을 내걸면서 주세죽, 허정숙, 김필순(金弼順) 등의 발기로 북풍계 여성사상 단체인 경성여자 청년동맹을 1925년 1월 21일 창립하여 발표했다.

(3) 경성여자청년회의 창립

1924년 봄 창립된 여성동우회 내부에는 북풍파의 세력에 대립하는 서울파의 박원희(朴元熙), 김보준(金甫準) 등의 반대세력이 혼재해 있었는데, 북풍파는 이에 대해 압력을 가하여 서울파를 구축(驅逐)하고 동우회를 자파 수중에 넣었을 뿐 아니라 여자청년동맹(女子靑年同盟)을 결성하여, 서울파를 압박, 박원희, 김보준 등을 여성

동우회로부터 탈퇴시켜 버렸다. 때문에 1925년 2월 21일 탈퇴자들은 서울과 경성 여자 청년회를 조직하여 여자 청년 동맹에 대항하였다.

(4) 프로여성동맹

1924년 이후 사상운동의 중심세력이 서울·북풍 양파의 항쟁으로 시종하고 있을 무렵, 여성운동도 이러한 와중에 빠져 실제 운동에서 하등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성운동이 몰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엄정 중립파의 여성 김지옥(金止玉), 임송흙(林松治), 현애라(玄愛羅) 등에 의해 조선여성개방동맹이 생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서울파의 김현제(金賢濟) 등은 1925년 1월 자파 인물 김정숙 등에 의해 조직된 개방동맹과 동일한 명칭으로 개칭한 뒤 “무산 계급여성의 개방을 기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1925년 1월 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리하여 조선 여성운동은 3파 연립시대를 출현시키고, 세력쟁탈의 양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다.

(5) 중앙여자청년동맹(中央女子靑年同盟)의 결성

조선의 여성운동 분야가 기독교계의 민족파, 서울, 북풍, 중립의 사회주의파의 대립양상을 띠면서 각각 자기주장을 고수하여 반복, 항쟁, 배제, 긴항(拮抗)을 일삼으며, 몰락의 길을 가고 있을 무렵, 일파의 여성들 간에는 과정의 청산, 국부적(局部的) 여성운동으로부터 전면적 여성운동으로의 주장이 일어나고, 1926년 8월에는 이현경(李賢卿) 등이 일원회계의 인물과 함께 동경에서 귀선(歸鮮)하여 여성운동의 전선적 통일(全鮮的 統一)을 기도하였다. 그는 황신덕 등과 함께 우선 북풍파 소속 경성 여자 청년동맹 및 서울

과 소속 경성 여자 청년회와 협동을 피하여, 극력 분주(極力奔走) 조정애 노력한 결과 동년 12월 25일 양자 합동총회를 개최하고 이어 중앙 여자 청년동맹을 창립하여, 조선 사회단체 활동의 선구에 섰다. 본 합동의 성립은 당시 타 사회운동 전선에 많은 자극을 주어, 전선통일(戰線統一)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의 여성에 대한 인식

노동여성들을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이는데 있어서는 특히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자의 조직율은 여전히 높지 않다. 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부분인 투쟁부대를 공장주의 진공(進攻)을 앞에 두고도 하등의 호응도 없는 부대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여성의 임금이 대단히 하락했다는 사실, 노동여성의 해고가 가장 거대한 수치에 이르렀다는 사실, 파업에서의 그들은 적극적인 참가가 대단한 강도로 나타났다는 사실 등을 보아도 노동여성들을 조합으로 끌어들이는 임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노동여성들의 조직을 수수방관할 수 있는 조건은 찾아볼 수 없다. 노동여성부를 노동계급의 투쟁 계도 위에 성공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혁명적 노동조합 내에 노동여성에 관한 활동을 책임지고 실행하는 여성부를 조직하고, 공장 내에서의 노동여성의 특별회의, 연설회 및 그들과 관계있는 그들의 물질한 제 문제 등을 토의하는 대회 같은 것을 소집해야 한다.

(1) 일제 강점기 여성의 해방

조선의 여성은 노예적 상태에 있으며, 봉건적 잔재, 경제상, 문화상 그리고 법률상의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녀들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독립성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하며 불쌍한 생존을 계속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특히 비참한 것은 여성 노동자로서 중경(重經)공장 프롤레타리아트의 3할 이상이 넘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착취는 그 비인도적 처사와 강탈성에 있어서 참으로 전대미문의 것이다. 조선에서의 여성의 노예적 상태는 국내의 모든 사회기구 속에 봉건적 잔재가 뿌리 깊게 존재하며,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집요하게 보존되고 있는 결과이다.

조선공산당은 근우회 및 그런 종류의 부르주아적 여권 확장단체의 여성해방을 위한 진정한 투쟁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특기한다. 조선 공산당은 여성대중에 대하여 조선여성의 노예적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현 제도 타도를 위해 조선공산당이 지도하는 조선근로민의 전반적 혁명투쟁에 참가, 합류할 것을 호소한다. 근로민과 동맹하여 일본제국주의에 대해 투쟁함으로써만이 조선 근로여성은 자기 해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공산당은 기업의 모든 여공, 농촌에서의 일용 여성에 대하여 계급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근우회를 포함한 온갖 색깔의 개량주의자에 대한 불굴의 투쟁을 행할 것을 호소한다.

조선공산당은 아래의 목적 획득을 위해 투쟁한다.

- (가) 여성의 야간노동 전폐, 지하노동(탄광 등과 같은) 및 유해생산에서의 여성노동의 금지
- (나)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노임'이라는 요구를 제기하면서 노임에서의 민족별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의 타파

- (다) 부인의 사회상·경제상 및 법률상의 완전한 평등
- (라) 산전 산후 각 2개월 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것. 단 이 기간의 노임은 전액을 보장하고 무료로 의료 원조를 해줄 것. 여성의 노동하는 모든 중경공장 및 기업에서 기업가의 부담으로 산아 및 유아탁아소와 수유장(授乳場)을 설치하고 수유부의 노동시간을 1일 6시간 이내로 단축할 것

▶ **여자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

우리는 남의 아내와 남의 며느리가 되어서 한갓 그 집안의 부모와 그 남편 한 사람만을 지극히 정성으로 받들고 공경(恭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개성(個性)을 살리고 우리의 인권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눈앞에 급박한 큰 문제이다.

만일에 우리가 사람에게 의뢰하여 사는 기생충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며 한 세상의 인간살이가 남을 위함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함이라 하면 우리는 먼저 남과 같이 완전히 자유롭게 살 것을 요구할 것이며,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요새 일어난 각자인 신여성들의 맹렬한 부르짖음이 있고 굳세게 싸움이 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 부인된 여자의 지위는 사회상으로 어떠한가 아니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살림을 이루고 있는가?

요컨대 오늘날 사회의 우리 부인은 경제상의 독립을 얻지 못한 까닭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남자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들의 완롱물(玩弄物)이 되었으며, 기계(機械)가 되어버렸다. 그러기에 우리 부인은 항상 우리를 똑바로 이해(理解)하는 사람들에게서 『남의 아내』, 『매음(賣淫)부』, 『직업 부

인』 등의 여러 가지로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이름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하는 이유는 남의 아내된 여자도 역시 배움부 같이 옷과 밥을 얻기 위하여 남자에게 몸을 팔기여 버림으로 그것이 오직 한사람의 남자에게 일생을 팔아 버리는 것이나 또는 하루 저녁에 수많은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버리는 것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 하여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나 모두 동일하게 매음(賣淫)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이 두 가지가 모두 옷과 밥을 구하는 것인 까닭에 역시 동시에 직업 부인이 되는 것이라 한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너무나 우리 여자에게 굴욕(屈辱)적 비판이요, 아울러 가혹한 관찰(觀察)이라고 말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이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보다 우리 가정 부인된 여자의 현실생활은 여실히 이상의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실증하여 가르친다.

소위 상류가정에 있어서는 아내 된 여자는 오직 남자의 일개 완물(玩弄物)과 가정의 장식물에 불과하다. 그는 오직 값싼 화장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눈썹 위에 아미산을 그리고 얼굴에 백분을 도배하여 낮과 밤으로 그 남편의 웃음을 사기에 겨움이 없으며 한갓 그에게 성(性)의 선물을 제공할 뿐이다. 때로는 장식과 완물에 적당치 못하고 남자를 곤란케 하는 일도 있으나 대체로 일반 상류사회의 아내는 그 집안의 아름다운 꽃송이가 되어 있으며 그 남자의 재미있는 노리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 중(中)이 한 사회에 있어서는 아내는 전혀 일종의 가정 노예(奴隸)가 되었다. 아내 된 여자는 남편에게서 얻어먹는 대신에 육아와 재봉과 음식과 세탁 등의 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초분의 여유가 없으며 하등의 여력이 없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벌어먹는 노동계급이 되면 여자의 권리가 조금씩 신장하여 가지지만은 그 대신에 또 다시 여자는 직업과 가사의 두 가지 무거운 짐을 부담하고 매우 괴로운 상태에서 헤매게 된다.

그 다음에 배움부에 이르러는 그 종류가 실로 여러 가지로 나뉘

어 있지만은 다수의 남자에게 하루 낮과 하루 밤을 팔아버린다는 점으로 보면 어느 것이나 매음부는 다같이 동일한 심질을 가졌다. 그러나 그 중에도 소위 기생같이 상류신사의 노리개가 되어 있는 것과 창기나 매음부같이 중(中) 이하의 독신남자에게 조롱을 받는 것과는 즉 이를 리는 점이 불무하다. 기생 같은 것은 상류의 신사들이 그 가정 안에서 자기의 아내로만은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어서 도처에서 노리개를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생겨난 것으로 그것은 남의 아내에게 비하여 더한 충분한 노리개이며 또 다시 아름다운 노리개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간혹 경제상에 독립을 가진 자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남의 아내 된 여자보다는 많은 자유를 가진 자도 있다. 그러나 창기나 매음부 같은 것은 중(中)이하의 남자가 손(客)이 되어 있으며 그 남자들은 대개 빈곤한 까닭으로 아내를 얻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여 한때에 정을 해치고자 이러한 종류의 매음부들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매음(賣淫)은 과는 사람으로 보든지 사는 사람으로 보든지 어느 것이나 모두 빈곤한 결과인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더구나 이것을 과는 사람의 비참한 상태는 실로 밤이 고쳐진다.

제 삼으로 직업부인에 이르러는 종래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곧 색(色)에 의하여 의식을 구하는 남의 아내도 되지 않았으며 매음부도 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의하여 의식의 길을 얻는 부인이다. 이것이야말로 고대에서 보지 못했던 현대 문명사회의 특산물로서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제 일(一)은 중류 사회의 직업부인, 다시 말하면 학교교원, 전화교환수, 간호부, 의사, 사무원, 회사원 등의 유(類)가 이것이니 이들은 상당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써 상당한 보수도 받게 되며 또한 남자와 서로 대립의 지위에 있어서 병진하는 까닭에 그 남자와 경쟁하는 점으로 보아 대단한 고통이 있으며 그 자연의 결과로 결혼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부득이 오랫동안 독신생활을 이루는 고통이 있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직업부인이 날마다 증가되는 것을 보고 여자활동의 범위

가 확장한다고 대단히 기뻐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필경 남자보다도 임금이 쓴 여자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에 그칠 따름이며 아무 것도 여자의 지위가 높아지거나 여자의 활동범위가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여자는 편리한 기계(機械)가 되어 어떠한 사무의 일부분에 사역이 될 뿐이다.

그 다음 제 이(二)로는 순전한 노동자로 소위(所謂) 여공이라는 것이다. 여공의 경우는 비참한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은 이야말로 옛적의 노예 그대로다. 공장의 큰 기계를 움직이기 위하여 고용되는 여공 같은 것은 실로 그 기계의 한 부분 같은 느낌이 있다. 조금도 사람으로서의 대우는 받지 못한다 간간이 여공의 탈주(脫走)이니 자살이니 하는 사실이 신문이나 지상에 보도되는 것만 보아도 저들 여공의 생활이 얼마나 고역의 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상상이 된다. 또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 여공의 반수 이상은 모두 무서운 폐병환자들이라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저들의 경우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가정 부인된 여자의 지위와 경우는 아는 듯 모르는 듯한 몽롱한 의식 가운데서 거의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잃어버릴 만치 개성(個性)의 멸망을 당하고 인권의 유린(蹂躪)을 당하였다. 더욱이 남달리 특수한 동양 도덕의 교훈을 받아온 우리 조선 부인은 역사의 진화를 따라 자연 도태로 여성의 참패(慘敗)를 부르짖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낡은 도덕의 인습적 의식으로서 그 모든 불공평 불합리한 가정생활의 그것을 유일한 행복과 지상에 한 안락으로 그대로 시인하려 하였고 오늘까지 맹종하여 왔다. 만일에 아내 된 자가 조금만 남편의 말을 반대하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는 곧 악처이었고 부정녀이었다. 그리하여 『여일(如一日) 종부(從夫)』라는 낡은 문구는 수일사이없이 남자의 입에서 호령으로 화하여 연발되고 마침내 가련한 그의 아내는 일흔의 고리도 없이 허루 아침에 길가에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더욱 장황한 우리의 역사를 말하기에 너무나

한 많은 느낌조차 생겨난다. 위에 말한바 우리의 오늘 처지는 실로 그 역사적 유례가 어디 있으며 그 심각한 원인이 어느 곳에 숨어있는 것인가? 우리가 남자에게 부림을 받는 노예가 되며 노리개가 되며 기계가 되며 오직 그들의 마음가는 대로 사용되는 것은 한껏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옷과 밥을 얻지 못하고 남자에게 붙어사는 기생충이 되어 남마다 먹고 사는 물질의 공급을 오직 그 한 사람의 힘을 비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 경제적 독립을 얻지 못하고 일점의 생활조건을 오직 남의 수중에 맡기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우리 가정부인들에게 특히 이 점을 양해하여 주기를 바라며 해방을 찾고자 하기는 먼저 경제적으로 근본적 해방을 부르짖기를 희망하며 우선 그 길을 찾아서 밭기를 바란다.

<동아일보, 1924년 11월 3일>

▶ 교육과 사회와 신여성

일(一)

교육은 모든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는 것이니 현대 문명의 산모(産母)라고까지 하는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있어야 할 산파(産婆)의 직부는 있는 것이다. 산파적 지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경우와는 다른바 기만하여 사람은 산모라야 자녀를 잉태(孕胎)하는 것이니 사람을 낳는 데에는 산모에게 절대성이 있지만은 교육은 아무리 산파적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 의미의 산파가 아니다. 문화의 산모는 산업이 산업이요, 교육은 그 조산자라고 할지라도 산업이 발달하면 교육의 보급과 향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

니 교육은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배태되어 산출되는 문화의 탄생에 조산자가 될 경우가 많지만 산업을 산출하는 작용도 역연(亦然) 가지고 있는 이만큼 교육은 절대적 의미의 문화의 당파가 아니라 어느 때에는 산업의 산모요, 문화의 산모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니 만큼 교육은 인간생활에 중요한 의의와 지위를 가지나니 일반적으로 보아서 그러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아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의 운위하는 것보다도 교육을 역창하여야 될 방면이 다대한 것으로 미루어 오인은 역연(逆緣) 교육 제 1을 말하여 온 것이다.

이(二)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진화과정에 입각함을 요하는 것이다. 조선의 현재 교육과 같이 항상 그 사회의 진화과정에 적합함을 요하는 것이다. 조선의 현재교육과 같이 보통학교 교육을 태히 일어전문에 대비할 뿐 아니라 일어에 치우치는 근본 방침 위에 수립되어 있는 고로 중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자연과 결함을 가졌나니 이와 같은 교육이 사회의 실재와는 많이 맞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되는 고로 사회자체도 부자연한 파탄 중에 포위되어 혼란이 지극한 후에 이러한 교육이 주는 화는 실로 상상 이상의 화를 끼친다고 할 것이다. 현하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의 풍기상 광망과 참극에도 어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청년 남녀에게서 자주 일어나는 참극의 중대한 동기가 고압적 정치와 그에서 파생된 사회적 암흑(暗黒)이 청년을 절망에 인도하고 그 결과가 각종각색의 비참극을 연출시키는 것이지만은 그 예 가세하는 것이 사회의 실재에 합당하지 아니한 교육의 죄도 적지 아니한 것이다.

삼(三)

이에 신교육을 받은 지식계급의 청년 남녀의 참극 중 이 사회적 결합과 교육의 악영향에 희생된 일례로 불만한 것이 김 모라는 남자와 윤 모라는 여자의 정사사건이다. 정사라는 것도 근래 우리 사회에 적지 아니하게 유행되는 터이니 그 좋지 못한 변태심리로 인한 개인의 행동을 그다지 중요시할 것이었다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대로 간과하여 버릴 수도 있지만 오인은 그들이 상당한 역(力)을 가진 자들이오, 더욱이 그 여자로 말하면 현금 조선의 성악계의 천재로 인정받는 그만큼 현하의 사회와 그 위에 시행되는 교육을 몰괄하여 신교육을 받고 실사회에 나오는 실여자에게 주는 함시는 심각하고 또한 교훈이 적지 아니한 줄 믿는다.

<동아일보, 1926년 8월 5일>

▶ 여자운동선에도 방향전환이 필요 1 (성적해방에서 계급해방으로)

지나간 수천 년의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여자는 노예(奴隸)적 생활을 하여 왔다. 그것은 우리 조선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자들이 다 그러하였던 것이니 옛날 사회적 모든 형평상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필연의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한 천정의 운명은 아니었다. 사회가 변하여 봉건사회가 지나가고 현대사회가 된 후로부터 여자의 성적해방이라는 사실이 불꽃같이 일어나서 남녀평등을 위한 여자의 운동이 세계 각처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주장은 점점 성공하게 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 사실이다.

계급 해방운동 - 그러나 이 운동이 미처 다 성공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성적 노예의 처지에 완전히 해방되기 전에 그 외

에 또 한가지 복잡한 문제가 더 가해지게 되었다. 봉건적 사회가 넘어지고 그들을 이어서 생긴 현대사회는 재산만이 만능의 사회이니 그 결과로서 재산 가진 소수의 사람들과 적수공권(赤手空拳)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화목할 수 없는 세계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하는 소위(所謂) 무산(無産) 계급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자에게도 계급적 해방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두 운동에 분립 - 일반을 말하면 근대 여자 운동은 시간적으로 보아서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먼저 봉건적 구속에서 해방하려는 운동이 있었다고 그 다음에 재산적 실움에 해방하려는 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운동은 조선에 있어서는 뒤죽박죽으로 비빔밥과 같이 섞여져서 일어나게 되었다. 남녀 평등에 대한 여자 운동이 마치 힘있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도 전에 재산적 실움에 대한 운동이 뒤미처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편에는 부력하나마 여자해방을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또 한편으로는 소수로서나마 무산 계급해방을 요구하는 여자 운동이 점점 자라간다. 그리하여 그 각(各) 운동은 서로 편협하게 국한(局限)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특수한(봉건사회제도)가 완전히 개혁되지 못하고 현 사회제도 속에 남아있고 또 현제도 점점 쇠하여 가는) 조선 사회 사정의 소치일 것이다.

두 운동의 관계 - 진실로 여자운동에 대하여 충실하려 할진대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여자의 자유 해방을 얻으려면 과연 대다수 여자가 당하고 있는 재산적 관계를 무시할 수가 있을까? 또 모든 여자를 계급적으로까지 해방하려 하면서 과연 그 성적구속을 그대로 동한시킬 수 있을까? 봉건적 구속 재산적 실움은 다 같이 우리 여자를 결박하고 있는 철사가 아닌가 전자(前者)만을 보고 후자(後者)를 보지 못하는 것도 편협한 관찰(觀察)이요, 후자만을 보고 전자를 보지 못하는 것도 편협한 관찰이다. 봉건적 구속에 대한 싸움은 계급적 해방운동을 위한 일보 전진이요, 계급적 운동은 여자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최후 해결의

길이다. 고로 두 운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1927년 4월 20일>

▶ 여자운동선에도 방향전환이 필요 2 (성적해방에서 계급해방으로)

이와 같이 여자의 성적해방운동과 계급적 해방운동은 그 본질상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상 연결되어야 할 운동이다. 그렇거늘 우리 여성운동의 현재를 보면 이 두 가지 운동이 서로 아무 결연 없이 분리되어 있다. 아니 서로 대립되어 있다. 그리하여 어떠한 경우(境遇) 그것이 물론 계급적 감정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또 의식이 다른 까닭이었지만은 그러나 운동은 편협한 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국한된 이해에만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또 계급의 의식이 있는 것은 당연할지라도 그 의식 본 어디까지든지 과학적이라야 하면 전반적이라야 한다.

통일이 없다.- 그뿐 아니라 무슨 운동을 끊지 말고 그것이 잘 되어가자면 제일 먼저 통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 지도 정신 아래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말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운동이 대립하여 있음으로 여자운동 자체로서의 통일이 없게 되어있는 두 운동 사이가 그러할 뿐 아니라 같은 주의의 운동으로서도 산산이 흩어져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재 여자운동은 도저히 힘있는 활동을 할 수 없이 되어 있다. 동으로 달아나는 자는 동으로, 서로 달아나는 자는 서로, 각자가 무질서하게 운동함으로 운동의 효과도 나지 아니하고 또 운동자의 용기(勇氣)와 정열(情熱)도 감하여 간다.

방향을 전환- 우리가 금후로 진실하게 여성 해방을 위하여 운동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지금까지 운동을 방향 전

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층의 여성운동가가 편협한 심정과 전술을 버리고 여성 전체의 이익과 구경의 길을 위하여 광범한 범위로 확대한 운동 그리고 통일된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광범한 지도정신 변동성 있는 정책으로써 성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비참하고 억울한 처지에 빠져 있는 모든 자매들을 광범하게 조직하여 동원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계급적 해방만을 위하여 싸우는 자매들도 이제부터는 여성의 일반 자유의 획득을 위하여 서로 용감하게 싸워야 할 것이며, 또 성적 해방만을 위하여 싸우는 자매들도 이제부터는 대다수의 자매들이 빠져 있는 경제적 처지에 대하여 분개를 같이하여야 할 것이다.

남성과 제휴- 그것만으로도 오히려 부족하다. 여성만이 여전히 굳게 질속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유력하지 못하여진다. 고로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 남성과 제휴하여 조선인의 일반운동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성을 부자유스럽게 구속하고 있는 현재의 모든 조건은 여성 이외의 일반인을 동시에 구속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에 대항함에는 남녀할 것 없이 전인민이 다 같이 동원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어 있다. 그러고 일반인민이 해방되지 못하는 한에는 우리 여성만이 따로 똑 떨어져서 평화와 자유의 꽃이 만발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리가 만무한 까닭이다.

<동아일보 1927년 4월 21일>

▶ 가정부인의 눈물겨운 평생 (문명 발달했으나 그생은 실패)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문명 세상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점으로써 생각하면 그 말은 물론 헛된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문명한 세상입니다. 전깃불도 켜주고 전차도 운전해 주고 전

보도 쳐주고 기계도 돌려줍니다. 모든 일용품은 공장에서 산더미 같이 제조됩니다. 기차는 천리의 길을 하루에 다니게 하고 비행기는 새와 같이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빨래를 위하여는 세탁소가 발달되었고, 음식 관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스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 무엇 무엇할 것 없이 모두 전대(前代) 사람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질 못할 문명이 발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러나 그 문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일 문명이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로운 노동으로부터 구하여 줄 것이라 하면 그것은 제일 먼저 가정에서 고생하고 있는 가련한 희생자를 즉, 가정부인들을 구하여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가정에서 우마와 같이 과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식을 얻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로 문명은 그들을 과로에서 해방시키고 무지에서 해방시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어찌되었습니까? 현대문명은 과연 우리 가정부인을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현대문명은 가정부인을 구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어떤 점으로 보면 도리어 반대로 더 눈물겹게 하였습니다. 옛날 가정을 생각하여 보면 비록 노동은 많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대개는 평화스러운 가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정부인들에게 무슨 낙(樂)부절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는 평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세상이 온 후로부터는 모든 사람 중 대다수는 세태에 쫓기어 가정상 안정(安定)을 잃게 되었습니다. 집 한칸을 제 마음대로 지니고 있는 것까지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심해져 가는 고생

빈궁의 찌들리고 시달린 남편은 가정에 돌아와서도 얼굴 한번 마

움놓고 피고 따듯한 정담을 바꾸어 주지 아니합니다. 아들과 딸은 배고프니, 옷 해졌으니, 학비 달라느니, 어머니만 존롭니다. 전기등도 값이 좀 밀리면 사정없이 끊어지고, 불한 지계에도 돈 세탁소가 많이 설치되었을지라도 돈 없으니 모든 팔래도 자기의 손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외법도 없어져서 풍속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은 집안 일에 얽매이고 보니 세상과는 맞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갈수록 더하여 갑니다.

부잣집 가정부인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가정부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극소수에 지나지 못하지만은 부잣집 가정부인은 물론 모든 고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 한해서는 문명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빈궁에 대한 걱정 모든 노동으로부터도 해방되고 또 얼마간 지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에는 고상한 책이 쌓여 있고 값비싼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유복한 중에서 한가한 속에서 도리어 타락하여 가는 예가 많습니다. 책 보다가 잠하는 것과 피아노 치다가 하품하는 것은 한가한 가정부인에게서 많이 발휘되는 일입니다.

<동아일보, 1927년 4월 24일>

▶ 가정부인 해방과 모든 일의 사회화

전반에 가정부인의 비참한 현상을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세상에는 많은 문명이 발달되었건만은 그것은 아직 모든 가정부인을 해방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많은 부인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가

정에 얼마나 해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가정부인들을 그 낙(樂) 없고 희망 없고 고역만 많은 가정에서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결코 공상이 아니고 우리의 의무일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해방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제일 먼저 모두가 경제적으로 해방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원인 중 제일 큰 원인이 빈궁한 것에 있으니까 모두가 제일 먼저 빈궁에서 구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만 사람이면 만 사람이다. 만 가정이면 만 가정이다. 같이 유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근본 조건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문제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만두고 그 외에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과 의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사회화

모든 사람이 빈궁에서 해방만 된다면 가정부인의 고역(苦役)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음식에 관한 것 의복(衣服)에 관한 것 자녀 양육(養育)에 관한 것 거처(居處)에 관한 것 그 외에 무엇 무엇이 모든 가정 노동은 결코 단순히 빈궁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차히 너넉할지라도 이를 통해 변동이 없다 하면 가정부인의 고역은 여전할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정부인의 해방을 위해서는 빈궁의 정복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노동(勞動)의 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정복을 위해서는 노동의 사회화(社會化)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면 가정부인을 세탁이라는 노동에서 해방하려면 세탁이라는 노동이 사회화(社會化)하여야 합니다. 장을 담는 노동, 옷을 짓는 노동, 반찬 만드는 노동, 심지어 아이 기르는 노동, 밥짓는 노동까지라도 다 사회화(社會化)하여야 가정부인의 참된 해방이 비로소 가능할 줄 압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사회보다 좀더 진보된 가정노동이 좀더 사회적 노동으로 변화해 있는 판 나라 사회만 비교하여도 사뭇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조건이 점속

그러면 지금 말한 노동의 사회화(社會化)가 가능하다고 물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점점 익어갑니다. 보십시오, 증기세탁은 몇 억만 사람의 옷을 한 가마에서 능히 빨 수 있도록 합니다. 수만 명의 주를 만들어내는 양조회사가 생깁니다. 그 외에도 안 하나까 그렇지 하기만 하면 가정노동은 다 사회적 노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중 식당, 탁아소, 육아소까지 점점 발달하지 않습니까, 문명은 벌써 비상이 발달되었습니다. 발달되어 있는 그 문명이 우리 마음대로 이용될 때 그리하여 우리노동이 사회적으로 화해야 행해질 때 가정부인은 비로소 완전한 해방을 얻을 것입니다.

<동아일보 1927년 4월 26일>

▶ 여성과 사회의식

조선사회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기구한 점이 많은 것만큼 사람 일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일군은 아무 의식 없이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한번 하여 본다는 불확실한 일군 또는 개인생활을 완전히 하고 여가여가에 종하여 보겠다는 일군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가면서 생명까지 바치며 활동하는 활력이 의식을 가진 일군입니다. 이 요구에 응하여 과연 일군은 나왔습니다. 또 급속도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시종 여윌하게 싸우는 여성일군의 수는 남자에 비하여 사뭇 늘은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물론 상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성이 종래로 처하여온 사회적 의지라든지 또는 언제, 교육받는 상대라든지 기타 각종 조건이 많은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적 일에 헌신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조건이 비교적 구비한 개인 개인을 비교하여도 여성 일군이 동일한 조건의 남성의 일군보다 지구력과 용기가 적은 경우가 왕왕히 발현됩니다. 이에 이르러서는 우리로서 개탄(慨嘆)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림에 대하여서도 주의하고 저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것은 대개 사회적 의식이 박약한 까닭이니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적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하고 그 사람은 물론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에 국한되면 그로서는 사회사업에 오래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필연입니다. 고로 사회적 사업에 철저하게 끝끝내 참가하여 사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사회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식이 우리 일반 여성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가지 급무로써 우리 여성에게 진정한 의식을 넣어주는 운동을 일으켜야 할 줄 압니다. 이 의식은 학교 철

관 앞에서 넣어질 것도 아닙니다. 또 단순한 독서로서 넣어질 것도 아닙니다. 사회를 상대로 하여 실제로 싸워 보아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의식향상을 꾀하고자 한다면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서는 대소는 물론하고 무슨 일이든지 구체적으로 잡아가고 그 일에 대하여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와 같이 실제로 행하면서 혹은 연구회로써 혹은 토론회로써 혹은 강연회 연설회로써 또는 출판물로써 분명히 설명하는 모든 이해가 비로소 명백하게 되어 따라서 그것이 사회적 의식을 확고하게 하는 데 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에서 많은 무사가 나지 아니하는 것과 한번 나왔던 일군이 다시 들어가기 쉬운 것과 또 일반 여성의 사회적 의식이 부족한 것은 구체적 행동이 적은 까닭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말전이라는 것은 오직 싸우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철칙이니 조선여성의 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많이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잘못된 일이 결정될 때 다 참지 말고 용감하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동아일보 1927년 11월 27일>

▶ 여성과 사회 1

미운 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상질이다. 그러므로 의복을 곱게 입고 몸을 단아하게 장식하려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정도와 지위를 따라 좋은 의복을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며, 화려한 집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것은 현재생활의 특수한 사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욕심을 채울만한 생활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상 필요한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결국 사치라 할 것이니 의식주(衣食住) 세 가지가 우리의 생활을 과히 추잡케 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위상을 잃지 않게 할 정도이면 그 이상 더 아름다운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과 허영은 그렇지 아니하여 필요 이상의 모든 것을 구하게 되어 떨어놓고 자기네의 생활이 어떠한 정도의 있음을 불구하고 함부로 허영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 근일 조선 사람들의 일반생활은 점점 조잔하여 가면서도 다른 방면으로서 사치가 훨씬 늘어가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넉넉히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생활이 날로 복잡하여 가는 고로 그러한 충동을 받을 기회가 훨씬 많아가는 것이 원인도 되고 또는 소수의 돈꾼이나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극단적 개인주의로 기울어져서 자기 일신을 꾸미어 우월감(優越感)을 스스로 기뻐하는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동아일보 1928년 5월 17일>

▶ 여성과 사치 2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가진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며 또한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를 늘 염두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함부로 화려한 생활을 하여 일반 사람의 사치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따라서 헛되이 사치를 열망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회생활의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모든 것이 빈약한 조선민족은 이러한 점에 특별히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는 일반생활의 발전과 향상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여자는 자녀를 훈육한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가 몸소 행하여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쓸데없이 손가락 하나를 수백 원 수천 원을 들여 장식하고 쪽 하나 지는 데 수십 원 수백 원을 버리털에다가 들이는 것은 국민경제상으로 보아 크게 경계할 일이다. 콩나물죽도 잘 얻어먹지 못하는 경우에 있는 여자가 나들이 할 때 보면 수백 식 수천 식 군의 여자와 같이 꾸미고 다니는 것은 근일 경성에서도 흔히 보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동의 폐해는 물질상 문제에 그칠 뿐 아니라 정신상에 더욱 큰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한 푼꺼리도 없는 이가 밥은 못 먹어두 옷을 잘 입어야 한 손갈 밥이라도 변통할 수 있다는 이 세상 인식이 그 얼마나 부박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생활이 비록 물질만물이라 할지라도 정신상으로 과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 있는 여자들은 사치를 더욱 조심하라. 그대들의 사치는 일반사람의 풍기를 문란케 할 염려가 있는 까닭이다.

<동아일보, 1928년 5월 18일>

여성과 모방 1

서양 어느 사회학자는 우리의 사회라는 것은 모방(模倣)으로 성립되었다 하겠다. 그것으로 사람의 하는 일이 모두 모방이라 할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모방을 함으로써 사회의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방을 한다는 좁은 것이 그 여운이 불유쾌하게 들리지만 반드시 모두 덕인 의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지식의 전부가 모두 경험 아닌 것이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리를 말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모방과 창조 두 가지의 다른 것을 어느 것으로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을 판단하는 데는 무엇이든지 끝난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요, 그 동기가 어떻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는 무엇이든지 처음에 모방할 의사가 없이 한 행동이라도 결과에 가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 것같이 되는 수도 있으며 모방하라는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 어떠한 때에는 전전히 창조의 정신에서 나온 것같이 되는 일도 없지 않다. 결국 보면 창조나 모방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상에서 말한 것은 모든 문화의 본질적의 창조와 모방의 들어가서의 문제이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에 대하여서는 맞지 않고 다만 남을 모방함으로써 일삼는 일부 여성들의 심리에 대하여 두어 마디 말하려 한다.

<동아일보 1928년 5월 19일>

여성과 모방 2

고상한 모방은 창조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독창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상한 모방에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이 이지(理智)의 판단이 없이 감정만으로 함부로 모방을 한다면 필경은 모방으로 남의 조소를 사고 말 것이다. 어떠한 여자가 화려한 의복을 입었다 하여 그것을 바로 모방한다거나 또는 머리를 달리 쪽졌다 하여 그대로 따라간다거나 하는 것은 천박한 모방에 지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외국여성은 어떠한 생활을 하니 우리도 그러한 생활을 하여야 되겠다 하여 무리하게 힘도 당치 않으면서 추종을 하다가는 당하는 것은 파멸뿐일 것이다. 사람은 각기 개성이 있는 동시에 다 각기 자기의 취할 태도가 있을 것이다. 생활할 양식도 따로 있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에는 없는 일이라도 남이 하나까 한다는 것은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서 할 일이 못 되는 것이다. 자기를 극단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주고승(膠柱鼓瑟)로 그다지 완성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자기라는 것은 전혀 잊어버리고 남하는 데로만 따라간다는 것은 근일 여성들의 공통한 결경이라 하겠다.

첫째 외국문화를 수입하는 데에 있어서든지 무슨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서든지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느낌없이 모방을 한 결과 필경 모든 것이 용두사미로 끝을 막아서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 생활의 천박한 모방심은 헛된 유행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니 이지의 판단이 없는 모방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동아일보 1928년 5월 20일>

▶ S. J. 부녀해방운동사 -부인운동의 조류-

‘여자는 남자의 노예라’ 이것은 오래 전부터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지도 이미 오랜 사실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변천도 있었고, 완화와 향상도 있었습니다. 곧 200년 전 보다는 100년 전이, 100년 전보다는 50년 전이 지금 알아보면 훨씬 차이가 있고 진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의 또 외형상의 차이요, 진보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예나 이제나 여전히 ‘여자는 남자의 노예라’적 지위에 있는 것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곧 사회의 모든 일을 다 남자의 손으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자는 밖에 나와서 산업을 개발하고 학술을 연구하고 또 정치적 활동을 하고 교육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는 가정의 지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동안에 여자는 집안에만 있어서 어린애를 낳고 기르고 또 재봉을 하고 요리를 만들고 그래서 남편을 위로하는 절대적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물론 산업개발이나 정치적 활동 학술 연구 같은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자그마한 가정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일반적 상식을 배우지도 못하였습니다. 간혹 100년이나 200백 년에 하나 둘의 뛰어난 재조와 청력과 독립성을 가진 여자가 있

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띄워 있는 역사 안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으리만치 소수밖에 안 되었습니다. 대변에 말하면 과거 현재의 모든 여자는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하였음으로 사회적 사업에 참여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독립성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의 사회는 남자의 전횡하는 사회며 시대라고 합니다.

이리하여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여자와 남자는 선천적으로 곧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차이점과 남자의 우월을 시인하는 학설이 생기고 또 그것을 유지해 가는 사회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도덕적 관념이 생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학설과 도덕을 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자 자신이 남자의 우월을 무의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거의 본능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이 사회에서는 여자에 대하여 그러한 교육을 베풀었으며, 또 오랫동안 내려오는 풍습은 마침내 고유한 의미의 남녀의 직분의 차별을 만들었으며, 또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남녀관계에 대한 도덕적 관념을 사람이라는 진정한 일원의 도덕이 아니라 남자의 도덕여자의 도덕하는 차별이 생기었습니다. 곧 남자는 자기의 우월을 행사하는 도덕적 소유자로 자처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굴종하는 도덕적 의무를 감수합니다. 못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조 문제 같은 것이 좋은 표본이 됩니다. 오늘날까지 정조라는 말을 하면 그것은 외래 여자를 의미하게 되고 남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조라는 문제는 여자에게 한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차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여자의 생명이라, 흔히 이런 말은 특권자인 남자의 입으로 나오면 별로 괴이하게도 안 들리지만 여자 자신이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습고 비참한 일입니다. 만일 정조가 여자의 생명이라면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남자의 생명도 될 것입니다. (정조가 생명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워낙 별문제이지만) 그러하거든 여자에게 한에서만 쓰게 되는 것은 강요된 도덕 관념이 오인정에서 유효되는 도덕 관념이나 의문은 아

됩니다. 그것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남자가 여자에게 대한 정신적 육체적의 독점을 인정하는 데서 생긴 기형적 관념입니다. 곧 육체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의 합리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예적 고향을 해온 까닭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나서는 거의 본능적 감정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정조의 관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 관해서도 그러했습니다. 곧 여자는 지적 불능자라는 것입니다. 실상 역사에 쓰여있는 기록 중에 지적공헌을 한 것은 거의 다 남자입니다. 지금 알아보면 남자의 지각이 발달된 정도와 여자의 그것과는 판이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물학적, 또 생리학상의 선천적 차별은 아닙니다. 곧 몇천 년을 두고 남자 특권의 사회에서 여자에게 대한 지적 교육 노력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발달이 남자에게 비해서 말 못 되리만치 더뎠으며 따라 지적 공헌이 얼마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와 남자의 우월 차별을 짓게 된 것은 선천적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곧 인위적 장애로 말미암아 예측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 구별 이외의 남녀간 차별은 부자연한 데서 생긴 기형적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사회는 발전하는 동안에 여자는 언제든지 그대로 있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대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압제에 대한 굴종을 가만히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으로 생각하던 것이 부자연하게 되고 합리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던 것이 점점 불합리한 것을 깨닫게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쨌어야 사회는 남녀를 이렇게 차별하게 되는가 하는 사회적 원인을 바리라고 그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부인들이 차츰 생기게 되었습니다. 민형의 짐의 노라처럼 먼저 사람으로서의 자각과 독립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인

간적 권리의 획득 운동도 있으며, 따라 그 전에는 발도 못 들여놓던 사회적 사업에 참여하는 운동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곧 참정권 운동 같은 것이 현저한 예의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남자에게 대한 반항운동이며, 남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리를 여자도 가져야겠다는 권리획득 운동입니다.

그런 때 잊지하여 언제부터 무슨 까닭으로 여자는 남자의 노예가 되었나 그 사회적 원인을 잘되기 위하여 나는 다음부터 태고사회의 남녀관계를 차례로 말하고자 합니다.

<신여성 1925년 2월호>

▶ 가정생활개조와 그 실제

(1) 경제란 무엇인가

살림을 잘하고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경제가 이나 아니냐 하는 말이다. 대체로 조선사람은 경제사상이 결핍하다. 「어떤 사람은 살림을 맛깔스럽게 합니다」 하는 말을 나는 종종 듣는다. 살림을 경제적으로 잘해 나간다 하는 사람을 보면 때때로는 구두쇠짓을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경제란 작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결국인즉 헛되이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조선 가정은 헛된 것을 많이 한다. 그렇다! 마음으로는 헛돈을 쓰지 않는다 하나 모르는 결에 습관상 헛된 낭비가 많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말해 보면 조선 사람의 흰 의복이다. 흰 의복이 경제상 가장 불경제가 됨은 다 아는 바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검은 옷을 입지 않고 그대로 흰옷을 입고 지내는가? 두렵다! 습관이란 이같이 무서운 것이다.

가난한 가정은 말할 여지조차 없거니와 돈뿐 있는 집 가정을 들여다보면 극단을 불경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춘추로 새 의복을 장만해야 재킷 있는 다음에야 별반 문제는 되지 않겠다만은 두서너 번 입다가 입지 않고 신식 유행이라 하여 필요치 않은 옷감이나 물품을 장만하는 이들이 부인 가운데 더욱 나이 어린 처녀들에게 매우 많은 모양이다. 이 같은 낭비가 어디 있으랴? 옷이란 춥고 더운 기후에 따라서는 솜옷이나 홑 것의 필요는 생길 망정 일상 필요품인 의복감이 유행거리로 화합이야 실로이 불경제다.

옷 없는 사람은 없어 불편이 생김은 사리에 맞는 일이거니와 옷 많은 불편이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있지 않고 구경거리로 넣어두는 여리석음, 좀이나 안 먹을까, 도적이냐 안 맞을까, 쓸데없는 근심. 이것같이 쓸데없는 일거리도 불편이 생김은 결국 불경제이다. 불편이란 일하는 데서 일어나는 불경제이다. 조선 부인은 시간과 노력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생각이 결핍하다. 경제하면 곧 돈이란 것만 생각하고, 「시간은 죽 돈」이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여하간 경제적 생활을 하려할 때에는 제일 먼저 유행을 좇지 말고 실질을 중요시 여기는 풍성을 길러야 될 줄 안다.

(2) 돈을 값있게 쓰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산 돈을 쓰는 사람과 죽은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다. 죽 돈을 살리어 쓰는 사람은 헛돈 쓰지 않는 사람이며 경제가이다. 쓸데없는 허영이나 일시적 즐거움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으려 하는 사람 여행을 갈 때에도 삼등도 관계치 않거든 이등을 탄다거나 일등을 탄다. 두 번 갈 곳이면 단 한번이라도 호화롭게 잘 하고 갔다 오려 하는 사람은 돈 씀새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만일 이 등탈 돈으로 아이들이나 집안 사람들을 더 데리고 같이 간다든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씹보다도 여인 통락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누려 하는 사람은 돈 씹새 가장 잘하는 산 돈 쓰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남편 없는 틈을 타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푼을 속여 쓰는 부인네들과 같이 매사를 정정당당히 못하는 사람은 대개는 헛돈 씹새를 잘하는 사람이다. 또한 무엇을 살 때에나 남에게 물품을 선사할 때 같은 때일지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며 충분히 생각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돈은 자연 중 산 돈이 될 것이다. 그것을 다만 무의미하게 눈앞에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아무 요량이 아깝지 않게 터럭 쓴다 하면 그는 참으로 의의없고 가치없는 것이다.

돈은 뜻있게 쓸 것, 즉 쓴 것만큼 가치있게 쓸 것 이것이 나날이 명심할 살림살이의 열쇠이다.

(3) 돈뿐 아니라 모든 것이

살림살이 잘하는 사람은 돈씹새만을 말함이 아니라 사물을 잘 처리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돈 씹새가 차근차근 하여 헛없이 씹어 없다 함이 바로 이러 할 것 같으면 물건을 잘 쓰는 것 즉 잘 이용하는 것은 실리라 할 것이다. 가령 말할진대 이불 요가 만일 겨울 것 밖에 없는 가정에서 여름에 겨울 침구를 손님에게 내어 논다 하여 보자 그 얼마나 부끄럽고 주책없이 보이랴?

손앞에 자기 남편은 창피한 꼴을 당할 것이다. 이 때 만일 집안 아낙이 조금만 정신차려 여름 이불은 없을망정 솜이불이라도 관계치 않고 여름 것이나 전베없이 대용할 수도 있을 것이요 그다지 부끄러울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릇이나 머리 치장 같은 것일지라도 때를 좇아 스스로 연구도 하며 개량하고 이용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일이며 자기의 지혜도 느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잠시 넣어두었다가 무엇에든지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 시대와 같이 느릴 느릴 할 수는 없는 때이다. 삼사 년씩 다만 넣어만 두는 것은 잘못이다. 되도록은 이것을 당장에 널리 이용할지며 못 쓸 것이 있거든 무엇에나 다른 데 쓰도록 생각할 것이다. 폐물 이용이란 경제상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진보하여 이식(利殖)의 방법을 생각하여 나가야 될 때인 줄 안다. 조선부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다. 하려고도 아니한다. 적어도 조선 가정의 부업이 가장 필요하다. 현재 우리네 살림살이에는...

어느 부인 친구 한 분이 있었다. 집안이 그다지 부유한 편도 아니요 먹고 겨우 살림한직 한 집안이다. 자기 부친은 가가를 내이고 자기 형은 상점에 근무하여 여러 가구가 생활할 각각 수입이 있어서 어린 동생들은 학교에 넣고 자기도 회사에 다니어 30여 원 수입은 떠나지 않았다. 어떠한 사정 아래에 그는 다니던 곳을 사직하고 가정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일하기를 좋아하는 성질로 또 일하였으려니와 되도록은 지출을 막고 집안 살림을 위하여 자기가 저금한 돈 100여 원으로 누에고치를 사서 생사를 뿔아 제사장에 파는 내적을 하여 지금에는 온 집안 부인들이 협력하여 상당한 수입이 있어 회사에 다닐 때나 조금도 다름없이 집안이 넉넉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부인은 아직 나이 23세밖에 못 된 새 가정의 아낙이다. 한 집안이다. 일 개인이나 필요한 것은 결국 필요한 것이다. 다만 지출을 막아 돈을 안 쓰도록 하는 것을 경계로 말지 말고 동시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조선 부인도 이제는 좀 자기 손으로 수입을 얻어 집안을 돕는데 눈을 떠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산 돈 쓰는 법을 좀 배워야 하겠다.

(4) 만사에 주부가 앞에 서서

모든 가정의 어머니나 부인은 데사에 대하여 집안 사람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집안의 수하의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본이 되길 쉬울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인즉 한 가정의 방종한 풍기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만 믿지 말고 다 각각 하기 쉬운 직업을 선택하여 되도록은 활동하여 그날 그날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안락하게 할 것이요 남편이나 자식이 사회에 나아가서 자유껏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쓰지 않을 수 없다. 다같이 가정의 부인된 책임상 한집안에 안락을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주면 먹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뜯고 이 같은 무지하고 소견없는 짓을 함이 부인의 일이라면 이는 큰 잘못인 줄 안다. 여학교 졸업생이라고 권알만 차리고 자각이 없다면 우리 조선의 장래도 보잘것없이 멀릴 것이다.

영감님들은 비로소 출동을 합니다. 저녁이면 온 거리는 퍽이 적적합니다. 그러면 대체 그네들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재미있게 노나? 한번 알고 싶을 것이다. 그들은 아무 일도 아니합니다. 그들이 온종일 하는 것은 먹고 장난치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것뿐입니다. 영감님 마나님 서방님들은 술 먹고 골패를 합니다. 골패는 국기(國技)라 하여 거리에서 해도 잡지 않습니다. 젊은 아씨들은 먹을 것 - 그 중에도 사탕, 떡 - 을 많이 만들어서 귀여운 아드님 따님들을 먹이며, 들어앉아서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창가를 듣기도 하며 떠들고 팔팔 웃어 가면서 꽤나게 재미있게 놀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아직도 물력설을 펴 중상합니다. 이외에도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제한된 지면이 벌써 넘어서 이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충분하게 끄적거린 것이나 아마 중국 설의 기분을 조금일지라도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신여성 1925년 1월호>

▶ 평론(評論) A. W 생(生), 여학생운동에 대하여

여자들에게도 지식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모든 학과를 가르치는 한편에 그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신체의 완전한 발육을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여자들에게 학식을 넣어주는 한편에는 반드시 적당한 운동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조선의 여자들은 흔히 가정에서나 혹은 사회적으로 도무지 운동이 없으므로 여자들의 신체 발육 상 큰 관계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에도 여학교가 생긴 이후로 소위 체조라는 빈약한 운동시간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근자에 이르러서는 좀더 진보가 되어서 여학교 안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는 것을 군데군데에서 보게 되며 또한 어느 때에는 흰 운동구두를 신은 여학생이 간단하게 운동복을 걸쳐 입고 머리를 흰 리본으로 질끈 동여매고 손에는 라켓을 들고서 길거리로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늘 있는 것은 아니나 혹 어느 때면 눈에 띈다. 그러한 여학생을 길에서 만나고 난 그날 저녁 신문을 보면 어느 여학교와 어느 여학교의 테니스 시합이라든지 전 조선여자농구대회라는 기사를 보게 된다. 그리고부터는 늘 그렇게 차림을 한 여학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 꽤 운동기분이 긴장된다. 그러한 기분 즉 이번에는 내가 승리를 하게 된다든가 이번 운동회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타 가지고 와야 하겠다는 뜨거운 희망이 폭발하는 모양이다. 그의 절실한 실례로는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의 운동선수들에게는 다른 학생 모양으로 학과를 가르치지 않고 남들은 다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수들만은 쓸쓸한 운동장에서 운동연습을 한다. 그러면 말이다. 어느 사람은 물기를 그들이 공부를 전제하고 운동 연습을 해서 자기나 혹 자기 학교에서 우승기를 타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배우지 못한 학과는 어떻

게 알게 되며 또한 시험 때에는 어떻게 패스를 하겠느냐고 물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국자로서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명료하다. 시험 때에 그들에게는 특별히 봐준다. 알든 모르든 진급을 시킨단 말이다. 그것은 그 학교의 명예를 선수들의 노력으로써 얻어오는 까닭이다. 학교가 명예스러운 학생이 많아지면 따라서 학교의 수입이 많아진다. 물론 간단히 수입만을 목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 조건도 자연히 포함하게 된단 말이다. 그러면 자기 학교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학과까지 폐지한 그들에게 학교에서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학교의 명예를 얻어 오는 그 순결한 학생에게는 무엇으로써 학교에서 주냐는 말이다. 그들의 시험지에 쓰는 잘못된 답안만을 눈감아 주고 진급만 시키는 것이 함으로 그 학생에게 주는 차원 보수일까. 아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학생이 장래에 무식할 것은 둘째 문제로 치고 먼저 그 학생은 그 학교 명예를 얻어 오는 데 충실한 노예에 더 지내가지 않는다. 먼저 학부형들이 그들의 여식을 학교에 보낼 때에는 남보다 한자라도 더 알았으면 하고 보낸다. 그러한 것이 학교의 명예를 만들기 위하여 그 기대를 희생한다는 것을 알 것이면 누가 학교에 보낼 사람이 있으랴! 그리고 그러한 명예만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면 그 운동의 목적이 틀리다는 것은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첫째로 그 운동은 한 상품과 같이 되며 그 학생은 그것으로써 타락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렇다. 운동은 운동을 위해서 하며 운동은 쾌락을 위하고 신체의 발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결코 승리만을 위한다든가 혹은 명예만을 위해서 기를 써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에서 쾌락을 얻지 않으면 아니된다. 운동에서 직을 사며 질투를 사며 정투를 사는 것은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전쟁이다.

먼저는 심신을 쾌락케 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운동을 내기해 본다. 그러다가 이기는 이는 즐거운 것이다. 그렇다고 지는 사람이 실망할 것이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원래 운동시합이란 즐거운 장

난이요 승부만을 목적인 것이 아닌 까닭이다. 그러나 학교가 주최자 측에서는 이 승부만을 목적으로 하며 명예만을 목적인다. 그것이 무식한 것이란 말이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에서는 일반학생들에게 체조 가르치듯이 그 운동을 가장 보편적으로 장려할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의 평소의 실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일부러 학과를 전패하지 않아도 넉넉히 운동회가 개최될 것이다. 운동은 적을 이기는 연습전은 아니다. 학교 당국자들이여 운동의 본의를 잘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할 것이다.

(1) 운동선생 선택문제

평시에는 그리 중요시하지 않던 운동을 운동경기 때가 되면 별안간 선수들에게 연습을 혹독하게 시키며 또는 학과까지 전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시에는 특별한 운동선생이 없다가도 이 때에만은 오다가다 급한 대로 아무 사람이나 한 사람을 잡아다가 놓고 운동을 가르치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남녀에게는 별별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더군다나 운동뿐만 좀 한다는 젊은 사나이를 아무런 각오와 책임을 지어주지 않고 그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 학교가 승리만 하게 하여 달라는 요구이다. 그럼으로 소위 운동선생이라는 자가 학생과 부자연한(그는 선생이라는 일을 가지고 학생을 헐뜯하여 유인한다.) 연애와 그 외에도 가진 누추한 행동만이 생기었었다. 운동이나 승리나 명예가 좋다고 하기는 하자 그러나 처녀의 소중한 정조와 바꾸게 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악마의 행사라고 할 것이라. 이러면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처녀정조를 희롱하는 운동이 아닐까? 조선에서 고갯짓하는 모든 교육자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신랄하려는 조선의 어린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밥줄이 끊어질까봐 한 직업으로써만 알고 다니는가?

학부형 재직은 특별히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一. 눈물과 깃옷

어느 날 별안간 일반 여학생(여자들까지도)들의 그 어여쁘던 눈가는 뚝뚝이 부었고 그 땀이 있던 옷이 별안간 보기 싫은 깃옷으로 변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국상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른 때에는 의복에 대한 차별이 심하여서 가난한 집 학생은 더러운 옷을 입고 부잣집 학생은 좋은 옷을 입었는데 이때만은 다 같은 옷을 입었다. 그리고 자기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던 학생까지 목을 놓고 울음을 사담 많은 길바닥에서 운다. 어느 학생의 집에서는 그 학생이 남들은 다 깃옷을 입었는데 나도 깃옷을 입게 해 달라고 야단을 쳤다 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것저것을 몰아가지고 전당국으로 가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해 입혔다 한다. 그 성의는 가늠하다만은 전당까지 지내서 깃옷을 해 입고 그의 충심이 본받을 만하다는 하담만은 부모하고 울고불며 싸우고 깃옷을 입는 것은 순전한 조의를 표한다는 것보다는 깃옷 입는 것을 경쟁하는 것이 된다. 울음을 누가 많이 우나 보자 하는 내기가 되고 만다. “복순이는 울었는데 정희는 울지 않았어 어쩌면 그래 애가-” 이러한 듣기 싫은 소리를 울지 않은 학생에게 들려주게 된다. 그러니깐 누구든지 기를 쓰고 울어본다. 그 외래 중으로는 소학교의 어린 학생을 더욱이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애통하면서 지내간다. 눈물! 울음! 울기는 울어야 한다. 그것은 조선의 신세타령이다. 그러나 잘차로 새로운 조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사람이 실망한 노인 모양으로 울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은 건전하여야 하며 우리의 의지는 튼튼하여야 한다. 더욱이 깃옷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도 성복날이야 입는 법이

태 국상이 나서 조의만을 표하면 그만인데 상복 전년부터 옷을 해 입느라고 큰일을 삼는다는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은 물론이려니와 너무도~~~~하는 것이니 돈 없는 부모를 너무 조르지 않았으면 한다.

이것은 여학생들 뿐만은 아니다. 귀부인, 숙녀, 기생, 창부, 밑배 음... 할 것 없이 깃옷을 입는다 혹 생각을 갖는다 한다. 어떤 여학생은 깃옷 입고 오색이 영롱한 과라술을 받고 간다. 어떤 노인들은 이것을 보고 하도 피이해서 하는 말이 “이런 제길 세상이 망하려니깐 별일이 다 많다”라고 탄식한다. 그러나 세상이 망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세상이 뒤숭숭해서 갈 바를 못 찾아서 그렇다. 의복 입는 것을 한 유행으로 아는 일부 사람들은 상복도 남들이 입으니깐 그것도 유행인 줄 알고 그 유행에 떨어질까봐 그리 예쁠 것이야 무엇인가?

일반 여학생들은 오직 공부에만 착심하며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잘 알아서 장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위해 배진하자. 예수의 말을 가지고 말하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서 장사하게 하며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말도 이런 경우에는 그리 무의미한 말은 아니다. 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은 하자!

<신여성, 1925년 6월호>

▶ 가정생활의 실효적 -아버지와 자녀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는 가정생활문제를 총괄적으로 생각하고 평논하기로 한다면 약간 한 지면을 가지고 약간 한 시간에 이를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중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무미한 것이 또한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글에서 간단히 가정생활의 암호로 생겨져

아 할 한 해석 다시 말하면 한 형태를 추상적이거나 적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함용 양가(良家)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물론 좋은 집안 다시 말을 하면 '이상적 가정'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말이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함용 쓰게 되는 그 경우는 나의 앞은 생각과 해석 일지는 모르지만 보통으로 양가라거나 양가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양가'의 의미는 단순히 경제상 풍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생활이 문화적이고 부자유로운 데가 없으며 자녀의 교양도 좋은 대로 시킬 수가 있으며 그 가정에 대하여 세상에서의 비난도 없고-하면 소위 '양가'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하면 - 나는 거기에 대하여서 조금이나마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한 실업가(實業家)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사람은 실업계의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의 생활은 풍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실업계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인격자요 품행이 방정한 사람입니다. 그 자녀들도 공부도 잘 하고 인물로도 훌륭한 청년이요, 또 훌륭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만으로 정녕코 한 좋은 가정이요 또 소위 그 '양가'라고 할 것이겠습니까만은 이것은 단지 그 범위만의 좋은 것만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다볼 한 좋은 가정-즉 새로운 가정생활의 이상화는 스타일을 암시시키는 아무 것도 못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범위에서 좋은 분일지는 모릅니다. 또 자녀들도 자녀들만의 범위에서 좋은 자녀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좋은 것의 단편들이 모여서 형성된 한 모자이크에 불과할 뿐이요, 거기에는 전제로서의 융합된 생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세계에서의 도덕자요 아들은 아들의 세계에서의 도덕자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세계의 도덕관과 아들의 세계의 도덕관과는 반드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사이에 교류적 이해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상식적으로 또

는 외부적으로 좋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참으로 좋은 가정(양가)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되는 이가 아버지의 세상에서의 소위 모범될 생활을 하여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아들의 세상의 사상 감정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는 실질상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된 이로서는 아들의 시대와 그 감정과 사상 취미들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면 안 될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자기의 젊었을 때의 좋은 일이었다고 하여 그것을 그 나이의 자니에게 생활 표준을 만들어 강제시킨다 하면 - 그것은 뜻밖에 실패밖에 더 없을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실패- 아니 평화한 가정의 비극을 너무나 지나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양가'라는 데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앞날의 새 가정생활 형태는 아버지의 세상과 아들의 세상과의 교류적 이해를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외적 조건보다도 이 조건이 좋은 가정을 위해서 가장 긴요한 인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또한 가정을 시험합니다. 여기 지극히 선량하고 전력을 다하여 아들을 사랑하는 과묵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청년. 그 역시 또 대단히 선량하고 착실한 근면가요, 또 효심이 지극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사이를 볼 때에 그 속에 풀여지지 못하는 얼음장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이 마음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만일이라도 그릇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모성애의 발로겠지요. 그리하여 혹시 잘못이나 있지 않은가 몰래 그의 일기책을 뒤져 읽습니다. 가다가 여자 동무에게서 오는 편지도 뜯어 봅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심려에서 임니다만은 그것이 그 아들에게는 지극한 우울을 작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어머니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도 충명과 이

직로써 옳게 컨트롤하여 틀림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을시다. 그러한 그에게 지나친 모성애는 그의 셀프·컨트롤을 억제시키는 사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둘이 모두 좋고 옳은 사람이면서도 그 좋은 두 개가 서로 합하여서는 결국 좋지 못한 반감지 않은 상호 불만족을 현출시키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한 비극이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이러한 예를 향간에서 많이 보는 것입니다. 표면에 보이는 조건 또는 그 범위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새로운 가정 생활의 아름다운 형태는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이는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어느 점으로는 어느 시기부터는 아들(자녀)을 아들로만 생각하는 이외에 아들을 한 독립인으로서 존중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한 동안 또 교양의 도중에 있는 동안 아버이는 그것을 지지시키는 부양의 의무는 지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 의무 때문에 그 외의 독립인으로서의 아들의 존중을 없이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두 번째 예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법상 규정에 친권이라든가 부양의 의무라든가 하는 것이 엄연히 냉담하게 적혀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서도 현재에는 새로운 시대적 해석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버이는 아버지라고 하여 그리고 친권을 가졌다고 하여 친권의 남용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괴로운 것입니다.

이지와 이해를 가진 아버이는 결코 친권의 남용을 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흔히 “에비 말에 말대답을 하고 이 자식” 한다면 “에비 말을 거역하고~”하는 주위 격노를 내뿜는 아버지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할 점입니다. 아버지 되는 이가 아들의 시대의 사상 감정 생각을 조금도 이해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만을 절대 옳은 것으로 믿고 친권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아들을 덮어 누르는 경우- 이것이야말로 어디 호소할 데 없는 억압이요 폭압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진 가정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공기 속에 있는 가정을 나는 결코 '양가'라고 불러지지 않습니다.

아들(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천하에 명성을 떨친다거나 거만의 재물을 쌓는다거나 하는 것보다도 자녀에게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이해가 없고 혹은 돌보지 않기까지 되어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성이라거나 거만의 재물은 너무나도 공허한 것이겠습니까. 이해와 자유와 공평과 진자 간의 융합적 행동 그리고 거기에 쾌활과 명량성만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앞날의 이상적 가정-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사이에 사상 감정 성질 견심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가정권이라거나 친권이라거나 혹은 부양의 의무라거나 하는 따위의 형식적으로 굳어진 딱딱하고 찬 관념을 한 개도 갖지 않은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 생활의 한 이상이 싹터 나갈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에 소식들 중에서 이러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부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댄스홀에 가서 춤을 같이 추고 같이 돌아다닌다던가 또는 매달 가정에서 예산회의를 세워 가지고 한집안의 생활을 짜 나가고 있다거나 아버지는 아들의 흠을 아들은 아버지의 흠을 서로 잡지에다 허물없이 발표한다거나 하는 따위의 소식이 줄이어서 들립니다.

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조선에 너무나 딱딱하고 따스한 맛이 적고 찬 간격이 숨어져 있는 가정을 돌이켜보고 한번 다시 더 가정생활의 새로운 아름다움 천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결론 - 그것은 형식적 모든 관념을 내던지고 서로 교류적 이해 아래에서 생활하는 거기에 새 천지는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여성, 1934년 1월>

▶ 안광호(安光浩), 조선여성의 당면문제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여전에는 “행복한 가정의 부인!”이란 것이 여자들의 움직일 수 없는 이상이였다. 그러나 여자 되시는 여러분! 그 시대는 어느덧 지나가 버리지 않았는가? 지금의 많은 여자들은 그러한 이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사랑이 없는 결혼과 그 결혼 생활! 온갖 의미로 구속을 받는 결혼 생활!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부인의 불안과 불만과 반항은 그 가운데 어느덧 여러분에게 어떠한 새로운 의식을 눈뜨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 개인의 의미없는 회의와 초민 가운데 번민하고 있는 것과 달라 확연히 지금까지의 부인 생활에 대한 새로운 생활에서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온갖 의미의 사회 생활의 힘이 부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부인되는 여러분 가운데는 다소의 재산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줄 아는가? 대부분의 부인의 생활은 차차로 심해지는 생활의 불안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 몇만의 젊은 여성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도 가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으며 몇 십만의 부인들이 가정의 전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식들의 전도를 생각하고 속을 썩히고 있다.

그리하여 부인들은 가정을 버리고 직업을 찾아서 공장과 회사로 가지 않으면 아니되게 된다. 그러나 부인들이 자기의 노동을 팔러 가는 그 직장은 벌써 노동의 직장이 아니고 착취의 지옥인 것이다. 부인들은 사내들과 같이 아니 사내들보다 한층 더 심하게 자본의 착취에 신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리하여 결국 지금의 조선 부인들은 가정 속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두 겹의 노예생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조선 부인들은 아직도 가정적으로는 봉건시대 그대로의 가정 노예가 되어 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자주국이 못 되고 또는 부르주아

운동 같은 것도 조선에는 없었던 까닭에 선거권이나 참정권이니 하는 것들은 입 밖에도 내어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정의 살림살이에 있어서도 조선부인은 대부분은 아직 옛날 그대로 봉건적 가정 노예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의 조선부인이라는 것은 권리도 교양도 없는 못난 부인으로써 그들이 살고 있는 길은 오직 한 남자의 아내로써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가정에 구속을 받고 있는 것밖에 아무 할 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 말하면 살기 위한 결혼과 결혼 생활이다. -사람도 이해도 없는 결혼생활! 남편의 무지한 지배 아래서 사는 가정 노예! 그것이 현재까지도 조선부인의 가정생활이라는 것이다.

남편은 사람이 있건 없건 부인이 무 권리 무 교양한 까닭에 반드시 아내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등의 남녀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인은 어머니가 되게 되는 때에는 한층 더 가정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 관계로 보나 정조 관계로 보나 남성이 아무리 횡폭하게 굴다 하여도 부인은 조그마한 반항 하나 못 하고 그저 가정의 죽은 시체로 일생을 지내가지 않으면 아니된다.

부인은 흔히 주부라고 불려진다. 그러나 그 주부의 하는 일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면 빗자루와 걸레를 갖고 방안을 쓸어내며 닦는 것 솜과 부엌일과 세탁 일이나 날을 세우는 생활! 그러한 뒤떨어진 건조무미한 주부의 일에 그의 정력을 없애며 부인의 개성을 압박하여 부인을 완전한 가정노예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 되는 여러분! 지금의 조선 부인들은 이상과 같이 다만 가정의 노예로써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자본가라는 주인의 직업 노예로써 공장과 회사의 일로써 그들의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여러분의 가정은 말할 수 없는 빈곤 가운데 놓여 있는 까닭에 부인들 자신도 역시 직업을 찾아서 직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 부인 되는 수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자본가들의 지배 아래서 착취를 받고

있는 것이다.

보라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동무들이 제사 공장의 고무공장의 노예회사의 그리고 벨트와 타이프라이터와 카운터의 앞에 고생하는 그들 그밖에도 석탄과 모래를 나르는 그들 여관과 카페와 전차와 버스에서 일하는 그들은 하루에 10시간 그리고 12시간 14시간까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조건으로 받는 삯전은 남자의 것의 반분도 못 된다. 사실 여사무원이나 여점원이나 타이피스트나 간호부들이 받는 삯전이란 것은 많아야 겨우 5, 60전을 넘지 못하며 적은 이는 2, 30전에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노동을 하고 결국 생활보장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부인들은 지금도 부인의 경제 독립이라는 것을 꿈꾸고 있을지 모른다.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하면 자기 손으로 온갖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염없는 희망! 그러나! 여러분은 자본가 계급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한도에는 여러분의 경제독립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보라 경제독립은 둘째로 하고 아무 알날의 희망도 없이 까만 쥐가 되어서 노동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그보다도 한층 심한 노동을 하고 있는 수십만의 농촌여성이 농촌에 있지 아니한가! 농촌여성! 그들은 자본가라는 것과 비슷한 지주계급한테서 한층 더 심한 착취를 여지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도 노동 시간이고 무엇이고 없이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언제나 전횡무정이가 되어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 여기에 대하여! 부인되는 여러분은 눈을 뜰이 있어야 한다! 온갖 근로하는 부인들은 여러분의 땀과 기름을 갖고서 온갖 가치있는 것을 창조해내고 있다 여러분의 노동이 없이는 여러분의 땀과 기름의 결정 없이는 그 풀난 자본가들은 하루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근로하는 부인들의 노동은 이사회 전체의 훌륭한 모든 생활의 반분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유스러운 그리고 독립한 남자들과 대등한 사람으로 이사회와 노동의 보수를 받으면 항락하지 못한다. 그러한 항락을 못하는 대신에 오직 비참한 노예로써 다만 죽을 노동만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몇만 명은 그 지독한 노동 때문에 병신이 되고 무서운 속병이 되어서 가엾은 생명을 빼앗겨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그 노동 때문에 유산을 하며 약한 자식 병신의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것이다. -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운명! 이 운명에 지금 몇 십만의 동료들이 울고 있는 것일까?

그것만이 아니다! 근로하는 부인들은 실업과 임금감하(賃金減下) 때문에 취직난에 폭풍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1, 20년 사이에 몇만의 가까운 여공과 직업부인들이 직업을 잃고 가두에 방황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근로하는 부인들을 부러먹은 자본가라는 주인은 그들의 노에 근로 부인들에게 임금과 봉급을 감하시킬 따름이 아니라 그들은 부인 노동자에게 최후로 직업까지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다만 부인들에게서 일과 직업을 빼앗을 뿐 아니라 부인들이 남편과 아버지와 오빠의 일자리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인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실업한 부형과 남편을 위하여 차차로 더 노동을 쉼지 않으면 아니되게 사정이 급박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수많은 부인들이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수많은 부인 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가정 노예로써 그리고 다시 임금의 노예로써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과 같은 그러한 사회사정에 그대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하여 무엇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나는 여러 가지 긴말을 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다만 말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은 오늘날의 이 노예 상태

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투쟁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여성, 1932년 8월호>

▶ 조선여성이 항할 길 -특히 신여성들에게 말하여 일꾼여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여름이 이미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이 돌아오니 돈 많은 여자로써 신세 편한 여자로써 불분듯 뒹던 여름철에 교외를 떠나 신선한 피서지로 갔던 이도 이제는 행장을 꾸어가지고 돌아오는 모양이다. 그들의 열은 바는 무엇이며 느낀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또한 무엇인가?

평소에 그네들이 하는 바를 보면 팔자가 늘어진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알아 땀뚱하게 차리고 나서는 모양은 기생이 아니면 귀신 같은 인형이다. 손에는 은반지, 금반지, 보석반지 장롱 안에는 이름 모르는 노리개가 가득히 쌓여있고 비단 옷이 수없이 열 벌 스무 벌 층계층계 쌓아 둔 것이 절간의 탑(塔) 모양같이 가지로 있고 이불도 오색으로 반상기도 온금으로 음식도 팔진미(八珍味) 갖추어서 열 가지 스무 가지의 이만치 호강으로 사는 유산자의 부인들은 무엇을 바랄 것이냐 하는 것은 낮잠자기와 얼굴에 분바르기, 몸에 향수 바르기 이것이 유산부인에게 큰 사업일 것이다 그래도 무엇이 부족하여 신선한 바람을 찾고 한가한 절을 찾아가며, 해수욕장을 찾아가는 유산부인들이야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을 가진 사람이다. 유산자 부인이야 그 눈에는, 험뻗은 여자와 못 사는 여자를 볼 때에 반드시 반말하기에 박대하는 악독이야 참으로 가증할 유산부인들이다. 이러한 계급의 세상을 무질없이 저주할 것도 없다. 저 농촌의

부인들이 일을 부지런히 하고 들에서도 호미를 들고 땅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이렇게 일하고 농사를 지어도 입에 밥일 들어갈 것이 없으며 두 손이 닳도록 호미질을 하여도 몸에 옷 한가지를 못 입는다. 여자 직공들은 밥벌이하기에 잠시도 놀 수가 없으나 무산자의 여자는 밥짓고 물길으며 살림하기에 그러나 지금 소위 보통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여자를 신여성이라 하여 지식 가진 여자라 하며 조선 여자의 지도자라 하며 조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하며, 여자 해방에도 여자운동에도 이 여자들이 일할 사람이라고 한다. 조선 여자는 책임이 크고 일할 것이 많고, 싸울 것이며 분투할 것이 이만치 크다는 반면에는 다시금 말할 수 없는 타락에서 노예의 생활을 맡게 하고, 금수의 행동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죄가 여자의 자신에 있는 큰 죄가 아닌가! 요마직 여자들은 말하기에 여자 해방이니 사회운동이니 유성기처럼 떠들고 하지만은 남는 효과가 없고 아름다운 수확이 없는 것은 여자 그 자신이 이와 같이 남에게 의지하기 좋아하고 놀고 먹고 편안히 살기 위하여 남자의 손에서 희롱받기에 자기의 생명을 받치는 비겁(卑怯) 성인 여자라 하여 특히 조선 여자에게 모든 현상을 갈피 뒤집어 보면 그네들의 하는 행동은 참으로 밉다는 것보다도 여자 그 자신으로는 몹시도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다. 조선 여자에게 신여성을 대표한 여학생들의 선후배인 여성은 지금 조선 여자에게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며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시골에서 보통학교를 마치고 친정을 떨어져 시집가는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는 외국으로 공부 더 가는 여자도 있고, 보통학교 선생으로 나아가는 여자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시집가는 여자가 다수에 있다. 매년 봄에 여자들이 학교를 마치는 그때에 그네들의 앞길을 살펴보면 공부 못 가서 우는 여자 시집가기 싫어 우는 여자, 학교를 마치고 나니 좋아서 우는 여자,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부모의 강제로 부잣집으로 팔려가는 것이 시골 여학생의 출신이며 서울 여학생은 돈 많은 부랑자에게 유혹되기가 까다하기가 쉬운 것이며, 몸 팔아서 공부 가는 여

작 몸 팔기 위하여 기생이 되는 여자 돈 많은 놈에게 첩으로 가는 여자, 돈 많은 외국사람에게 시집가는 여자 이것이 소위 신여자들이 하는 일이고, 몸담아 둔 곳이다. 그래도 현대의 조금이라도 각성을 하였다 하는 여자들이 더구나 조선 여자의 선봉이 될 대장들이 이와 같이 돈에 몸이 팔려서 또는 허영에 날뛰어서 부질없이 방황하는 그대들아! 그리고 신여자들은 피아노에 회사시켜라, 비단옷에 보석반지 이것을 찾아 정신이 없는 조선 신여자들아! 조선 여자의 장래를 어찌하느냐! 모두 다 놀고 먹고 놀고 입고자 하니 누가 일하고 옷감을 짜느냐 첩되고 부잣집 마나님되고 기생되고 부랑자된 그대들 몸에 비단이며 먹는 밥이 어찌 되는 것을 짐작이나 하느냐? 조선 여자 또는 신여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나 다수는 이러한 악마 굴에 유혹되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조선여자는 서양여자 일본여자 지나 여자의 현대식 허영에 따라가지 않고 실천적으로 내손으로 내발로 노동하여 농하도 하고 나무도 하고 옷감도 하고 옷도 짓고 농촌으로 가서 일꾼이 되자 또는 기차도 전차도 운전하고 사회에 나서 운동도 하고 사무도 보고 학교에 가서 선생도 되고 정치도 문학도 실업도 여자의 손으로 만들고 여자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나는 조선여자가 남자에게 무엇이든지 질 것이 없이 모조리 하면, 남자에게 그리 의외할 것도 없고 여자해방도 여자운동도 여자 인격도 자연히 여자의 손으로 해결될 것이다 여자들은 놀고 먹고자 놀고 입고자 남자 코밑에서 알랑거리고 고양이 앞에 쥐 모양으로 남자 압제를 받는 그대들의 자승자박이야 워라서 구제할 것인가! 만일 각오가 없고 분투가 없다면 아무리 공부할 하여도 남존여비를 공격하여도 아무 소득이 없고 도리어 큰 해가 여자에게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나는 어느 여선생을 방문하고 이러한 말을 들었다.

“우리 여자가 공부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고 매양 남자에게 압제와 옷짓고 밥짓는 종이 되니 여자는 공부하여도 헛공부라고 한다.” 또 어느 때 어느 여자 고등 보통학교생도를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여자가 공부하는 것이 다른 목적은 없고 오직 시집 잘 가기에 있는 공부다. 그것은 공부 못한 여자는 상당한 남자에게 시집갈 수 없고 설사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을 당할 것이니 이것이 큰 문제이니 우리 여자는 공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자 많이 기르는 부모를 방문하여 여자의 장래를 어찌 지시하는가를 물은즉, 대답이 매우 재미가 있다. “못난 여자는 못난 여자에게 주고, 잘난 여자는 잘난 남자에게 줄 것이나 내가 돈없는 사람인즉 아무쪼록 부잣집을 찾아 딸은 주어야 자식도 잘 살고 나도 그 덕에 잘 살 것이 아닌가요? 아는 바이지만은 내 딸 하나는 금년 봄에 고등 보통학교를 마치고 나서 어느 부잣집에 갔는데 매우 잘사는 모양이고 남편의 나이가 좀 많은 것이 유감이나 부잣집이면 그만이지” 한다. 이것이 한 여선생과, 한 학생과, 한 부모만 그리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여자나 부모 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하고 아직 전 사회가 악습에 젖어 있으니 이것을 파괴하고 개혁하자면 남자에게 있는가? 곧 자기가 실천할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자가 분부하고 자각할 것이고 제례에 악한 것을 버리고 새 사상 새 정신을 가져야 한다. 자유를 찾고 생명을 가질 자기의 근본적 평등을 부르코자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모든 여자가 비단옷을 벗어버리고 분과 항수 값을 버리고 두 손을 쥐고 공장에 가서 기계 돌리고 일하여 농촌에 가서 농사짓고 김삼 하고 옷짓고 글 가르치고 아이 기르고 남편 사랑하고 밥짓고 일하여 부지런히 날뛰어야 한다. 적어도 조선의 장래 민족을 여자들이 나서서 제 이 국민을 양상할 것이고 우리 조선의 생명을 이어줄 여자들이 어찌도 그리 천박한가. 참으로 애달픈 일인가 한다. 만일 지금 현상으로 여자가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공부한다든지 부잣집을 찾기 위하여 공부한다든지 놀고 먹고 놀고 입기 위해 공부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전개된다면 조선 여자에게는 다 못 남자에게 한 종려자가 되고 조선의 장래 민족이 종의 자식으로 하여 그 마음까지 유전한다. 이것이 큰 해독이 아니고 무엇일까? 여학생으로 반드시 공부 마치고는

농촌으로 가서 호미지고 밭배라 공장에 가서 기계를 돌리라 학교에 나가서 선생이 되어라 이것은 학생된 여자가 아니면 농촌에 가지 못하고 공장에 가지 못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다. 자식이 있는 남자나 여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일하여야 하며 놀지 말고 부지런히 손발을 늘려라. 놀고 먹고 분 바르고 기름 바르고 남의 힘에 거처먹기 남자에게 붙어서 사는 여자를 이것을 중 여자라 하면 기생충과 흡혈귀라 한다. 옛날의 여자들은 이러한 사업을 세상의 세우고 사람다운 인격을 가졌나니 이것을 소개하여 조선의 신여자에게 참고가 될까 하여서 부업인을 소개하여 준다.

불란서 혁명과 로란 부인이라면 불란서 혁명 무대 위에 올라가서 성실 근면한 용기와 해민리상의 지식을 두 손으로 땀내서 당대 불란서 사회를 흔들던 로란 부인 그 가슴은 지금 행복하더라도 용감한 그 뜻을 알 것이다. 로란 부인은 일찍이 셉티피엘과 함께 자연 숭배자가 되고 루소와 함께 주관적인 사상가가 되고 뿔타를 읽고서는 희랍과 로마의 공화정체에 그 마음은 흡족히 취하였고 영국의 헌법을 배우고 또 대서양 저편에서 일어난 북미연방의 발달하여 가는 것을 주목하고서는 그 당시 불란서의 공화정체의 자유 평등주의 법으로써 수천 수만의 청년으로 불란서 혁명을 일으킨 것은 역사상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다 로란 부인은 혁명 그것이 정부에 발각되어 마침내 사형의 선고를 내렸으니, 1773년 11월 9일에 로란 부인의 생명은 단두대 위에서 사라졌다. 로란 부인이 감옥으로 갈 때 그 딸에게 보낸 글이 있으니 “너는 아무쪼록 양친의 자식됨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라 양친은 너에게 모범을 보인다. 내가 만일 이 모범을 배워서 유익할 것이 있으면 너의 일생도 무용의 생활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였다.

로국 여걸 노뵈코루 부인이라면 영국 용장 포셋 부인이라면 독일 비스마르크 부인이라면 불란서 영웅 아담 부인이라면 불란서 여걸 스틸 여사라면 미국 사회 개량과 월닛드 여사라면 불란서 여류사회 주인이자 셉 여사라면 불란서 용녀 잔다르크 여사라면, 잔다르크를

위하여 지은 시가 있으나 이것을 보아도 그 여자의 무용은 능히 알
것이다.

오를레앙의 천사여!!
당신이 고향을 떠나실 때에
당신에 가슴에는 하나님의 힘
그 힘이 불같이 온몸에 퍼지며
당신의 전장에 가게하지요!?
나팔소리! 고향소리!
아! 이 웅장한 소리속에
당신이 영활한 추억이
불란서 천지에 빛나려 합니다.

이러한 시가 있으나 과연 잔다르크의 구국의 마음을 알 것이다.
옛날의 여자들과 오명한 나라의 여자들은 이만치 분부가 있고 용
감이 나게 민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여 늙지 아니하고 일한 그네
들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자취를 밟아보며 그 만치 큰
사업을 본받아 볼 것인가? 우리 조선여자로 옛날에는 있었을 것이
지만은 이마직 하야는 조선 여자계가 너무도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손발을 내놓아 일하는 여자가 있는가? 사회운동자라고
어느 여잔가? 여류학자로 어느 여자? 문학가로 현모양처로 교육가
로 어느 여자인가? 1,000만 여자로써 한 사람도 없다 하면 이것이
여자에게 큰 수치가 아니며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닌
가? 나는 이 앞으로 좋은 일꾼 여자가 많이 나오고 문학과 연구가
정치가, 교육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 전에 잘못된 것을 각오
하여 장래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도록 나는 이것을 바란다.

<신동아, 1926년 8월호>

▶ 김은경, 부인운동과 인격문제

사건(事件)의 성립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곧 공간(장소), 시간, 및 인격이 그것이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흠결(欠缺)되코는 사실은 성립되기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한대 공간은 무한이요, 시간은 영원이어서 변함도 없고 차이도 없이 상하 역원만인에게 일양(一樣)으로 제공되지만은 인격은 사람마다 수양여부에 따라 또는 환경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고로 동일한 공간과 시간을 차지하고도 그 성취된 결과의 사업이 혹은 평장, 위대도 하거니와 혹은 미약, 졸렬도 한 것은 순전히 그 인격여하에 기인되는 것이다.

그러한 즉 부인운동도 유명술이 아니요, 사업인 이상에는 그 원만 해결의 성취여부와 그 성취의 위대, 졸렬은 물론 인격에 인하여 좌우되고 판단될 것이다. 그러한 고로 이것은 필자(筆者)의 항상(恒常) 말하는 것이지만은 본편을 완결(完結)함에 임하여도 다시 또 한번 더 인격 제일주의를 고창(高唱)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그 중추(中樞) 인격이 상당한 인격자가 아니면 무슨 운동, 무슨 사업임을 물론하고 성공은 고사하고 방손할 것이며 건설은 고사하고 파괴할 것이며 유익을 끼치기는 고사하고 해독을 전파(傳播)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만 그리되고 말 것이 아니요, 후진(後進) 사업가에게까지 의아(疑語), 주저, 약감(憂感)을 가지게 함으로 전도(前途)를 방해(妨害)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불실한 인격의 소유자는 사회에 출입하여 아무 성산(成算)없이 반동(變動)하는 것이 방해와 손실(損失)을 주는 것인즉 「임연신어(臨淵羨魚)는 부여퇴이결망(不如退而結網)이라」 하는 고어같이 사업성취를 허망(虛妄)함보다 인격수양이 급선무(急先務)다. 그러하면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인격은 관찰방면을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겠지만 초인격적 신이나 비인격적 자연물에서 구별하여 널 만한 사람의 특질을 이룸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은 곧 사람의 사람된 소이 자격(資格)이다. 여기에서 인격

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으나 너무 탈선(脫線)되어 전문적 의미로 들어가는 혐의(嫌疑)가 있음으로 이는 다른 기회(機會)로 비우고 성약하거나와 이 인격은 수양을 따라 운니(雲泥)의 차가 생기도록 향상(向上)할 수 있고 발달(發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사람' 곧 '완전(完全)한 인격(人格)'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으로 교육법이 생기게 되고 수양법이 생기게 되어서 그 결과로 오늘날 허다 사업이 있게 된 것이다. 이 고상(高尚)한 인격자들의 공헌한 사업의 총화(總和)를 우리는 문명 혹은 문화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한 고로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를 많이 가진 사회는 문명하고 행복되되 불연(不然)한 사회는 낙오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이란 것은 이 목적을 유린(蹂躪)하고 천부기능과 인격이 모든 속성(屬性)에 배치(背馳)되는 그 무엇을 억제(抑制)로 만들려함은 유감(遺憾)되는 일이고 한심(寒心)할 것이요, 한탄할 것이요, 눈물날 일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무슨 기계(機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죄악이다. 오늘날에 인도자 될만한 인격, 대표자(代表者)될만한 인격, 중추(中樞)될만한 인격, 모범(模範)될만한 인격, 즉 고상(高尚)한 인격의 소유자가 극귀(極貴)함은 여기에 기인됨이 크다 생각합니다. 작은 화분에는 섬약(纖弱)한 일년 초(草)나 배양(培養)하였지 땡천(撐天)의 거대한 수목(樹木)은 도저(到底)히 배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종자를 화분에 심는다 하여도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무슨 형기(刑器)에 달아서 주조(鑄造)하여 내고 무슨 판(版)에 실어서 박아내려고 함과 같은 교육으로는 위대한 인격은 도저히 양성하여 내기 불가능한 것이다. 말이 너무 기로(岐路)에 달아나니 그만두거나와 부인운동은 그것을 진행(進行)하기에 진력(盡力)하기 전에 먼저 그 운동자의 인격이 여하(如何)한가를 검사(檢査)도 하고 반성(反省)도 하여 그것을 진행하기에 가능한 인격, 그것을 성공하기에 적합(適合)한 인격을 만들기에 진력할 것이다. 말로만 일하지 말고 '외상(外上)'으로 일하지 마시다.

마지막으로 쉰레이씨의 오덕(五德)을 소개(紹介)하고 각필(閱筆)하려 합니다. 그의 인간 오덕이란 것은 절제(節制), 용기(勇氣), 예지(睿知), 공정(公正), 박애(博愛)가 그것이다. 쉰레이씨는 덕을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나누고 또 개인적 덕을 자기 통어(統御)의 덕과 자기 치(治)로 나누고, 사회적 덕을 타인의 권리존중과 타인의 결핍(缺乏)으로 나누고 종교적 덕은 신에 대한 공경과 겸허로 나누어 말하였다. 이것을 더 자세히 표해(表解)로 보이면 이러하다.

민의 개인적 덕이란 것은 고등(高等)한 성능(性能)으로써 열등한 성능을 적당히 통어하며 조직(組織)을 세우는 일과 이 조화있는 인격의 수양 혹은 발전과의 이자(二者)를 표(表)함에 족한 우수한 품성을 이룸이요, 사회적 덕이란 것은 타인과 조화(調和)하여 생활하는 개인을 포함에 족한 우수한 품성을 이룸이다. 동서양 논리학자 중에 덕을 말함이 고금(古今)에 허다(許多)하되 간단하고도 인간생활의 전체를 포괄(包括)할 만한 강령을 띤 것은 이것이다. 여러분은 지식과 기능(技能)을 반드시 가진 인격자가 되시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고상한 인격이라고는 못할 것이다. 그 외에 반드시 이런 덕을 가진 인격자가 되시오 이것이 만사성취의 근본적 토대(土臺)라 생각합니다.(1924, 8. 18. 인왕산하에서)

<신여성, 1924년 12월호>

▶ 문향식, 1931년의 여성운동과 금후전망

1. 1931년은 조선운동의 일대전환기였다고 볼 수 있다. 1936년에 무산계급운동의 방향을 전환하여 협동전선을 꾸미느니 민족적 공동분쟁을 하느니 하는 일정의 단계는 1931년인 금년에 와서 계급적 독자성을 강화시키느니 신간회나 근우회를 해소시키느니 하여 다

시 조선운동을 새로운 길로 썬내려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선여성의 운동도 이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살려 나가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근우회가 사라지는 것을 보더라도 조선여성운동은 아주 힘없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근우회 그것이 사라진다고 하여 이러한 의견을 부치는 것은 너무도 천박한 식견과 좁은 시각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사람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얼른 생각하면 그럴 법도 한 일이다. 조선여성의 유일한 지도적 기관처럼 당당히 서 있던 근우회가 두세 번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려 하여도 인원이 부족하여 법적 회합이 성립되지 못 하여서 유회가 되고 마는 것만을 보면 이런 주장을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여성운동의 중심세력은 원래 근우회 같은 소부르 여성들이 지도적 지위에 처하여 있는 데로 뒤흔 수 없는 역사적 사정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성운동을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조선의 사회계급세력문의 변화는 계급적 분열을 확연히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여성의 모든 요구를 참으로 해소해 줄 사람은 노동자요 농민이요 도시 소시민 등이다. 이들 중에도 가장 진보적이고 XX적인 선두대가 노동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를 선두로 한 운동이 아닌 운동에서 참으로 부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 해소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소부르 층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되었던 근우회를 무력화하게 만든 것이다. 저들 소부르 등이 참다운 여성의 요구를 위하여 싸웠다 하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감지 않았을 것이지만은 그렇게 싸우지 못하였고 또한 사실에 있어서 이 소부르들은 그렇게 싸울 수 없는 계급이므로 자연히 운동선상에서 패동 소부르적 지도는 급락되고 판 것이다.

2 그러면 지난 동안의 여성운동은 어찌되어서 소부르 등이 지도

급에 처하여 있게 되었던가를 잠깐 살펴보자.

1926년 전까지는 여성동우회이나 여자청년동맹이니 하여 성적구별을 가진 사회주의여성만의 집단이 출몰하였다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방향전환론이 생겨난 이후 조선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의 획득을 기한다는 일반적 망령을 내세우고 민족사회양주의의 여성 등이 한기 발 밑에 모여서 조직을 관계 된 것이 근우회였던 데다가 이 조직이 어느 계급의 계급적 색채를 선명하게 제시하면서 출세한 집단이 되지 못하고 다만 위에 쓰인 망령만을 가지고 어둠어둠하게 만들어 내었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급진분자라고 하든 소부르주아 인텔리들이 지도적 지위에서 그야말로 여성운동을 리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도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별다른 책임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무산계급운동과 합류할 수 있는 xx를 해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31년에 와서는 끝끝내 저들의 진영은 파탄의 길을 밟지 아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31년의 조선여성운동을 말한다면 소부르주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던 소위 여성운동은 해소되고 이 시기로부터는 노동자계급과 합류하는 새로운 부인 xx운동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전환기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급진 여성운동의 대서 특기할 만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 정세가 계급의 대립을 급속도적으로 첨예화하게 하였고 이 첨예화한 대립xx은 아시 노동계급의 계급적 성장을 일으키게 한 데에서 소부르주아의 지도급을 발로 차 내던져버리고 오히려 노동급여의 계급적 활동에 의하여 급진적인 소부르들이 끌려오게 한 것이었다. 1931년에 여성운동은 이러한 전환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소부르들이 용거해 있던 근우회는 이와 같은 역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 xx력을 상실하여 지금은 하등의 유기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체 그대로 널브러져 있게 되고 말았다. 급년에 근우회로서

는 아무런 동태도 찾아낼 수 없었지만은 노동부녀의 xx은 날날 만큼 성장하였다. 평양의 고무 여공들의 xx을 위시하여 영등포 방직 공장xx 산의xx 등 무한한 노동부녀의 계급적 xx은 이를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면 1931년을 계기로 조선여성운동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볼 당면 과제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사회주의 의식을 가진 소수 인텔리겐차 여성운동에서 민족적 협동운동 과정에까지 진출한 데 불과하였지만은 금후의 여성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계급투쟁과 합류하는 노동부녀의 대중적 활동이 활발히 진전되는 것이 가장 주목할 요점이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조선여성 운동이 이제야 참다운 부인 해방운동의 길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 한 증조이다. 이에 대하여는 1917년 3월 23일에 '쥬리히'에서 쓴 레닌의 편지의 일편으로써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루터타리아트 전 노동자 대중은 어떠한 민x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제1로 진정한 민중의 xx 즉 전 인민 남녀 양성의 성년시민으로 성립되며 제 2로 국민x의 기능과 xx의 기능 xx 제도 급 xxxxx의 최고 기관 급 기초적 기관의 기능과를 결부시키는 xx이다. ...중략... 이러한 활동에 우리는 부인을 모든 부인을 끌어들이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우리가 부인을 사회적 생산 중에! 민x 중에! 정치 생활 중에 편제하고 부인을 가정의 일에서 부업의 일에서 해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참의 xx를 전취하고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하략..."

이 편지는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난 직후 러시아 민중에게 준 레닌의 글말이다. 물론 그때의 러시아의 정세와 현재 조선의 실제 정세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이지만은 사회 계급이 대립적으로

된 자본주의적 체계의 계열은 동일한 원칙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의 부녀운동에 대한 그 시기의 임무는 또한 조선의 부녀운동의 어느 모퉁이에서 그대로 모방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정도 없지 아니하다. 레닌이 말한 부인의 해방은 전 무산계급 해방이 되는 것, 전 무산계급의 해방은 부인의 해방이 되는 것이다.

4. 1931년을 1 전환기로 소부르 인텔리급을 중심으로 하여 동하고 있는 조선 여성운동은 그 xx의 중심적 세력이 계급적으로 결성되면서 있는 것이 이 해에 새로 생겨난 역사적 특징의 하나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부인 해방운동으로 하여금 피등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결정적 xx에도 점점 가까이 다다르게 하는 바이다. 노동부녀의 계급적 각성과 xx적 xx이 전 무산 계급운동과 xx되면서 xx되지 아니하고는 xx의 xx은 불가능한 것이다.

부녀 해방운동에 대하여 계급적 표를 선명히 하지 아니하고 과거와 같이 막연하게 봉건인습의 타파! 문명되지! 지위향상 등 부분적 이요 관념상의 문제만을 그 기본적 투쟁목표를 삼고 나간다면 결국 그 운동은 다시 무력화 고립화하고 말 것이다.

▶ 김옥업, 가정제도와 성문제의 동향

1. 우리는 노인들에게서 “세상은 많이도 변했다. 우리들 소시하고는 판이한 세상이지” 하는 소리를 종종 듣는 일이 있다. 세상이 그렇게 판이하게 변한 것도 사실이요 그리고 그 노인의 말 중에는 도덕의 변화가 더욱 현저하게 머리에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도덕의 변화! 그 중에도 성도덕의 변화 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그 행동

의 변화는 더욱 그들 노인에게는 놀랄 만큼 변했을 것이다.

성생활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는 서로 교호(交互)해야 그 시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원시생활에 있어서는 인간의 생명력 곧 성의 충동으로 표상(表象)되었던 때도 있고 성기가 무기로 대행된 때도 있었던 것이다. 누구는 말하되 사회의 경제 구조는 성생활의 위에 그의 표현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만일에 이제 조선에 있어 성 이데올로기에 지대한 변화가 있었다 하면 그는 곧 조선인의 경제생활에 그만큼 지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시인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의식주의 생활은 그 집단적으로 보장되었으므로 따라서 개인의 자유행동은 집단적의 제도적 구속 에 의하여 엄격히 규정되었으므로 성생활은 결코 방종한 것이 아니 었던 것이다. 그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제약은 인간 의 개인적 행동을 규정하게 되니 사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길이 엄시되어 있으면서도 각개인의 행동은 법률적으로 자유로 방임되 었음으로 각 개인은 자유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 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그에도 자아모순을 갖게 된 것이다.

봉건적의 가족제도가 이미 해체되고 있는 도정에 있고 더욱 경제적 파멸로 인하여 각인의 생활은 일층 더 곤란하게 되니 일개인 일 가족을 위하여 직업 갖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니 그 위에 개인 의 생활은 자유로 방임되어 있는 자유계약 개인 인격 존중이니 하 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생활 구조는 곧 그 표현 을 성생활의 위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2. 우애결혼-그는 아메리카 식이다. 서양식이다 하고 곧 배격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최근의 성생활이나 가족 관계를 냉정히 해아 려 볼 때에는 그가 얼마든지 실행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가 외래품이 아니요 우리들의 현실적 사정은 그를 필연적으로 실행하지 않고는 건드릴 수 없게 한다.

여기에 가령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있다 하자. 그는 취직하지 않고는 의식을 구할 수 없고 또 취직을 한대지라도 그 급료란 극히 빈약한 것이어서 그것으로 일가족 생활을 지탱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돌아다 보라. 우리들의 봉급 생활하는 자로써 과연 한 가족을 지탱하기에 풍족한 급료를 받는 자가 있는가를 여기에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고의로 배격하는 것은 아니나 부득이 그를 단념하는 수밖에 없이 된다. 그러나 사람은 성적 요구가 있다. 그것까지도 단념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니 여기에서 새로운 결혼양식이 발견되고 새로운 논리 새 도덕이 필연적으로 출현되는 것이다.

우애결혼이 좋은가 나쁜가, 또한 지금까지 내가 말한 그것이 과연 우애결혼의 부류에 들 것이나 아니나는 별 문제로 하고 사실은 그와 같이 제정을 초월하여 그가 실행 또는 시인되고 있지 않은가?

사회의 정세는 변화하고 있다. 그 비례로 성도덕 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도 변한다. 따라서 성생활 성행위도 그만큼 변화하고 있다.

금후 경제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에 따라 성문제의 관념이나 행동이 변하고 있을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해서 금후의 성행위는 곧 방종이거니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적 방종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요 자아 모순에서 나온 것이다.

3. 정조가치가 폭락하여 상품가치에 전향한다. 말만 들어도 불쾌하다. 그러나 최근의 실제정세를 살펴어 볼 때에 그는 너무도 명백히 사실화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다.

여성이나 남성이 마찬가지로 생활난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서는 결혼은 일종의 취직이 된다. 그 결혼이 또한 곤란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정조가치는 실용적 가치에로 전향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경제기구 하에서 정조가치의 절대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는 한낱 공상이요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정조가치가 폭락하는 이유를 든다면,

- ①은 생활 곤란으로 정조가치의 옹호가 불가능한 것이요.
- ②는 결혼이 연기되거나 또는 전연히 불가능하게 될 때에 여성은 그 성적 요구를 전연히 급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 ③은 봉건적의 가정이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는 여성의 비판을 받게 되었으나 현재와 같이 사회가 정적으로 고정하여 있지 않고 동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때에는 사회 비난의 표준도 또한 고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여성의 성 행위도 그가 사회로부터 일일이 엄격한 비판을 요치 않게 된 것이다.
- ④는 여성이 남성에게 지배되고 있는 동안에는 여성은 남성의 공헌물로써 정조가치를 존중하였으나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해방의 도정에 있는 현재의 사회에서는 다소라도 종속적의 표정을 혼입하고 있는 정조가치를 반동적으로 폐기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는 자연적으로 정조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고 상품가치에 전형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전형기의 경제학은 여기에서도 그가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4. 에로티시즘의 성행이 또한 현대의 특징이다. 이상은 아름다우나 그가 실제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는 공상이다. 카페가 번창한다. 5전 우동집이 생긴다. 그는 불경기의 소산이다. 불경기가 심하고 있을수록 에로티시즘의 전전은 그와 반비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앞에서 열거한 네 가지의 이유의 적당성을 재시인케 되나니.

- ①은 정조가치가 폭락했다. 그 폭락한 정조가치가 사회가치를 요구할 때에 그는 필연적으로 상품가치에 전화하는 것이요.
- ②는 결혼생활이 곤란함에 따라 남녀양성의 성적요구가 억압되고 있는바 그 억압된 요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나 그 요구를

채우려 할 것이며

③은 생활의 향락이 극도로 급파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비용으로 강한 합력적 자극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니 여기에서 성적 향락 성적 유희가 그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④는 사회의 비판 표준이 고정하여 있지 않다는 것이니 그는 이미 앞에서 술한 바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10분 자유스러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에로티시즘의 성행은 사회퇴폐의 한 현상이다. 그러나 에로티시즘의 성행으로 사회가 퇴폐하는 것이 아니요 현대의 경제기구는 개인의 생활 요소를 억압하고 있으며 사회의 경제생활과 개인의 생활 요구의 문제의 내재적인 모순은 필연의 세로 현xx조직을 위기에 반케 하고 그의 한 표정으로 에로티시즘의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에로티시즘의 성행이 지금 곧 우리 가정을 전반적으로 음습할 것이라고는 보지 못 할 것이다. 그러되 산아제한과 결혼의 양식의 간단화는 그가 직접으로 영향하고 있나니 아무리 봉건적으로 되어 있는 가정이라도 그것만은 실행이 보급화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인의 성생활이 그가 독립적으로 어떤 체계와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요, 사회의 경제생활을 하부구조로 하고 그의 특질을 가장 예민하게 표장하는 것이 성생활임을 알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경제생활의 변화와 함께 성 이데올로기 성행 위 연애양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 조선여자의 사회적 지위

1. 과거에 있어 조선의 여자란 사회적으로 하등의 존재가 없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보아 아무 지위를 가지지 못했었다. 구테나 억지(抑止)로 그 지위를 찾자면 노예(奴隸) 중에도 무가치 무성별한 최저급의 노예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차일의 노예 시대를 버리고는 아무리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는 노예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에 상당한 보수가 있음이 오늘날의 상례(常例)이거늘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에 있어서 조선의 여자란 결혼 생활이라는 조건하에 무고히 남성에게 강제와 억압을 받게 되며 한 평생을 달려서 세탁을 한다. 아해(兒孩)를 양육한다. 식사를 장만한다. 의복을 마련한다. 큰일 작은 일 가사는 심히 전부를 여자가 돌보고 전분으로 비에 달게 되니 그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 ○○○○○○○○○○○○○ ○○○○○○○○○○○○○ ○○○○○○○ 어느 남성이 하루인들 그것을 참고 담당할 자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의미에 있어 오늘의 조선여성이 당하는 노력(勞力)이며 임무(任務)야 말로 중차대(重且大)할 뿐 아니라 결코 경홀(輕忽)에 돌린 것이 아니라는 그 실원에 있어서 조선여성이란 개성(個性)의 존재가 불연되어 있고 아울러 사회적으로 비참(悲慘)한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 함에는 실로 통탄(痛嘆)하여 마지 아니하고 ○○○○○○○ ○○○○○○○○○ ○○○○○○

2. 이제 돌이켜 과거의 조선 지금부터 4000여 년 전 단군시대의 여성과 지위는 어찌되었느냐를 살펴어 보건대 반드시 이리했었다고 수학적으로 명확히 내세우지 못하나 좌우간 여성의 지위란 금일과 같이 비참(悲慘)치 아니했던 것만은 인지할 수 있는바 간간이 고서에서 여성이란 문구를 발견케 되는 것을 보면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존재가 인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말하면 오인은 시시(時時)로 고서를 뒤적일 때마다 여신이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든지 눈에 띄이며 아직까지 남신이란 문구는 보지 못했다는 점으로 보아 여자가 남자 이상의 우월권을 가지고 사회의 만반(萬般)을 주장하고 지배하던 시기

가 있었다는 것을 상식이라도 판단하여 알게 된다. 반드시 그렇다. 여자가 한때는 사회급 가정의 주인공이 되어 천하극 자의로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나니 위에 말한 바와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예매(曖昧)한 논증을 사하고라도 과거의 역사적 변화 특히 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하고 인간급 사회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가장 과학적인 논리로 보아 여자가 경제력의 실(實)을 전권으로 장려하고 있던 한때의 세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증명하는 것인바 차에나 금에나 경제적으로의 실권을 권자 반드시 우수한 지위에 처하게 된 ○○○○○○○○○ 불가분의 사실이니 어찌 그대인들 그 규칙(規則)이야 변함이 있었으리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자라도 경제력을 가졌고 아무런 남자라도 경제적 실권하에 복종치 아니할 수 없게 되는 이하의 오늘의 처지와 반대적 이상을 지하였을 것이라는 것 구태나 학자의 강화(講話)를 듣지 않고도 오인(吾人)은 넉넉히 짐작하여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인간사회에 똥똥이 발전된 유래일진대 비쳐 일본이나 조선에만 그런 자유를 가졌을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그러한 경로가 있었으며 좀 간단히 말하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물문하고 오늘의 세(世)소위(所爲) 자본주의 시대에 거하기까지에는 반드시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저렇게 비참한 구렁에 빠져 모두의 생활로 만족을 느끼고 인격적의 존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아울러 사회적으로 부정되어 있는 저들 조선여자도 한때는 제법 기세를 펴고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거니 할 때에 더욱 감회가 없지 않다.

3. 사람은 절대로 평등이어야 한다. 이제 그런 소리는 벌써 낡아 빠진 고담(古談)과 동일한 유(類)로 세간에서 취급케 하였다 같은 법률 아래 같은 인권을 가지고 금(今)에 새로이 사람은 절대로 평등이어야 한다는 수작이 무슨 어림없는 헛수작인가 하고 자기의 무지와 몰각(沒覺)으로 망단(妄斷)을 하(下)하는 경망한 무리가 아직도 있지 않으나 노동자 대(對) 자본가 그렇게 큰 의미의 계급을 빼

면 남자와 여자와의 계급에서 더 큰 것은 없을 것이며 그만 즉 사회문제의 중대한 자리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누가 사람이 되어 인간에게 행복이 있고 사회의 화락과 평화가 있기를 원치 않으리요. 만은 우리는 피상적으로 아무 개성과 성산(成算)없이 그저 주책없는 탈로 평화와 행복을 그리워하고 무한히 동경(憧憬)한다. 그러나 현대의 '조류' 환경은 결코 인간의 평화와 행복을 주지 않는다. 참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 ○○○○○○○○ ○○ 필요가 있는 것이며 거기에 필수조건으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남자와 동등하게 된다.

4. 그러면 일단적으로 여자의 사회적 지위란 어떠하여야 할 것과 어떠한 환경에서야만 그의 인격적 가치가 인정되게 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존재가 있게 될 것이니 그때야만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란 것도 그 형태가 서게 된다는 것을 지극히 간단하고 대략이나마 기록했다고 한다. 이제는 조선의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말하려 하는바 먼저는 조선의 여성 역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헌(貢獻)이 있고 조선의 장래며 그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아무런 무리라도 공히 부연치 못할 것이며 종래의 일도구식 혹은 기계식(機械式)에 온 것을 반드시 뒤우치고 스스로 양심에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실에 있어 조선여성의 사회적 공헌이란 그 막대하다 한지니 남성인 그네는 밤에 나가서 ○○○○○○○○○○ ○○○○ 일정한 시간에 노력을 하고는 기정의 금(金)이 받아 그 생활의 자료나 공급(供給)함이 오늘날의 조선 남성들의 보퉁 하는 일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그렇게 제적되어 있지만은 여자는 방안에서 갇혀 아침자리에서 일어난 후 밤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일시의 휴식도 없이 의식주의 모든 중요조건을 전부 책임적으로 임(任)하였다 할 수 있으며 그 하는 일이 적은 일 같으나 그 실상은 남성들과 같이 어느 일 개인의 자본주의 손에 얽매어 그 자본주 일 개인의 사업만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보아 일

▶ 金善晔, 앞으로 權友會는 어떻게 되나

먼저 權友會(權友會)는 어떤 단체이었든가. 그 강령에 의하면

1. 조선여성의 공고(鞏固)한 단결(團結)을 도모함.
2. 조선여성의 지위향상(地位向上)을 도모(圖謀)함.
3. 조선여성의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 각성(覺醒)을 촉진(促進)함.

대개 이러한 것이었다고 기억한다. 그것으로 權友會의 사명은 조선의 여성이면은 전부 權友會의 깃발 아래에 모이려 했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단결의 힘을 주고 그들의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각성을 촉진하는 범(汎)여성운동이었다. 따라서 權友會 안에는 종교인은 여성 부잣집의 따님과 며느리, 직업 여성, 공장의 직공, 딸홀려 김매고 거두고 농부의 마누라와 그 따님들이 서로서로 어울려서 權友會란 여성단체가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다 종교계 여성(예수교)이 먼저 말을 끊고 나가고 다음에는 부잣집의 따님이나 며느님들은 호지부지하야 나오지를 아니하고 공장의 직공이나 농사짓는 부인네들은 그에 가히 반수가 극히 적고 다만 남은 것은 사회주의적 색채를 갖고 있는 그들 여성만이 남아있다는 것이 오늘의 權友會의 진영(陣營)이다. 이래의 조선여성운동은 남성들의 사회운동 대중운동과 언제나 기치를 같이 하여 왔다. 그는 남자들이 나팔부는 대로 이리로 행군하고 저리로 행군하는 그런 유라고 보아서는 오해다. 조선의 운동은 계급운동으로 한걸음 한걸음 보조(步調)를 심각(深刻)히 하고 있고 여성이란 그것도 그가 한걸음 한걸음 진전하고 있을수록 계급운동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간회가 해소를 부르짖게 되자 權友會도 해소를 부르짖게 된 것이 결코 남의 창구에 어깨춤

을 준다고는 못할 것이다.

설로 작년 이래 근우회는 유아무야에 싸여 있었다. 하는 일이 없음은 물론이요, 모이는 여성이 없으며 이름조차 일반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만큼 근우회의 존재는 희미해졌다. 그러나 근우회가 태채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힘은 없다 할지라도 간판만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은 금후의 여성운동을 위해서는 물론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요, 다만 반동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근우회가 태도로 반동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반동적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존한 근우회는 어쩌하여 힘을 내지 못할까? 반드시 그 예는 그 조직에서 모순이 없지 않을 것이요, 근우회의 현실적 존재는 오늘의 현실 그와는 서로 배치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까닭이겠다. 이제는 근우회의 그 자체를 해부하고 분석해보자.

첫째- 근우회는 그 조직에 있어 또는 그 사업의 기초를 노동 부인이나 농촌 부인에게 두지 않고 극히 소수이요, 비xx적인 소시민 여성에게 중심을 두었다는 것이다. 소시민 여성은 그 수에 있어서도 적거니와 그들은 언제나 부동하여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xx적이어서 그들의 모이는 곳은 일종의 구락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근우회는 그것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요, 단순히 그저 인간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모인 것에 지나지 못함으로 그게 굳은 단결이란 변말뿐이요 실재에 있어서는 굳은 단결이 되지도 않고 따라서 힘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근우회원과 일반의 미조직의 여성들과는 너무도 거리가 현격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 의미 조직여성인 현재의 근우회의 간부나 회원에게 대하여 아무런 신뢰도 갖지 않는 동시에 그들은

오히려 거리를 멀리하려 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근우회는 그 존재의 의미(意義)가 없다고 보겠다. 그래서 해소를 부르짖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근우회 존재의 가장 의미(意味)가 없고 또 그리고 힘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도 그를 발한 바와 같이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그 수가 많은 노동부인이나 농촌부인의 광범한 대중층을 조직의 근간(根幹)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니, 그는 이제 와서 포용적(包容的)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 까닭은 이러하니 노동부인이란 그가 노동자 계급의 한 부분인 것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의미(意味)에서 농촌부인이라는 것도 그가 농민계급의 한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 노동부인이나 농민부인은 그들의 사회적 생활과정에서 전체적이요, 기본적인 노동조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자연적 생각이요, 자연의 발생인 것이다. 이렇게 같은 대상, 같은 이해, 같은 노동 조건 밑에서 그 계급의 전체와 같이 조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그들은 남성과 같이 손을 손을 마주잡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하여 정치생활에 이르기까지 또한 같은 보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부인은 노동조합부 인부의 농촌부인은 농민조합부 인부에 조직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조직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성운동은 그가 유산자적이건, 무산자적이건 그는 반드시 전 계급적 또는 전 민족운동의 일부야적 운동으로만 생성도 하고 발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 가령 여자 기독교 청년회가 있다 하자. 그는 기독교 운동의 일부야적인 것이요, 결코 따로이 기독교를 떠나서는 그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조선의 여성운동도 조선의 전체운동의 일부야로서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요,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조선의 전체운동이란 어떤 것일까. 그는 무산계급의 지도 밑에서 전체될 것이요, 또는

그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조선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여성운동은 남에 대하여 동등의 요구를 최고의 사명으로 하는 그런 유산자적의 운동이 아닐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하는 바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조선에 있어 여성에 대한 특수차별을 하게 한 그 발로의 주체자는 누구이며 그 기초는 누구에게서 산출되었는가. 조선여성운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조선의 전체운동과 그 운동의 대상을 동일히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그 운동의 대상과 목표가 똑같은 이상의 어찌 여성운동만은 근우회 그 깃발 밑에서 구락부적 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 것인가. (1931년 9월 20일)

<신여성, 1931년 10월호>

▶ 김윤경, 부인문제의 의의와 부인운동의 유래

조선의 보고(寶庫)인 삼남지방에서 칠월 중순이 켜 넘어가도록 모를 내지 못할 만치 심하던 한재(旱災)의 뒤를 잇대어 서북 특히 황해도 지방을 정복 유린(蹂躪)하면서 남침(南侵)주의의 횡포(橫暴)를 쓰는 지리(支離)한 홍수의 잠마가 침수 일을 계속(繼續)하다가 울던 백성에게 웃음과 구원(救援)을 주는 태양이 그 자태(姿態)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날이었다. 개벽(開闢)사의 한 빛이 일부러 나를 찾아주시었습니다. 이것이 언론계와 사교계에 표면에 나서기를 즐기지 아니하는 필자로 하여금 사(辭)이 부득하고 붓을 들게 한 동기다. 그러나 언론가나 작가 아닌 필자로써 출지에 5, 6일의 기간을 가지고 무엇으로 새사회를 건설할 신망 많은 누이들에게 유익될 글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주저(躊躇)하였습니다. 그리하다가 4월호 본지에서 필자가 여학교 졸업생들을 향하여 상정의 부탁(附托)을 쓴

것 중에 부인문제를 들어 그 근본정신이 무엇인가를 조금 소개한 것이 언뜻 연상(年上)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문제를 조금더 똑똑히 소개하려고 뜻을 들은 것이다.

사람은 그 자체의 존재가 이미 사회적 산물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나면서부터 사회적 생활을 하여야 되기도 하려니와 피할 수도 없는 관계이다. 즉 사회를 떠난 개인이 없고 개인을 떠난 사회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 대 사회의 관계에 대한 태도 고래(古來)로 여러 학자간에 큰 문제가 되어 온 것이다. 고로 여러 주의 주장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에 대하여 취할 태도는 두 길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화(應化)와 동화(同化)가 그것이다. 융화라 함은 경우가 주가 되고 자기가 객이 되어 자기를 경우에 순응시키는 것인데 운명에 맡기어 사회화 일반화하는 것이며 동화(同化)라 함은 전자의 반대로 자기가 주가 되고 경우(境遇)가 객이 되어 경우를 자기의 목적에 접근 혹은 합일시킴인데 자연을 정복하여 개인화 특수화하는 것이다. 그리하나 누구든지 그 어느 하나에만 극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재래로 우리는 융화에 기울어지고 서양인은 동화에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개인주의의 황성(旺盛)이 그를 증거(證據)합니다. 개인주의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진리의 표상은 개인에 있다” 하는 철학상 개인주의도 있고, “국가는 개인 때문에 존(存)하다” 하는 정치상 개인주의도 있고,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완성에 있다” 하는 교육상 개인주의도 있고, “지선(至善)은 개인의 쾌락에 있다” 하는 도덕상 개인주의도 있고, “개인이익의 증진은 개인에 일임하다” 하는 경제상 개인주의도 있고, “각인의 본능적 향락을 인생의 지복이라” 하는 문학상 개인주의도 있고, 그 외에 “특히 개인의 가치(價値)를 절대(絶對)라”한 독일의 니체와 “개인이 자기의 목적을 존중함의 시(是)”와 “공익 때문에 자기를 버림은 모순(矛盾)이요, 비리(非理)라”한 미국의 논리학자 화이트 같은 극단자까지 근세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서가 상통하게 된 이래로 우리는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달아나는 것이 오늘날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充分)한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정신으로 시비곡직을 판단하여서 그리한다는 것보다 “남이 하니 나도 하자” 하는 맹종적 경향(傾向)이 농후(濃厚)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재래사상이라고 다 버릴 것이 아니며 저네들의 신사상이라고 다 취할 것만은 아니다. 그리하여 남이 진행하는 중이라고 그 사상의 재물과 중심이 무엇인가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 운동부터 곧 수인 진행하는 것은 맹종이요, 융화의 극단이라 완성(贊成)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로마민족에게 크게 배울 것이 있다. “튜탄족 사면족은 광대한 로마제국을 후인 정복하였다. 그리하나 튜탄족은 라틴 문화에게 정복되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인은 정치적으로 튜탄족에게 정복되었으나 문화로는 그들을 정복했다” 함은 사학자의 명언이다. 이같이 물질적이나 권력적으로 지배된다고 그들은 반드시 그 정신의 정확한 문화까지 지배되지는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죽어도 살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나의 것을 버리고 너무도 쉽게 아니 함부로 남의 것을 취합니다. 이것이 일반(一般)문화 운동의 진두(陳頭)에 나선 여러분의 주의할 점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필자는 붓을 들게 된 이 기회에 ‘부인문제’는 무엇인가, 또 그 유래가 어떠한가 또 그 운동의 범위(範圍)와 내용은 어떠한가를 솔직하게 조금 소개하여 그 운동자 된 여러분의 참고(參考)의 이마지하고자 합니다. 범위의 넓지 못함과 그릇된 점은 용서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부인문제의 의미와 범위

부인문제라 함은 부인의 ‘개인으로서의 자각과 인간으로서의 자각’에 따라 생긴 남녀평등을 만족히 하려는 운동에 대한 문제이다.’ 어

적하여 사회의 제도와 습관과 도덕이 이처럼 남녀간 차별을 두게 되었으나 하는 원인은 언(言)자가 각각 다르겠지만 생리적 차별이 성적 차별과 일치된 점 곧 체질의 강약이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한 종족이나 민족으로도 우열(優劣)이 있을 경우에는 강자는 약자를 지배(支配)하였고 개인으로도 우열이 있을 경우에는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여 온 것은 역사상 사실이다. 이와 같으니 남녀 양성간에도 비교(比較)적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였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게 되어서 천년을 경과하게 될 때 일반제도나 습관 도덕이 남자 본위(本位)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한 큰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성적 도덕문제 부인 참정권문제 부인 취업문제 여자 교육문제들의 각 방면으로 광대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2) 부인운동의 유래

이 운동의 유래는 근세문명의 시작이라 하는 1789년 불란서 대혁명에서 발원되었습니다. 대저 서양문명의 개동을 고(考)하면 '고대동방제국' 대국의 문명을 수인 또는 창조(創造)한 헬라에서 발원하여 라마가이를 전승하고 또 쉰넨족이 이를 전승한바 라틴족과 언어 사상 습관 성질이 다른 그들이 라틴문화를 완전히 소화 흡수하게 되기까지는 자못 장기간이 걸리게 되고, 또 그 동안은 근 소위 '중고(中古) 암흑(暗黒) 시대(時代)'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다가 제 14세기에 시작된 문예(文藝) 부흥(復興)으로 신광명을 각 방면에 발휘하게 됨으로 제 15세기 말에 이상발견과 제 16세기 초의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 삼대(三大) 사실은 지대한 영향을 각 방면에 준 것이다. 기독교적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의 사상은 이 사건들의 합성력으로 더욱 명백히 더욱 강렬히 주장하게 되어 사상의 전재를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으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데 이 사조는 그때부터 온 세계로 뿔어 나가면서 정치의 전체를 전파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상 자유 평등 박애에 기초되지 아니한 온갖 제도, 습관 도덕, 종교의 각 방면으로 전파개조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말하려는 부인 운동도 여기에서 성장된 것이외다. 무소의 자유 평등의 철규는 직접으로 불국 대혁명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간접으로 당시 신여자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자각을 일으키게 한 큰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1789년 10월 국민의회에서는 부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단(一團)의 부인이 정치상 남녀동권을 건의하였습니다. 또 올림프도구주 여사는 천후 메리 앙트와네트에게 「여권당언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같이 도처에 충돌(衝突)을 일으키게 한 부인 운동의 시작이라 합니다. 그 뒤로 18세기 불국에는 혁명적 부인 단체(團體)가 여러 번 출현하였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문학자 스타엘 부인도 있고 「국민에게 주는 글」 삼부인 해방을 열렬히 주장한 쉰지 쾨르 여사도 있습니다.

이 운동은 불국(佛國)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시 국제(國際)적 문제화되어 영국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메리, 윌스톤 그래프트 여사는 1782년에 「여권 변호론」(辯護論)을 발표하여 “남녀의 천부인권은 동일하다, 고로 도덕적 정치적으로 남녀는 동권이다, 따라서 남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은 人道의 배반하는 것이다”고 통론(痛論)하였습니다. 또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도 부인운동의 현신(現身)하여 여자 참정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시 북구(北歐)로 건너가면 ‘근세문학의 아버지’라 하는 부름을 듣고 있는 노르웨이의 입센이 있습니다. 그는 “여자도 개인이라” “여자도 사람이다”하는 각성을 가장 고조(高調)한 것이다. 이는 그의 작품으로서 현대 여자의 행세건(行世件)으로 필독물이 된 『인형의 집』, 『유령』, 『해의 부인』, 『르메르홀름』에 표시(表示)된 것이다. 또 이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성적 도덕 문제인데 그의 작품 중에 남녀의 성적도덕의 혁명을 가장 힘있게 표현하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이미 우리의 신 여자들의 사상에 침투(浸透)되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형의 집』의 골자를 보건대 그 여주인공으로서는 그 남편 헬마의 병을 고치려고 크록스타드라는 남자에게 2,000원 차득(借得)하고 낱밀까지 하여 그 반하여 분개(分介)하던바 그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차금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공서위조죄를 범하게 됨으로 ?권자는 그 여자와 남편 헬마를 박(迫)하는 고로 그 여자는 남편에게 해(害)를 끼칠까 염려하여 자기가 그 책임을 독담하고 해결하는 중에 그 남편은 처에 대하여 감은은 시사(始舍)하고 "사랑을 원수로 갚으려느냐"고 도리어 육함으로 그 여자는 남자의 자기분위의 횡포(橫暴)함을 절감하여 "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절규(絶叫)하면서 8년간 동거하던 남편과 세자녀를 뒤로하고 집을 떠난 사실이다. 또 『유령』은 모르고 결혼한 남편이 품행이 부정한 고로 사(函)에게 도움을 청한즉 그는 이를 불관성할 뿐 아니라 금지하는 고로 그 불행한 여자는 이에 순종하면서 다만 유아를 낙으로 할 뿐이러니 부친의 유전병으로 그 아이 초차 발광하다가 죽어버린 것이 골자로 한 것인데 사랑 없는 경우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함은 죄악이라 하여 그 여자도 곧 이혼하였으면 그러한 불행은 없었으리라고 자유이혼을 주장한 것이며 『해의 부인』에는 연애자유를 주장하는 것인데 에리다라 하는 여자가 현재 남편이 완굴을 버리고 옛적에 연인이던 자에게로 가려 할 때에 자유로 택하라 하는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자유로! 그리고 책임을 스스로 지라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변하여 버렸소이다" 하고 자유와 책임을 받는 문제의 여태까지 남편에 대하여 조금도 느끼지 못하던 연애를 비로소 느끼었다 함이 그 골자이다. 임센의 후계자로는 하우푸트 수다만 쇼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운동의 맹장으로서는 스웨덴의 여사상가 엘렌 케이를 들어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센은 형(形)으로 표시하여 일종문제로 주장한 이는 이 케이 여사이다. 그의 주장은 성적도덕의 혁명인 '신도덕'의 건설이다. 그것은 그의 명작 『연애와 결혼』, 『소아(小

뒀)의 세기』, 『부인운동』, 『모성의 부흥』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신도덕'에는 여사 뿐 아니라 영국의 사상가의 더즈카펜터, 버나드 쇼, 미국의 살롯트 파킨스, 킬만부인, 올리브, 시우라이넬, 사회주의에서는 고(故) 베벨, 박스들이 있다. 그러한데 케이의 주장, 연애관, 결혼관, 모성보호의 삼방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케이는 말하되 "인생이 종족보존에 대한 다른 어떠한 방법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양성관계는 심(心)없이 지상에 대한 인생의 기원이다. 그러한 고로 진화론적 견지로 보면 양성관계는 인생향상에 대한 출발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같이 성의 도덕관념을 인생향상에 대한 요구와 조화하게 하고 성의 전황국에 일개의 신경이 미성하게 하여서 인생의 향상에 자(資)한다는 이유로부터 오인은 성을 존경의 대상이라 하지 아니함이 불가하다" 하여 성관계의 중시로 연애를 중시하였습니다. 그는 곧 성연애를 종교시 하였습니다. 그의 연애관 뜻은 다만 성욕적, 육감적을 이룬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다만 영적만을 이룬 것도 아니다. 곧 영육일치를 이룬다. 불국학자 쉐지 썬드 여사 "감각으로 영혼을 배반함이 없고 동시에 영혼으로 육신을 배반함이 없다" 함에 케이의 연애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하되 "휴머니티를 복직하고 나아가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일로 연애급 연애의 정의라는 일을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불가하다. 왜 그러냐면 인류는 이러한으로만 더 높은 휴머니티에 도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안 받치지 않은 단감각의 연애는 세소위 '자유연애'니 다만 방종(放縱)에 흐르고 관능에 따르는 본능적 연애며 또 감각을 안 받치지 않은 단령의 연애도 진(眞)의 미의 연애는 아닌 세소위(世所謂) '연애'라고 쟁언하는바 기독교의 연애 즉 양자를 불가분이라" 고 역설한 것이다. 또 그는 형식을 무시하여 습관도 법률도 이것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또 정식여부를 물론하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은 죄악이며 또 동시에 책임을 충실히 하는 것은 신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신도덕주의가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혼란 급

전, 육욕(肉慾), 세간적 야심, 기타외적 동기의 결혼은 다 배척하고 결혼에는 연애가 중심이라 하였습니다. 고로 연애가 없음을 발견할 때에는 일찍이 있든지 없든지 물론하고 이혼함이 가(可)하고 계속은 죄악이라 하며 그 외 유명한 극단의 「자유 이혼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이유로서는 “연애는 일종 감정인 고로 변화한다. 가령 20세 때에는 전심적이라 할지라도 30이나 40세 때까지 그러하리라고는 누구든지 보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고로 생명의 장수를 가히 기약(期約)할 수 없는 것처럼 영구의 연애를 가히 기약(期約)할 수 없다. 다만 사람은 그 생명의 장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연애의 영구를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에 불과하다” 함이다. 이 점은 현대의 청년에게 가장 의혹과 오해를 많이 주는 것이다. 그 여사의 전 사상을 총괄한다 하면 결코 일시적, 수동적, 육욕적 만족만 하여 자유이혼을 주장함이 아님은 상술한 그의 “연애는 다만 상욕적, 육감적이 아니라” 함과 단(單)감각의 연애는 다만 방종에 흐르고 관능의 취락하는 본능적 연애라 함을 보아 명백한 것이다. 그런 즉 그의 말한 현격한 의미의 연애로 성립된 결혼이라 하면 도저히 이혼의 문제가 일어날 리가 없고 또 반대로 이혼하지 아니할 수 없게 사정이 되었다 하면 이는 계약으로 성립된 결혼일지언정 결코 그의 말한 진정한 의미의 연애로 성립된 결혼은 아닐 것이다. 독자는 여기에서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그의 사상오해로 일어나는 증독에 걸리지 말기를 필자는 바라는 바이다. 또 이 여사의 이 주장이 그 불합리한 것을 독일인 헬쓰타이쎈는 말하되 “인격적 자연과 일단적 질서에서 독립하게 될 것이다. 고로 그 미측 영향을 숙고(熟考)하라” 하고 또 “심정은 지극히 변하기 쉬운 것인 고로 사회의 일단의 동의부정과 팽대로 함부로 하는 것에 간섭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추락하여 무목적, 무가치의 실행화가 될 것이다.” 한 어거스트 콩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유이혼이 행복된 결혼을 주리라 하는 자는 이 콩트의 말을 생각하라. 혹시 또는 그것이 행복될 경우도 있을지나 일단 기준을 삼는 것은 불가하

다. 고로 이것은 심내의 불안, 이기적 본성의 노예가 되어 버릴 것은 심리학상의 진리다. 또 고로로 연애생활을 부당히 하고 심각히 한 것은 기독교적 감정의 산물인 망아(忘我), 무아(無我)적, 애(愛)와 강렬한 정신적 향상욕과의 작용이다. 고로 기독교적인 망아적 애의 작용이 더하고서야 비로소 연애는 공소(空疎)한 감정적 영역을 벗어나 고상한 정신적인 것이 된다. 신태와 페트랄카의 연애가 이교도의 그것보다 가치가 고상함은 이 까닭이다" 하였습시다. 그리하고 케이 여사의 말 중에 모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사실상 부부관계를 계속(繼續)하지 못할 경우에 그 관계가 과실이러 하며 그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지 아니하면 아니 될지나, 그 때문에 부부로 공치하여야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 것이다.

버나드 쇼는 성적 도덕상으로는 케이 여사와 근접하고 더욱 이혼 자유주의의 공동됩니다. 일부일처주의를 반대하였습시다. 에드워드 카랜터도 결혼의 형식보다 실질을 생각하는 시대라고 하였습시다. 「연애의 성숙기」 중에 여자의 자유와 독립을 촉진할 일, 남녀 같이 소년시대에 지식상 감정상 상당한 성적교육을 베푸는 결혼으로 세 너무 궁굴(窮屈)한 배타 격리적의 관계로 말고 일층(一層)자유요 일층(一層) 우인적의 것이 되게 할 일, 극히 부자연한 또 극히 불합리한 결합도 용사(用捨)없이 일 생애(生涯)를 구속(拘束)함과 같은 염기(厭忌)할 만한 현대 결혼법을 초지 혹은 변개할 일이라 주장하였습시다. 독일의 사회주의적 입장에선 어거스트 베벨은 남녀 평등설을 주장하여 "간음제도는 현 사회제도에서 공언 승인한다. 그것으로 최대 고통을 당하는 자는 여자라. 남자는 불륜행으로 당연히 받을 결과를 겪하면서 여자가 도에 배반하는 일에 대하여는 심히 가혹(苛酷)하다" 하였습시다.

역시 사회주의 입장에선 싸쓰는 "일부일처제와 간음제도는 일종의 상업조류인데 다만 전자는 여자가 남자에게 매수됨에 대하여 후자는 여자가 남자에게 됨이 다를 뿐이다" 하였습시다. 또 영국 소설

가의 퀴지멜스는 “연애중심결혼 자유이혼 연애자유가 신 성적도덕의 고찰의 대상인 동시에 그것이 신도덕의 조건(條件)으로 보는 경향(傾向)은 주목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여성 1924년 8월 기념 특별호>

제3장

일제하 성남지역 여성교육과 민족운동

1. 근대화와 여성교육론
2. 한말 성남지역의 구국교육운동
3. 일제하 성남지역의 교육운동과 여성
4. 일제하 성남지역 여성교육에 관한 자료
 - ▶ 『독립신문』에 나타난 성남지역 교육
 - ▶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성남지역 학교
 - ▶ 『황성신문』에 나타난 성남지역 사립학교
 - ▶ 『기호총학월보』에 나타난 성남지역 사립학교
 - ▶ 1920년대 성남지역과 교육기관의 동향
 - ▶ 『독립신문』에 나타난 성남지역 교육

제 3 장 일제하 영남지역 여성교육과 민족운동

김도형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1. 근대화와 여성교육론

서구사회에서 전개된 근대화는 시민사회의 형성을 전제로 성립하였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동아시아는 서구열강의 침략을 받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전락되어 갔다. 한국도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근대화는 시민사회의 형성하지 못하고, 외압에 의해서 진행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한국의 근대화과정에 있어 올바른 의미의 근대교육이 성장하기를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국강병과 근대사회로 전환을 위한 개화·개혁운동은 “근대교육에 의한 인재 양성과 민족자본의 육성”인 내수외학(內修外學) 또는 내수자강(內修自強)인 근대교육이 시행이었다. 갑오개혁과 더불어 정부는 「교육조서」와 세부규칙인 「소학교령」을 반포하는 등 근대교육에 대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1898년 10월 현재 관·공·사립소학교 총학생 수는 2,0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일부 문명개화론자들은 주빈 부담에 의한 의무교육 시행을 주장하였는데, 박명효·유길준 등은 초기의 대표적인 의무교육론자였다. 이들은 근대교육이야말로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인 동시에 당시 문명화를 이룩한 서구사회의 원동력

으로 파악하였다.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전근대사회에서 여성을 구속하고 남성에게 예속시키는 유교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항 이후 여성 교육은 근대화에 자극되어 처음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유교의 뿌리깊은 봉건성으로 인해 근대교육은 용이하게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자교육의 중요성은 『독립신문』에서 주장된 이래 개화 강론자나 실력 양성론자의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였다. 하지만 인습에 따른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자교육의 부진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남성의 전용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하는 보다 발전된 사회가 되어야만 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여성들은 찬양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순성녀학교를 설립하는 등 여성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 이들은 여학교 설립 취지문에서 여자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과려했다.

…(상략)… 혹자 이목구비와 스시오관 특태가 남녀가 다름이 잇는가 엇지하야 병신모양으로 사나회의 버러 쥘는 것만 안저먹고 평성을 심규에 처하야 농의 절제만 밋으리오 이황에 우리보다 문적 문명기화현 나라들을 보면 남녀가 둘들권이 잇논지라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돈니며 각종 학문을 다 비호아 이목을 널퍼 장성한 후에 사나회와 부부지 의를 결하여 평성을 살더리도 그 사나회의게 일호도 압제를 밋지 아니허고 후대함을 밋음은 다름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회와 밋지 아니헌고로 권리도 일반 일반이니 엇지 아람답지 아니허리오 슬프도다 전일을 생각허면 사나회가 위력으로 너편네를 압제허라고 한갓 넷글을 빙자하야 말허되 녀조는 안에

1) 『독립신문』 1888년 9월 9일자 [녀학교], 12일자 [개이 혼원], 13일자 [녀인학교], 15일자 [녀학교 문성], 26일자 [부인회]; 『제국신문』 1888년 9월 6·9·13일자, 10월 12·15·20일자, 1889년 1월 13·25·26일자 참조; 『황성신문』 1888년 9월 8일자 [五百年有]과 10월 28일자 참조 [女校乃記].

잇서 뵈글 말히지말며 술과 밥을 지음이 앓당히 다허는지라 엇지
허여 스지 룬태가 사나희와 일반 어어늘 이곳흔 압제를 밋어 세
상형편을 알지 못허고 죽은 사름 모양이 되리오 이저는 냇쫘글을
전페호고 기명 전보호야 우리 나라도 타국과 갓치 너학교를 설립
호고 각각 너아들을 보너여 각형직조를 비호아 일후에 너쫘 글쫘
들이 되게 흠을초로 방장 너학교를 창설허오니 유지허신 우리 동
포 형대 여러 너쫘 영웅호걸 님네들은 각각 분발지 심을 내여 귀
흔 너아들을 우리 너학교에 드리 보덕시라 허시거든 곳 착명 혼
시기를 보라나이다.²⁾

하지만 여성교육은 교사와 교사전 확보, 운명비 조달 등 여러 문
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박은식은 구체적인 의무교육 시행 방안
으로 야학을 주장하였다. 유년기는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시행을 강조하였다. 이른바
'조기교육'이 지닌 효용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학
령아동을 교육시키지 않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적인 의
무교육'³⁾과 지역 분할에 의한 학구(學區)에 따른 의무교육이었다.
이러한 주장도 정복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여성교육은 담보
적인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다만 선교사들의 선교사업으로 운영된
이화학당을 비롯한 종교학교가 여성교육의 보급에 이바지하는 상
태였다.⁴⁾ 당시 여학교가 널리 운영될 수 있었던 점은 가부장적인
글레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이 개신교에 비교적 우호적이었기 때

2) 『皇城新聞』 1886년 9월 8일자, 「五百年有」.

3) 박은식, 「論勸學之規」, 『學說新論』, 박문사, 1904년(박은식전시연찬위원회, 『朴殷植全
書』 中, 단국대학교출판부, 1975, 23쪽 所收). 의무교육은 당시 '強迫教育' 또는 '強迫敎
育'이라는 개념으로 일반화되었다. 의무교육은 국민(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의무적인 조항이 강조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제국사회에서 國家主義 또는
民族主義가 성립·발전되는 가운데 민족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써 의무교육이 시행
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독일이 후발 제국주의로 출현하면서 국가 구성원의
결전적인 통합을 통해 새로운 제자로 등장한 사실은 당시 교육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4) 李萬柱, 『朝鮮敎育史』 下, 을유문화사, 1988, 153-160쪽.

문이다. 개신교가 널리 보급된 북한지역이 남한보다 일찍 여성교육이 시행될 수 있었다.

각처에 여학교 설립으로 여성교육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면마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야학을 설립하는 등 자력으로 문명퇴치에 앞장서는 상황이었다. 또한 한글로 된 『가정잡지』·『녀중독본』·『교육월보』와 『대한매일신보』·『경향신문』·『만세보』 등의 간행은 당시 상황과 밀접한 관련하에 추진되었다.

여자교육의 중요성은 『독립신문』·『제국신문』 등에서 일찍이 주장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을 변치 못하였다. 계몽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여학교 설립으로 여자교육의 발흥을 위한 계기를 맞았다. 그러나 교원의 확보, 교육내용은 물론이고 교재나 시설 등 전반적으로 빈약한 실정이었다. 특히 강고한 인습은 여자교육을 부진하게 만드는 최대의 장애 요인이었다. 물론 개신교가 널리 보급된 평안도를 비롯한 북한지역은 비교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남부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개항과 더불어 근대화가 진전되면서 문명개화론자들을 중심으로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갔다. 그래서 1886년 5월에 이화학당이 설립되었다. 이화학당은 유교적 전통에 젖어 있던 시기, 의식주를 제공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학생 얻기가 어려웠다.

민립 여학교의 설립운동은 1888년 9월 찬양회라고 명칭하는 부인회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해 12월 학생을 모집하고 부인회 일원들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 후 계몽운동기에 접어들면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고조되어 여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한일부인회에 의한 보신여학관, 진명부인회에 의한 양규의숙, 1906년 6월 여자교육회가 설립한 보학원, 양정여자교육회에 의한 양정여학교 등이 있었다. 특히 1908년 4월 칙령 제22호로 『고등여학교령』이 발표되면서, 학부령 제10호로 전문 24조로 된 『관립한성고등여학교 학칙』이 공포되었다. 이것은 모범으로 하여 부속유치원, 예

과(2년), 본과(3년), 기예과(2년)로 구성된 최초의 관립여학교가 탄생하였다.

2. 한말 성남지역의 구국교육운동

경기지역의 근대교육은 초기에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주민들의 호응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이에 문명개화론자들은 사립학교를 통해 시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근대교육의 보급에 노력하였지만, 이 또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었다. 경기도 역시 전국적인 양상과 같이 을사조약을 계기로 근대교육은 발흥하는 계기를 맞았다. 즉 각종 자강단체의 지회 조직과 함께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유지들은 사립학교 설립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경기도 각 군에서는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급진전되는 상황이었다. 1910년까지 설립된 경기도 내의 사립학교 현황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대한제국기 경기지역 사립학교 설립현황

연 도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연대미상
설립수	6	5	4	5	3	4	14	24	35	85	38	21	11

출처 : 『독립신문』·『협성회회보』·『매일신문』·『제국신문』·『시사총보』·『황성신문』·『大韓每日申報』·『대한매일신보』·『한세보』·『경향신문』·『대한권보』·『매일신보』·『畿湖興學會月報』·『大韓日報』·『경기도교육사』·『경기도사』·『경기도한말독립운동사』 등 참조.

위의 표에 나타난 바처럼, 1905년을 기점으로 사립학교 설립운동은 큰 변화를 보인다. 초기에 매년 3~6개 교 정도가 설립되었으나, 1906년 이후에는 매년 20개 교 이상 설립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사

립학교 설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1908년에는 무려 85개 교에 달하였다. 『사립학교령』의 시행으로 많은 학교가 통·폐합된 1910년 7월 1일 현재 경기도 내 학교 수는 각종학교 139개, 종교학교 44개교 등 183개 교에 달하였다.⁵⁾

성남(당시 광주군, 이하 광주로 칭함) 지역의 경우에도 1901년 광주공립소학교(1908년 광주보통학교로 바뀜)가 설립되었다.⁶⁾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이에 계몽운동가들은 사립학교를 통해 시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근대교육의 보급에 노력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였다.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경우 1899년 온천리에 최정섭, 유진기, 한현우 등에 의해 시흥소학교가 설립되어 약 45명의 학생들에게 역사·지리·산술·심상소학 등을 가르쳤다.⁷⁾ 그리고 1900년에 유진기, 이운진의 주도로 광주소학교가 설립되어 한문·역사·지리·산술·제조 등을 교수하였다.⁸⁾ 같은 해 광주군 퇴촌면에서도 안경돈에 의해 사립소학교가 설립되었다.⁹⁾

광주지역에서도 을사조약을 계기로 근대교육은 발흥하는 계기를 맞았다. 즉 각종 자강단체의 지회 조직과 함께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유지들은 사립학교 설립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광주군 정안면에 한산학교,¹⁰⁾ 광흥학교·광진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1907년에 들어서도 염곡사숙¹¹⁾, 1908년에 수서학교·광신학교·명륜학교·광언학교·계전학교·광통학교·광서학교·광흥학교, 1910년 광덕학교 등이 설립되는 등 흥학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한말 광주지역의 근대교육의 특성은 그 지역 군수가 주도하였다

5) 김장기, 『韓末 私立學校의 教育理念과 教育救國運動』, 『일제사학』 1, 1984, 74-75쪽.

6) 『광성신문』, 1901년 3월 28일자; 1902년 6월 24일자; 1904년 4월 15일자.

7) 『광성신문』, 1899년 1월 1일자; 1월 25일자; 6월 13일자; 11월 15일자; 1900년 1월 24일자, 6월 16일자, 1901년 2월 15일자.

8) 『광성신문』, 1900년 5월 29일자; 10월 27일자.

9) 『광성신문』, 1900년 1월 25일자.

10)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1일자.

11)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4일자 및 4월 6일자.

는 점이다. 광주군은 일찍이 군수 오태영과 유지 유진형의 열성으로 흥학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림들의 저항도 반반치 않았다.¹²⁾ 광주군수 오태영은 사립광달학교를 보조하기 위해 폐호에 정초 2두석을 강제로 할당하였다.¹³⁾ 광주군의 일부 유력자들은 주민을 선동하여 학교설립을 방해하는 한편 조력자들을 협박하기에 이르렀다.¹⁴⁾ 이때 지회원 郭允煥·元性範은 수서학교의 임원으로 全完一·朴壽汝 등과 학교 부근의 용덕사(龍德寺)에서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입학권을 권유하는 등 교육보급에 전력을 다하였다.¹⁵⁾

한편,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와는 달리 私設 講習會·講習所 등에서 주로 야간에 실시한 야학교육도 실시되었다.¹⁶⁾ 여러 사회 단체들이 민중과 그들의 자제를 대상으로 문맹퇴치를 위해 시행한 교육을 의미한다. 명칭은 피교육자에 따라 노동·농민·여성(부인·여자)·정원(衡平·無産兒童·樵童)야학 등 매우 다양하지만, 노동·농민·여자야학이 가장 많았다. 교육 목표는 문자 습득과 해독을 통한 개인의 실력양성으로, 이는 자강운동과 실력양성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기도 하다.

광주군에서는 鄭允夏·南一祐 등이 1908년 초동야학교를 설립하여 80여 명을 모집·교수하는 등 이에 부응하기에 이르렀다.¹⁷⁾ 또한 오폐면 양촌리에 거주하는 지회원 柳堯永은 黃顯在 등과 초동야

12) 『광성신문』 1906년 11월 27일자 『廣州學校紀略』; 『대한민보』 1910년 2월 27일자 『廣濟義塾』.

13) 『대한민보』 1910년 2월 27일자 『廣濟義塾』.

14) 『민세보』 1906년 11월 27일자 『田畵教育』.

15) 『광성신문』 1908년 5월 30일자 『本邑運動』.

16) 야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姜東謙, 『日帝支配下の 勞動夜學』, 『歷史學報』 45, 1970.

盧榮澤, 『日帝下の 女子夜學』, 『史學』 9, 단국대, 1975.

趙東光, 『朝鮮農民社會의 農民運動과 農民夜學』, 『한국사상』 16, 한국사상연구회, 1978 『韓國民族主義의 發展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3에 재수록.

金樹鎭, 『1910년 前後 夜學運動의 實施과 機能』, 중앙대박사학위논문, 2001.

17) 『광성신문』 1908년 5월 22일자 『夜學發展』.

학을 설립하여 開進學校라 명명하였다.¹⁸⁾ 교장은 군수인 吳泰永, 부교장은 黃義明, 교감은 黃任永, 학감은 柳根永 등이었다. 교과목은 국문·한문·산술·본국역사·본국지리 등으로 학생 수는 40여 명에 달하였다.¹⁹⁾ 이들의 노력으로 광주군 일대에 교육열이 고조되어 나갔다. 또한 광주군에 사는 최종섭은 대한협회 직회관에 노동야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교사로서 활동하였다. 그의 열성적인 교수로 학생이 무려 130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이는 당시 주요한 사립학교의 정원과 견주어 조금도 손색없는 규모이었다.²⁰⁾

또한 광주군 중대면 송파의 광성학교는²¹⁾ 주야학을 겸설한 대표적인 사립학교이다. 그렇지만 계몽론자들은 교육구국운동 초기에 사립학교 설립운동에 치중하였으나, 노력과는 달리 초기에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²²⁾ 즉 신학문은 일본어나 산술 등을 조금 알면 마치 학문에 정통한 것처럼 행세하는 분위기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3. 일제하 성남지역의 교육운동과 여성

일제하에 들어 광주지역의 여성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는 3·1운동이었다.²³⁾ 광주지역의 3·1운동은 3월 25일 중대면 송파리 일대

18) 『大韓每日申報』 1908년 8월 25일자 『桃童夜校』.

19)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25일자 『초동야학』.

20) 『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30일자 『괴역열선』.

21) 기호흥학회, 『學界叢刊』 敎育有入, 『畿湖興學會刊報』 11, 1909, 50쪽(한국학문헌연구소, 『畿湖興學會刊報』 下, 아세아문화사, 1976, 324쪽 所收).

22) 『광성신문』 1908년 9월 15일자 『勸告各地方私立學校』: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3일자 『학교는 몇색도 교수가 없는 혼란』.

23) 일제하 성남지역 여성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주로 참조하였다. 권화숙, 『제방이진 성남지역 한국 여성사』, 『實學思想研究』 제23집, 母學實學會, 2002.

의 만세 시위운동을 시작으로 27-8일 양일간에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4월 6일 신흠면의 만세운동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²⁴⁾ 광주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만세시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개항 이후 근대적 학교, 우편관서, 도로 등 근대적 시설 별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지역의 3·1운동은 그 자체는 치열하고도 집요하게 전개된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성남지역에서의 3·1운동은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3월 26일 송파지역에서 300여 명이 첫 번째 시위를 하고, 27일 중부면에서 새벽 남한산에서 횃불을 밝히고 이를 신호로 단대리·탄리·수전리의 주민 300여 명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남한산성 남문에 집결하여 만세를 부르고 산성 안으로 진입하여 시위운동을 벌인 후, 다시 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일제에 협력한 중부면장에게 항의하였다.

또한 돌마면에서는 한순회·한백봉 등이 주도하여 태극기를 비밀리에 제작하고 운동자금을 모아 3월 27일 읍동 주민 50여 명을 이끌고 뒷산에 올라가 봉화로 시위를 알렸다. 그리고 다음날 분당리 장터에서 군중들이 운집하자 한백봉이 만세시위를 주창하여 본격적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고, 면내를 순회하면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시위 군중들은 오후에 낙생면 소재지인 판교리에 도착하여, 백현리·운종리·궁내리 주민들과 연합하여 만세시위를 하였다. 이때 시위운동에 참여한 낙생면과 돌마면 군중이 1,0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대왕면에서도 송파지역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바 있는 이시종이 『조선독립신문』의 독립에 관한 기사를 들고 수서리로 돌아와 동리 주민 100여 명을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성남지역도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3·1운동 과정에서 여성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3·1운동은 그 과정에서 민족의식을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의식을 성장할 수 있게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3·1운동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볼 때, 이념적으

24)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425쪽.

로나 노선적으로 분화되며 다양화되기 시작하였고,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청년운동·노동운동·농민운동 등의 대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광주지방에서는 다른 지방보다 늦게 청년운동 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 1921년에 광주청년구락부가, 1922년에 광주YM윙청년회가 각각 조직되었다.

3·1운동 이후 변화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여성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3·1운동 이전에는 교육기관의 미비 등으로 체계적인 여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1910년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교육행정의 기본이 된 것은 1911년에 제정된 조선교육령이다. 조선교육령 제15조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써 부덕(婦德)을 기르고 국민된 성격을 도야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식민지 통치와 지배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뿐이었다. 또한 일제는 공립보통학교 증설인 ‘일면일교제’를 주장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선언적인 구호에 불과할 뿐이었다. 일제 패망 때까지 ‘1면1교제’는 사실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열 상승에 따른 입학난은 여자야학을 통해 부분적이거나 해결할 수 있었다.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정치와 더불어 합법적인 문화운동이 주장되면서 ‘개조’라는 개념이 사회를 풍미하였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 개조는 교육을 통한 방법이 지름길이라고 주장되었다.²⁵⁾ 동경 여자 유학생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잡지 『女子界』는 여성의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는 선봉에 서서 활약하였다. 『여성계』에 실린 『女子教育論』이라는 글에서,

여자교육이라고 하면 한 특수한 것이요 보통교육과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잘못이외다. 이런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배

25) 『동아일보』 1920년 4월 2-7일자 『世界改造의 綱領을 當하여 朝鮮의 民族運動을 論하라』, 『세일신보』 1920년 4월 17일자 『改造의 本堂』, 1922년 6월 6일자 『婦人改造問題』, 1922년 8월 10일자 『社會改造의 策論』, 1923년 3월 27일-4월 1일자 『婦人改造와 人權問題』.

곧 여자교육은 그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교육목적도 달할 수 없을 것이외다. 교육의 근본의의를 극히 간단하게 말하면 ‘幼少者의 開發’이니 그 幼少者가 男兒요 女兒됨에 따라 그 理想이 다를 理가 없을 것이오, 여자는 남자와 같이 人性을 具備하였고 天稟의 능력이 있으나 나서부터 완전치는 못하니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할 것이외다. 그리하여 그들도 사회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生存을 보존케하며 사람의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외다. 사람을 만든다는 뜻은 무의미하고 철저히 못한 소위 賢母良妻라는 기계를 만들지 말고 독립한 人格을 양성하여 사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人道를 위하여 有用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외다.

또한 3·1운동 이후 각지의 청년회와 여성단체가 군이나 면 단위로 결성되기에 이르렀고, 이 단체는 문맹퇴치를 주요 실천사항으로 결의하는 한편 실천에 옮겼다. 더욱이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부인전도대·여성찬양대·여자청년회 등의 조직과 더불어 개조를 위한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시켰다.²⁶⁾ 이에 따라 교육열은 다시 증폭되는 계기를 맞았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문화운동으로 확산된 이른바 ‘신여성’들은 사회개조와 더불어 가정 개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아울러 직업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로 여성에 대한 인식은 많은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곧 여성교육의 광범한 시행을 요구하지만, 식민지 체제의 수탈로 난관에 직면하고 말았다. 반면 여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는 추세였다. 특히 문화운동의 전면적인 확산은 각종 여성단체 결성을 촉진시켰다. 조선여자교육회 결성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가능할 수 있었다. 회장 금미리사를 비롯하

26)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된 여성단체는 개신교와 천도교 계통이 많았는데, 특히 개신교의 교회명칭을 사용한 웨셋여자청년회는 700여 단체에 달할 정도로 전국적인 양상이었다. 단체의 결성 목적은 진도사업을 통한 교육확장이었지만, 고리 강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여성교육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1920년대 전반기 여자야학은 기독교의 단체에서 주도하였다.

여 서울에 거주하는 여교사·간호사 등 전문직종 여성들이 회원이었다. 이 단체는 종교예배당 안에 여자야학회를 설립한 후 한국어·산술·습자·읽어·도화 등을 교수하며, 각 여학교 선생인 간부 10여 명은 명예교수로서 자원하고 나섰다. 교수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2시간으로 월·화·목·금요일이었다. 토요일에는 음악회와 풍속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교육 보급에 노력하였다. 농한기에는 순회강연단을 조직한 후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여자교육의 시급한 시행을 제창하고 나섰다. 각지에 조직된 여자교육회도 강습소나 여자야학 설립·운영의 중심단체였다.

1920년대는 실력양성론에 입각하여 문맹퇴치와 더불어 교육·문화운동은 민족운동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여성교육은 남녀차별의 강고한 인식 타파와 여성교육 보급에 중요한 밑거름이었다. 여성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변화는 근대교육 보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나아가 여성단체 조직과 활성화는 여자교육을 통한 여성 자각으로 가능하였다. 1920년대 이후 정치·경제·교육·사회 등 각 방면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자신의 지위향상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면서 여성교육의 길도 넓어져 갔다. 1920년의 경우 공립보통학교 학생수의 남녀비율은 약 5:1, 사립학교 학생수가 3.7:1 이었다. 그러나 1930년에는 공립보통학생의 비가 5:1, 사립보통생이 2:1이었다. 이처럼 1920년대 말기에 이르면 여성교육이 보편화된다.

이런 가운데 1920년대 초반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광주공립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이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21년 8월 4학년생 황추호가 학교공부를 마치고 교실 출입구를 나설 때, 마침 그의 연필이 교실 마루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이를 찾으려고 허리를 구부렸다. 이때 여자부 교실을 신축하고 있던 일본인 목수 히구치(樋口與市)가 일본말로 욕을 하며 기왓장과 망치로 사정없이 구타한 후 실선시켰다. 이에 격분한 4학년 학생들이 목수 주위로 모이자 그가 다시 삼을 휘둘러 학생들에게 부상을 입혔

다. 그러나 일제경찰은 부상을 입힌 목수를 훈계 방면하였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일본인 목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에 8월 30, 31일 학부형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선후책을 강구하여 다시 일본인 목수를 고소하여 재수감 시킴으로써 사건이 무마되었다.²⁷⁾

1920년대 중반까지 성남지역은 광주중앙청년회, 송파광주청년회, 광명청년회, 진흥청년회, 노동공제회, 『조선일보』·『중의일보』·『조선농민사』 지국 등 8개의 사회운동 단체들이 지역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1920년대 중후반에 들어 민족운동은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협동전선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족유일당으로서 신간회가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신간회 지회가 설립되었는데, 1927년 8월 송파청년회의 주도로 신간회 광주지회가 설립되었다. 지회장은 한순회가 선임되었고, 간사로는 한백봉·한백호·이대현·유인목·박기환·한용희 등 돌마지역 인사들이 중심을 이루었다.²⁸⁾

1930년대 대중운동의 혁명적 진출과 함께 성남지역에도 대중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 광주군 중부면에서는 석계환, 정명배, 김홍중, 구본홍, 구자홍, 구창서, 이경재 등이 남한산노동공제회를 조직하여 광주지역의 노동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사회주의를 선전하였다. 이 조직은 그후 광주공동조합으로 활동하다가, 1934년 12월 광주공산당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사회주의운동도 일어났다.²⁹⁾

• 성남지역 자료 설명

성남지역은 한말·일제하 대부분이 광주군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군 관련자료가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 여성과 민족운동에

2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729-730쪽.

28)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531쪽.

2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621쪽.

관련하여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한말 여성 및 교육 관련자료는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 게재된 것을 현대문으로 풀어서 수록하였다. 그리고 일제하에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당시 광주지역의 민족운동과 교육관련 자료 가운데 주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이런 관계로 광주 지역 중심의 자료가 발췌되었고 현재 성남지역이 분명한 곳은 성남으로 명기하였기 때문에 지명이 혼용되어 정리되었음을 밝혀둔다.

4. 일제하 성남지역 여성교육에 관한 자료

- ▶ 『독립신문』에 나타난 성남지역 교육
- ▶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성남지역 학교
- ▶ 『황성신문』에 나타난 성남지역 사립학교
- ▶ 『기호총학원보』에 나타난 성남지역 사립학교
- ▶ 1920년대 성남지역과 교육기관의 동향
- ▶ 『독립신문』에 나타난 성남지역 교육

▶ 『독립신문』에 나타난 성남지역 교육

『독립신문』 1897년 7월 20일자, <잡보>

경기 광주 탑동 사는 용소사가 작년에 남편을 잃었는데 용소사의 죽은 남편의 사촌들이 용소사의 전장 문권을 위조하여 전 판서 홍순협에게 방대한 까닭에 한성재판소에 소지하였다고 편지가 오다.

『독립신문』 1897년 9월 7일자, <잡보>

경기 광주 사는 용소사가 지난해 남편을 잃고 전토로 10여 명 식구가 살더니 시사촌 이두하가 위조 문서하여 이장진에게 전답을 넘기려 하니 용소사가 본군과 본관찰부와 한성재판소에 정소, 이장진이 송사에 졌는데, 다시 작당하여 전답을 뺏으려 하기에 다시 한성재판소에 정소하였더니 이번에는 판결도 하지 않고 본군과 관찰부에 정소한 물건도 내지지 않으니 억울하다고 편지하다.

『독립신문』 1899년 5월 25일자, <잡보>

홍영식과 형제인 홍만식의 딸이 10여세 때 고 보국 조영하의 아들 권 협관 조동윤과 혼인하였는데 합례도 하기 전 홍영식 때문에 조씨 집에서 쫓겨나 진정한 경기 광주 땅에서 30세가 되도록 죄인을 자처하며 머리도 빗지 않고 좋은 옷도 입지 않는다는 애절한 사면을 년전에 게재했거니와 지금 들으니 조씨 문중에서 생각을 바꿔 홍부인을 맞이하여 부인으로 삼는다고 하다.

▶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18일자, <잡보>

광주부윤 吳泰泳은 時務에 뜻을 두고 경내에 두 학교를 세웠다 한다. 城中에는 廣興學校를 세워 80원을 돕고, 慶北面에는 廣○學校를 세워 40원을 도우니 유지인사들도 서로 보조하여 학교가 크게 일어나고, 이 학교 교사 尹秉哲은 사범학교 7회 졸업생으로 공립학교에 있다가 이번에 사립학교로 와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니 실로

稱頌할 만한 일이라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31일자, <잡보>

광주부윤 吳泰泳이 學部에 보고하기를 지역 내에 학교를 세웠는데, 校舍를 새로 지을 길이 없으니 前 留營時 營府廳을 빌려주기 바란다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16일자, <잡보>

광주부윤 吳泰泳이 4월에 廣興私立學校를 설립하였는데, 학도가 60여 명에 달하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17일자, <광고>

광주부윤 吳泰泳이 府內 여러 紳士들과 협동·발기하여 금년 4월 前 營庫에 사립 廣興學校를 설립하고 교사 權泰珩을 延聘하여 교
에 전념하며 학생이 60여 명에 이른 데 대해 부윤과 교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널리 이를 알리는 바임[廣州府 朴正寅·朴在亨·李東鉉·金龍翰·龍한采·李舜永·朴古鉉 등 告白]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21일자, <잡보>

광주부윤 吳泰泳이 府內 여러 有志紳士들과 협의하여 학교를 세운 일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다시 들은즉 廣興學校의 就緒가 반듯하고 부윤의 勸奨과 교사의 진심된 교육으로 학생이 날로 증가하여 60여 명에 이르니 境內 인민들이 이를 매우 칭송한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24일자, <잡보>

광주부 廣興學校의 번창함은 이미 누차 게재하였거니와 敎師 權泰珪의 열심교육으로 학업이 매우 발전하였는데, 권교사가 급한 불일로 上京하자 학생들이 권교사가 없으면 학교가 廢止될 것이라 걱정하여 모두 상경하여 함께 왔다고 한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23일자, <잡보>

광주부 慶安面 대봉산 아래 있는 漢山學校[吳泰泳]는 有志紳士들이 발기하여 세운 것으로 음력 7월 7일 내의 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거행하였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11월 25일자, <잡보>

광주부윤 吳泰泳이 4곳에 학교를 세웠는데, 네 번째 학교는 東部面에 세우고자 하였으나 이곳은 땅이 척박하고 사람들이 가난하여 걱정하던 중 각 촌의 長老 등이 모여 貧·富戶를 구분하여 租稅를 고르게 나누어 청년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여 부윤이 학교에 출석하여 먼저 학교 수리비 3,000金을 보조하고 廣明學校라고 칭하고 任員을 선택하여 사무를 맡게 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이 京城에도 전해져 學部와 地方局長 俞星濬과 前主事 俞謙衡 등이 학교가 세워짐을 칭찬하였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12월 1일자, <잡보>

광주부윤 吳泰泳이 廣明學校를 세워 교육을 진흥시키고자 함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광주군 亂流董 尹在政 등이 天主學을 傳敎한

다고 하면서 학교 임원 河大龍의 집에 들어가 집에 불을 지르고, 學監 朴憲秉과 敎師 李鳳來·李鳳三을 수없이 亂打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군수가 部部에 이러한 일을 알렸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12월 16일자, <잡보>

광주부윤 吳泰泳이 學部에 보고 : 지난번 광주군 廣明學校에서 개학하고 제정을 措劃할 때 下山谷 執綱 俞哲溶이 愚民을 데리고 와서 교사와 임원을 구타한 일은 이미 보고하였거니와 여러 날이 지나도록 어찌하라는 指諭이 없어 지금 학교가 성립할 수 없어 이에 다시 보고하니 잘 살핀 후 광흥학교를 성립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즉시 처분해 주기 바란다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1월 22일자, <잡보>

광주부윤 吳泰泳이 학교에 捐助함을 憑藉하고 때 戶에 쌀 1두씩 排斂하려다가 郡民이 모여들어 民擾가 일어날 듯하자 없던 것으로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일자, <잡보>

광주군 松波津에 運輸營業者들이 근래 기독교를 믿게 되어 開進 思想이 크게 일어나 회사를 조직하고, 捐金을 모아 학교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그 뜻에 감도하여 저마다 자금을 이끌고 학교에 가도록 하며, 校舍를 준비하는 데에도 有志 諸民이 각자 연보한 금액이 수천원이 되어 군수 吳泰泳이 贊成金 300원을 보조하면서 興學之心을 장려하였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5일자, <잡보>

광주군 儀谷面 아래 淸溪에 사는 沈召史가 10년 동안 홀로 守節하다가 뜻하지 않게 지난달 11일 밤에 광주군에 사는 金致敬이란 사람이 무죄배 수십 명을 데리고 집으로 쳐들어와 심소사를 묶어 데려갔는데, 심소사가 그 날밤으로 도망쳐 나오다가 도중에서 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죽고 말아 原犯 김씨는 수원관찰도에 押上하여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7일자, <잡보>

광주군 細村面 金光里에 사는 金致良이 수년 동안 혼자 살다가 수십일 전에 인근 동네에 과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수십 명을 데리고 과부 집에 가서 데려왔으나, 그 과부가 다음날 밤에 도망치다가 결국 길에서 죽었다는 기사는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광주군 警務分派所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原犯 김씨는 驪州郡 本署로 押送하고, 나머지 패거리들을 체포할 때 巡檢이 洞中에서 7,900냥과 1,000냥을 뇌물로 받았는데, 동네 民人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군수에게 呈訴하여 군수는 일본 巡査部長과 교섭하여 사실을 밝혀보니 김명일은 16원, 나머지 3명은 13원 45전, 金容培는 6원을 나누어 먹은지라 이들을 붙잡아 곧바로 本署로 보낼 것이라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10일자, <잡보>

광주군 中岱面 松波 廣成學校 취지설. 副校長 李鳳誼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15일자, <잡보>

광주군 松波 有志人士들이 작년 봄 廣成學校를 설립한 이래 교육

에 열심히 전념하여 학생이 60여 명에 이르며, 기말시험을 치른 후에는 상품을 나누어 주며 학업을 장려했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1일자, <잡보>

광주군 石村에 사는 전 主事 배성환이 國債報償期成會를 창립한 徐相敦에게 감사하면서 일제히 斷煙하기로 약속하고, 義金은 家券대로 낼 것이며, 학교를 세워 事務에 열심히 전념하면서 매일 演說場에 나가 우리 함께 동맹한 사람들은 모두 開明進歩하여 大韓을 다시 興復하도록 권고한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1일자, <잡보>

광주군 五浦面 屯里에 사는 朴鶴浩가 작년 봄 宋達顯·安泰元 등이 慶安面에 漢山學校를 세운 후 郡守가 祖父에게 도움을 청하여 當錢 1,000냥을 보조하였으나 송씨가 무슨 이유에선지 이를 받지 않고 父親을 붙잡아다가 100원만 보조하라기에 不應하였더니, 12월에는 광주군에 舉訴하여 본인을 잡아가게 하여 7-8일 만에 겨우 풀려났는데, 또다시 거소하여 부친을 붙잡아 갔으니 도대체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이렇듯 빛을 받는 것처럼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억울하다고 法部에 청원하자, 법부에서 이를 불법으로 인정하여 광주군에 엄히 다스리도록 하였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1일자, <잡보>

광주군 宮村 공립 水西學校는 교장 李龍鍾이 학교를 세운 지 7-8년 동안 재산의 반을 털어 보조하고, 郡內 각 학교에도 적극 贊助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매일 曉諭한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3일자, <참보>

광주군 廣興學校 任員 宣永淳이 郡守 吳泰泳에게 府內 350호의 家勢에 따라 敎育界에 연조할 방침을 실시할 것을 獻議함에 따라 諸任員들이 협찬할 것을 결의하고 境內 각 학교와 아직 학교가 없는 곳까지 차례로 이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19일자, <참보>

광주군 사립 廣興學校(郡守 吳泰泳)에서 지난 10일 乾元節 경축식 이후 제1회 졸업식이 있었는데, 우등생에는 石松燦 등 15명, 전급생은 朴稚殷 등 7명이라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26일자, <참보>

광주군 사립 廣興學校 일반 임원이 郡內 낮에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해 夜學科를 설치하고, 지난 16일 개학하여 學力에 따라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을 가져 벌써 3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8일자, <참보>

지난 10일 광주군 사립 廣興學校 안에 설립한 樵童夜學校의 졸업식이 있었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0일자, <참보>

광주군 慶安面 德谷에 牧童學校를 세우고 樵童 32명을 모집하여 國文·漢文·算術과 啓蒙編 등을 가르치는데, 漢山學校에서도 별

도로 학교를 세워 목동 수십 명을 모아 개학하였고, 前校里에서는 34명을 모집하였고, 驛村에서도 43명을 모아 목동학교를 세웠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0일자, <잡보>

광주군 慶安面 胎峰 漢山學校는 설립된 지 수년만인 작년에 義擧를 겪은 후 폐교된 지경이었는데, 올해 2월 尹秉哲·尹호鉉 교사를 延聘한 이후 교육에 전념하여 학생이 8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2일자, <잡보>

광주군 水西學校는 교감 李胤鍾 이하 임원들의 노력으로 크게 발전하더니 지난 11일 봄 운동회 때 부근 士女들이 참석한 후 자제들을 적극 입학시켰는데, 이로 인해 校舍가 비좁아 현재 增築을 협의 중이라고 하다. (같은 기사, 『황성신문』 1908년 5월 20일)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7일자, <잡보>

광주 草月面 酸梨洞에 사는 學者 金宗洙가 伊藤博文의 周旋으로 明倫學校를 세웠는데, 앞으로 13도 각 군에 頑固黨을 중심으로 병립학교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다. (같은 기사, 『황성신문』 1908년 5월 27일자)

『황성신문』 1908년 5월 27일자, <잡보>

광주 草月面 酸梨洞 사는 金宗洙씨는 明倫學校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9일자, <잡보>

지난 12일 演武館에서 광주군 廣興學校가 境內 廣成·水西·漢山·廣陵·光明學校 등을 초청하여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9일자, <잡보>

광주군 慶安面 胎峰 漢山學校는 유지신사 安泰遠 등이 漢山學校를 세우고 교육에 전념해 왔는데, 현재 학생이 13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5일자, <잡보>

광주군 彦州面 廉谷 廣彦學校가 曹翰承 등의 출자로 지난 5월 설립하여 주야 학생 90명을 모집하고 열심히 교육하는데, 학교 재정이 부족하여 유지하기 곤란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적극 보조한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9일자, <잡보>

광주군 성내 廣興學校에서 지난 하기시험을 치르고 우등생에게 공책과 筆墨을 시상을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9일자, <잡보>

광주군 廣彦學校에서 하기시험을 치르고 우등생에게 상품을 수여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6월 4일자, <학계>

광주군 中垵面 松波 사립 廣成學校는 설립한 지 4-5년에 교세가
영세하더니 교사 金昌鎰이 열심히 교육하여 가난한 학생에 학비를
지원해 주고 樵夫牧童이라도 극진히 가르쳐 주어 학생이 수백여 명
에 달한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6월 30일자, <학계>

광주군수 吳泰泳이 재임 4년째로 교육에 열심이어서 군내에 설립
한 학교가 10곳인데, 그 중 관아 근처에 있는 廣興學校는 군수가 더
욱 장려하는 곳으로, 학교 임원과 학도들의 청송이 자작하더니 본
월 4일 창립기념일에 학도 150명이 군수에게 감사하는 기념 銀盃를
올렸다고 하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8일자, <잡보>

광주군 사립 廣興學校에서 금번 하기사험에 제3회 졸업식을 겸하
여 실시하다. 졸업생 명단.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6일자, <학계>

경기도 광주군 사립 廣西學校는 재정이 곤궁하여 폐교 직정에 이
르렀는데, 군수 吳泰泳이 마을을 순행하며 교육의 급무됨을 열심히
장려하자 군내 신사 石瓊煥·石世煥·李浩慶 등이 다수 보조하고
열심 찬조함으로 학교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하다.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3일자, <학보>

광주군 城內 사립 廣興學校에서 지난 2일에 보통과 제4회 졸업증서 수여식과 보습과 제2회 수업증서 수여식을 함께 거행하다.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20일자, <광고>

광주군 中岱面 松波 사립 廣成學校 기부자 명단.

▶ 『황성신문』에 나타난 성남지역 사립학교

『황성신문』 1899년 6월 13일자, <잡보>

광주 溫泉 사립소학교에서 학도 崔瓊禧 등 5명을 선정하여 부윤 韓麟鎬를 집견하고 본 학교 교장직을 맡아 달라고 청원하였는데, 부윤이 정중히 사양하고 학업에 근면하기를 권고했다 한다.

『황성신문』 1900년 6월 16일자, <잡보>

광주 溫泉 時興학교에서 본월 12일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낙성식 거행하다.

『황성신문』 1901년 2월 15일자, <잡보>

광주 溫泉 사립학교에서 冬期 시험을 실시하여 우등생을 선발하였는데, 우등은 3학년 朴載仁, 崔宅喜이고, 2학년은 崔壽慶, 元興善, 李聖昌, 韓壽益 등이라 한다.

『황성신문』 1902년 1월 25일자, <잡보>

광주군 회촌면 사는 安景敦이 재산을 모아 사립소학교를 설립하고 학도 수십 명을 모아 교육하는데, 學部에서 시험으로 선발한 安敦行을 교사로 임명하자 安景敦이 스스로 교사를 칭하고 학부에 다시 보고하자, 그 학교 유생 李殷植이 이를 조사해 달라고 학부에 청원하다.

▶ 『기호총학월보』에 나타난 성남지역 사립학교

『기호총학월보』 제1호, 1908년 8월, <本會記事>

書記가 廣州支會 請願書를 報告하니 勸諭를 停止하고 支會를 認許하다.

『기호총학월보』 제2호, 1908년 9월, <本會記事>

廣州郡 會長 李崙鍾, 副會長 安燦, 總務 石璣煥, 會計員 趙成俊 李東鉉, 書記員 金敦悅 金顯承, 評議員 宣永淳 金炳洙 朴齊駿 任麟宰 全昌鎭 具滋鳳 宣永參 劉興烈 李秉秀 李勳鍾 李秉懿 安泰遠 南大熙 鄭煥教, 教育部長 康元達, 財政部長 石璣煥, 幹事員 石東煥 許欽 李鳳夏 金俊賢 李淳永 尹時勳 金 翼 龍漢彩 李龍植 宋南顯

『기호총학월보』 제7호, 1909년 2월, <學界叢聞>

△ 落淚挽執 廣州郡 私立廣興學校教師 康元達氏는 風雨를 不避하고 誠心教授함으로 學徒가 一百五十名에 達한지라. 其 教授에 熱熱

과 檢束의 嚴格함을 莫不感服하는데 該氏는 其 故郷 順川郡 學校의 教育키 爲하여 該校敎師를 請願하였더니 該校 一班任員 及 學生이 落淚挽執함으로 誠心을 慰慰하여 繼續敎授하다더라.

『기호흥학월보』 제11호, 1909년 6월, <學界叢聞>

敎師有人 廣州郡 中佐面 松坡 廣成學校를 設立된지 四五年에 校況이 零星하다니 敎師 金昌鎭氏가 敎育에 熱心하여 學生中 赤貧者를 書冊等 雜費를 自擔辦給하고 樵夫牧童이라도 盡力勸勉하여 晝夜學生이 數百餘名에 達하였다더라.

▶ 1920년대 성남지역과 교육기관의 동향

『京畿道內學校廢設』 『동아일보』 1921년 5월 20일자, 2면.

보통학교 修業年限 延長實施에 件하여 경기도 가평, 양평, 여주, 양지(현 용인군), 강화, 남양(수원군) 六個 簡易實業學校는 今回 廢止되고, 又 漢江公立普通學校(고양군), 廣州公立尋常小學校는 設置의 件을 認可하였더라.

『明德講習所好績』 『동아일보』 1922년 5월 26일자, 4면.

광주군 都尺面 梅井里 거주 趙敦九씨는 該面內에 敎育機關이 無하여 青年의 양성치 못함을 慨歎하여 自己家에 明德講習所를 設립하고 校長은 該面長 申政均씨로 敎監은 李夏載씨로 추천 후 敎사는 자기 외 安許鎬씨를 選定하여 청년을 양성 敎育하는바 設립한 幾個月이 못 되어 生徒가 100명 이상에 達하고 성적이 頗好하여 正

내 土民이 無不稱道한다더라(광주).

『廣州私立廣成校狀況』, 『동아일보』 1923년 6월 28일자, 4면.

광주군 松坡私立廣成學校는 距今 16년 전에 有志 諸氏의 발기로 설립되어 이래 다수 英才를 培養하여 왔으나, 원래 基本金이 別無하여 금일에 至하기까지 其 經費의 곤란이 曷惜함은 該地方 人士의 共認하는 바이라. 그런데 學校當局者側에서는 來 7월 1일 當地에 부근 老少諸氏가 會集하여 詩書會를 개회케 됨을 기회로 일반인사에게 同校의 事情을 陳述하는 동시에 많은 同情을 求하리라는 바 該校 현재 학생은 약 200명이라더라(광주).

『特志와 慈善』, 『동아일보』 1925년 5월 3일자, 3면.

廣州郡 彦州面 押陽亭里 全尙淳氏는 10여 년 전부터 無産兒童을 위하여 夜學部를 설립하고, 교과서와 학용품까지 주어 공부시킬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빈한하여 娶妻치 못하는 남녀에게 婚費를 보조하여 成娶케 하는 일과 洞里 黃氏의 戶稅는 전부 蠲免하여 줌으로 其 洞里 일반은 稱頌이 藉藉하다고.

『면면느리 殺害, 절없이 굶다』, 『동아일보』 1926년 9월 18일자, 2면.

광주군 퇴촌면 亭子里 咸基興의 처 金先順(49)은 작년 12월경에 동면 二石里 金守千의 장녀 간란(干蘭)이란 7살된 계집아이를 자기의 둘째 아들 咸古順(14)의 장래 妻로 정한 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기르던 중 지난 9일 오전 7시경 전기 간란이가 자고 일어나서 변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손도 씻지 아니하고 김치 독에 손을 넣어 김치를 건져 먹는 것을 보고 장래 주부될 사람이 그와 같은 짓을

한다고 분하게 생각하여 김간판을 번쩍 들어 자기집 안방에서 마당까지 던진 결과 간판은 즉시 뇌출혈을 일으켜 4시간 후에 죽어버렸음으로 김선순은 즉시 광주서에 잡히어 엄중한 취조를 받다가 지난 15일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압송되었다 한다.

『蓬萊探訪』山住水麗한 百濟의 古都, 四面으로 山岳이 重疊(1)(廣州一記者), 『동아일보』 1927년 6월 29일자, 4면.

광주의 春의 杜鵑夏의 綠陰秋의 紅葉冬의 白雪 이와 같은 佳景은 世人이 熟知하는 바이다. 고래로 南花欄北丹楓의 淸송까지 있고, 특히 南漢山城의 춘경 그 아름다운 萬花芳草는 이름이 높아 보고 들은 사람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다. 青天白日에 그 고달픈 몸을 일으켜 中天에 聳立한 西將臺에 올라 敬聖 창경원의 舊宮地를 비롯하여 한강의 인도교 부근으로부터 멀리 동편을 바라보면, 그 巍然한 雄姿는 명료히 眼下에 전개하여 그 胸襟의 爽快함이야 자기로서 자기가 이 仙境에 들지 아니하였나 할 만큼 絕世의 佳景 南漢으로 조선반도의 首府를 이웃하여 역사의 地로 명승의 地로 고적의 地로 유명함은 그 누구나 公認하고 한번 보기 위하여 앞으로 여름날이 다가오면 東으로 西로서 역사의 광주를 찾아 명승의 지평이를 들어 손님이 連絡不絶할 것이다. 과연 우리 광주는 겨금 2천여 년 전 백제의 고도로 옛어린의 자취를 보는 것이 적지아니한 興奮劑가 될 것이다.

◇沿革: 본郡은 百濟 始祖 溫祚王이 馬韓을 滅하고 國을 建하신 지 13년에 南方 慰禮城으로부터(現 충남 천안군) 此地에 遷都하여 河南慰禮城이라 稱하고 百濟文化의 중심지로 一國의 繁榮을 누리다가 近肖古王 2년에 至하여 都를 南平壤城(現 북한산성)에 옮긴 후 唐의 蘇定方이 來하여 百濟를 公略함에 신라는 領차 百濟의 古地를 併하여(신라 진흥왕 14년) 本地에 新州를 두었고, 동 29년에 南川倅(倅은 당시 營을 云함)을 두었다가, 문무왕 4년에 漢城州 又

는 南韓山州라 하고 長城을築하여 都督을 두었다가 성덕왕 3년에 大都督府로陞任되고 경덕왕 16년에 漢山州를 漢州라 개칭하였다가 其後 고려 태조 23년에 至하여 비로소 廣州라는 現名이 되고, 성종 2년에 牧使를 두었다가 현종 3년에 이르러 此를廢하고 按察使를 두었다. 그런지 7년 만에 다시 牧使를 置하였다가, 인조 15년 廣州府로陞任하고, 숙종 9년에 留守兼守禦營으로 一國의 重鎮이 되어 내려오던 廣州로 이와 같이 2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一國의 重鎮으로 繁榮이 있었지도 赫赫하든지 當地 小京이라는 稱頌까지 듣게 되었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함에 그 당시 얼마나 豪華로웠던 것은 不言而可知이다. 그러나 現수의 處地를 생각하여 一擲의 눈물을 금치 못하겠다.

◇ 地勢：本郡의 位置는 北緯 37도 34분 東經 126도 58분에 處한 경기도 중앙의 一大郡으로서 廣袤는 東西 30리 南北 9리에 總面積 49方里 81로 지세는 東으로 여주·이천과 接을 맺고, 西로는 수원과 市廳을 이웃하였으며, 南은 용인과 接하고, 北은 漢江斜流로 자연의 境界를 지어 고양·양지 및 양평군 등과 對峙하여 있다. 이같이 된 本郡은 山岳이 多하여 四面雲峰이 重疊包圍하고, 중앙에 日長山이 聳立하여 있고, 東의 武甲山, 西에 淸溪山, 南에 文衡山이 있고, 北에 默丹山 등의 泰山이 있어 본군 전면적에 비하여 실로 6, 7할의 면적을 占하였음으로 경작지는 尠소하여 대부분이 한강유역 및 각 하천 연안에 在하고 기타 산간계곡에 산재하였을 뿐이다.

◇ 交通：교통의 편으로는 京성으로부터 강릉 및 叢북으로 通하는 2등도로가 郡의 南北을 縱貫하여 매일 30여 대의 자동차가 京성으로부터 叢주·제천·여주·이천 등지를 향하여 왕복함으로 이에 至극히 郡民에게 多大한 편의를 도우며, 其外 馬車 人力車 등이 있어 連絡不絶함으로 교통이 날로 빈번하여 가며, 2등 도로 외에 龍仁街道 및 抱川街道의 3등로가 郡內를 縱橫貫通하여 通行에 편리를 돕고 있다. 한강은 我朝鮮 5大江의 一로서 강원도 금강산 支脈의 發源인 北漢江과 강원도 淮陽郡 鐵嶺에 根源을 둔 南漢江이 본군 南

終面 牛川里에서 合流되어 본군 管内 倉隅里 風納・松坡를 거쳐 경성 龍山으로 흐름으로 舟楫의 便이 풍부하여 物資의 대부분이 本江에 의하여 移出入이 됨으로 多大한 便宜를 들고 있다.

◇ 人口：本郡의 總戶數 15,712戶에 83,545人의 人口를 가졌으니, 국별・남녀별을 示하면 如左하다.

國 別	戶 數	人 口	男	女
朝鮮	15,613	83,180	42,684	40,496
日 本	97	357	188	8
中 國	2	8	8	-

『葛淵探訪：山佳水麗한 百濟의 古都, 四面으로 山岳이 重疊(2)(廣州一記者)』, 『동아일보』 1927년 6월 30일자, 4면.

農業=지리상 관계로 농업은 본군 산업의 樞軸되는 자니, 경지면적 196,284反에 대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호수 약 1만 4,024戶에 7만 5,683명으로 1호당 약 1町 4反이다. 소수의 부호를 제외한 외에 대개가 생활의 안정을 得지 못하여 일반 경제 상태는 비참한 지경에 陷하였다. 그러나 황히 인심중속은 순박한 편이다. 그런데 매년 그들의 손을 거쳐 수확된 穀物은 米 7만 2,410석, 粟이 4만 9,943석, 豆類가 2만 7,912석, 粟이 1만 6,855석에 至하고 特産作物로는 棉花 46만 2,998근을 비롯하여 稗麥, 蜀黍, 玉蜀黍, 燕麥, 蕎麥, 大麻, 苳, 胡麻, 莞草, 등의 蔬菜 등 柴物이 다수 산출하는 중 특히 광주 煙草는自古로 유명하여 그 이름이 전국에 聞졌으며 蠶業은 전군 호수에 약 4할을 초과하여 매년 3,500 이상을 蠶立함으로 蠶收穫이 근 2,000석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수리는 광주수리조합이 있으니 차는 한강연안이 동부면 일대에 있는 기름진 토지를 벌써 과거 10개년부터 경향기업자 及 지방유지들을 其 인가를 얻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실패에 돌아가기 수차이다가 지난 을축에 대홍수로 그 悲節慘節

한 사실이 그 당시에도 누누 보도하였거니와 전조선 중 人畜과 기타 모든 피해는 본 동부면에 비할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럼으로 그 지방 피해자들은 주된 창자 등을 부여잡고 부모처자와 가산을 수중에 장사지낸 후 아프고 쓰라린 눈물을 머금고 도로에 방황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에 동정의 눈물을 금치 못한 지방인사들은 재차 수리조합을 기성하여 부르짖는 저 나머지 피해자들을 노동이나 하게 할까 하여 이에 그 면내에 지주와 其 구역 내 대지주인 東亞農場主 方奎煥씨와 타협한 후 당국에 인가를 얻게 되어 그 구역의 3분 1 이상이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 방규환씨로 조합장까지 임명되었다 하니 바라건대 많은 노력을 하던 나머지로 앞으로 동부면을 위하여 조선인을 위하여 팔이 건투하여서 동부면의 많은 복리를 도울지어다.

◇ 水產은 산간별지 장주일지라도 한 줄기의 한강이 흐름으로 인하여 생선이 많이 산출되니 銀口魚 鮰魚 訥魚 鰻가 산출된 외에 鰱魚는 한강 중에도 본군 동부면 관내에 산출이 유명하여 앞으로 가을이 지나고 백운이 풀풀 날아오는 동절이 되면 그 부근에서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앞집 뒷집 할 것 없이 그물을 준비한다. 그 뿐 아니라 멀리 광주·양평 등지에서도 다수 인사가 모여든다. 광주 麵子是 본군 특산물 중의 一로서 全鮮에 그 명성이 떨치고 있다. 麵子是 본군 뿐만 아니라 타군에서도 제조하지만은 유독 본품은 수백년 전부터 其 제조방법에 극력 연구 개량한 결과 품질이 양호함은 사영자 제씨의 채도하는 주문으로 증명되어 남단 濟州로부터 북방 間島까지 수용되어 연 50만 원의 가치를 수출하며 그에 전업자로는 柳炯純·石惠燦씨 외 수인의 합자로 중부면 산성리에 廣州麵子製造組合과 尹昌燦·尹俊燦·石義均씨 외 수인이 합자형 3만 원의 자본금으로 경영하는 동부면 신장리 廣州麵子商會로 건평 24칸에 3층인 대창고를 두고 다대한 노력 중으로 이 앞에 씨 등의 앞길을 빌며 굴치 말고 건투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사업을 뻗기지 않도록 용무할지어다. 양조업은 작년을 기하여 自家用酒 제조를 군당국으로

부터 취소하고 1面 1所의 형식으로 면면마다 양조회사가 있으나 모두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고, 其中 중대면 송파시장 내에 百濟釀造株式會社가 있어 자본금 10만 원에 일동 불입금 2만 5,000원으로 금년에 설립된바, 본래 백제양조합자회사의 후신이라. 광주양조업도 점차 손을 잊어버리지 아니한가 하는 의심도 없지 않다.

◇ 商業 : 본군의 상업은 이렇다고 표현된 바 없고 시장의 市日을 따라 물화의 매매를 볼 뿐으로 시장은 6개 소가 있어 광주상계에 다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其中 송파시장은 가장 저명한 시장으로 전선에 유명하여 畜産의 매매에 명성이 자자하던 바, 의외에 경성부 경영의 동대문 가축시장이 출생하자 시일이 동일인 관계상 또한 조합비 차이의 관계로 다대한 영향을 받아 그만큼 명성이 있고, 권위가 있던 송파시장도 이제야 이르러는 有耶無耶의 鬧市場이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본군에 자고로 유명한 廣州分院 砂器가 있으니 그는 예전에 의지나 교묘하게 제조하였던지 물을 그곳에 담으면 他人이 보기에 물과 그곳을 분간키 어려울 만치 교묘하여 외국에까지 명성이 높던 그 자기로 조선의 문을 따라 그 亦有耶無耶에 돌아가고 말았으니 한탄할 뿐이다.

『巡廻探訪山住水麗한 百濟의 古都, 四面으로 山岳이 重疊(2)(廣州一記者), 『동아일보』 1927년 7월 1일자, 4면.

◇ 金融 : 본군은 경지가 비교적 적은 관계로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고, 더욱 貸企業이 優勢하여 남한산성의 대금업이라면 경기부군에 그 이름 모르들리 만치 자래로 교묘하고 막역하였었다. 現今 역시 경안·송파·분원의 三個 금융조합이 있는 외에, 山城에 北□□組合이 있어 貸金에 汲汲하고 있다. 원래 본군은 산성리에 거대한 부호가 많이 전군이 남한산성에 있어 본군 외라, 경기 교외에 대출하고 있으며 此外에 중부면 산상곡리에 山谷殖産組合을 비롯하여 합자 혹은 개인이 대금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나 일반 농촌에서

農資金を 빌릴 만한 금융기관은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써 본군 농민은 빈약과 싸우다 못해 결국은 연년히 날부여대로 정년 고토를 버리고 북간도나 타지방으로 避難彷徨할 뿐이다.

◇ 林業 : 본군 임업은 山間郡인 만큼 산림면적이 전군에 비하여 6할 이상을 점하여 國有私有 총 5만 158反이 되며, 주민들은 농업보다도 산간의 柴草를 경성 방면에 매출하여 동철의 부업 겸 호구의 策을 얻던바, 그는 고사하고 근간에는 자기집의 枋을 짓는 사초도 마음대로 못하니 국유림의 대부분이 일본인에게 대부된 소유로 下草도 못하게 하여 일반 私有山主 亦漸次 壓迫하여지는 편으로 일반 주민에게 다대한 느낌을 주고 있는바, 원래 국유림을 산하 주민들이 대부하고자 비상한 활동을 하였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하 故住民을 무시하고 일개 일본인에게 대부하여 일반 주민에게 다대한 곤란을 맡게 하니 이 무슨 심사인고, 본군의 수목은 총면적의 약 8, 9할은 조림된 것이라, 주민 目覺下에 이민침탈됨은 매개할 바이라.

사회단체 : 廣州中央青年會는 읍내에 있어 지난 대정 15년(1925)에 설립되어 제도 及 사업의 不備한 점이 不無하나 尙히 앞으로 많이 활동하리라고 한다.

◇ 南漢山俱樂部 : 송파에서서 근 10년간 장구한 역사가 있고, 또한 회원 각자가 사회운동하여 충실함이 많은 중 더욱 제작년 을축 대흥수 당시에는 락이나 일반 구제에 노력하였음으로 일반은 그 감적함을 느낀다 한다.

名勝古蹟

◇ 南漢山城 : 경성을 距하기 동남 5리여 남한산상에 재하여 천연의 요새지로 교통이 극히 불편하였으나, 목하 군당국의 留意로 자동차도로의 관통을計하여 거의 완성에 달하였는바, 殘部分이 山城으로부터 僅히 10數町에 불과하고 기타는 자동차가 개통된 지 已久하여 경성서 중부면 光迪院里를 거쳐 其眞口을 對하기도 약 1시간

여에 도착될 것이다. 그리하여 연년히 여름철이 되면 멀리서 서양 사람의 피서객이 찾아온다 한다. 이 앞으로 더욱더 이곳을 일대 유원지로 개간코자 만반 준비에 분방중이라 하며, 그리고此地는 인조 갑자년에 충음사 完州府院君 李曙를 명하여 溫祚古城을 개축하여 동 병인에 준공하니 內週廻 6,296보요, 外週廻 7,296보로, 門은 4대문이 있어 東은 左翼門(漢淸門), 南은 至和門, 西는 右翼門, 北은 全勝門, 其外 陪門이 16이오, 樓臺이 2개 소, 土窟이 동남에 각 1개 처식이요, 池塘이 45개 소, 井戶가 80개 소, 水車가 8개 소가 있다.兼하여 當地는 이조의 피난지로 저명한 곳이다.

◇崇烈殿: 殿은 중부면 산성리에 在하니 백제의 제1세 溫祚王의 後嗣 31세 670여 년간 문화를 국내에 布하고 유교·불교를 일본에 소개함은 진실로 此 백제왕의 공적이었다. 王의 招魂閣을 건조함은 이조 개국 245년으로서 其後 개국 400년에 扁額을 下賜하사 崇烈殿이라 稱하고 現今에 至하도록 매년 춘추 2기 제사를 봉향한다.

◇西將臺: 이조 인조대왕시(거금 300여 년 전)에 부윤 李箕謙을 命하여 건축한 一樓閣인바, 古來로 일반에게 공개하였으며 其所在가 해발 1,500尺의 광주의 최고봉인 日長山上에 있어 年中 사계의 探勝客이 끊임없고 특히 春의 萬化力暢하고 秋의 단풍을 期하여 경성방면의 수학여행 학생단의 내방이 不絶하고 孟夏의 三伏과 眞冬의 嚴寒雪中에도 내방객이 있어 실로 1년 중 觀光客計는 수천 인에 달하는 모양이다.

『廣州新幹會設立』, 『동아일보』 1927년 8월 27일자, 4면.

광주읍에서는 신간회지회설립준비가 다되었음으로 예정과 같이 지난 24일 오후 1시에 광주 남한산소년회관에서 설립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 韓錫 사회하에 의원 질명, 임원선거, 강령 금 규약낭독이 있었는데...

『彦州公普校 落成式』 『동아일보』 1927년 10월 13일자, 4면.

광주군 彦州公立普通學校는 금년 4월 21일에 設立認可를 얻어 7월 19일에 起工하여, 9월 16일에 竣工하였는바, 去 8일에 開校兼 落成式을 同郡守 宋文華씨와 莊重한 式辭를 비롯하여 道知事代理 內務部長의 告辭가 이은 後 諸氏의 祝辭가 있고, 同校長 稻葉藏市 씨의 答辭로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總公費 8,207원 중 6,000원은 面民 寄附이며, 其總은 學校費支出로 되었다더라(광주).

『廣州 講演會 開催』 『동아일보』 1927년 12월 21일자, 4면.

新幹 廣州支會에서는 지난 15일 대회에 결성본부로서 特派員 鄭憲台씨 來廣을 기하여 동일 하오 7시 30분에 광주중앙청년회관 내에서 韓順會씨 사회 하여 在滿同胞擁護同盟에 對하여란 演題로 장시간 각기 열변을 펴하여 일반청중에게 많은 느낌을 주었다더라(광주).

『都尺公普校 創立期成會組織 總豫算 一萬六千圓』 『동아일보』 1928년 1월 22일자, 4면.

광주군 都尺面은 廣州人士로도 아는 이가 僅少하리만치 深山溪谷이 一面으로 同郡 南端에 在하여 본래 문화가 발전치 못하고 따라서 教育機關이 없음을 당면 有志諸氏는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여 오던바 新任 郡守 宋文華씨의 教育에 열심히 많음을 기회로 하여 該面長 申玟均씨 외 有志諸氏의 열렬한 運動으로 지난 13일에 都尺公普校創立期成會를 동면사무실 내에서 개최하였는데, 군수 송문화씨는 군청 李善權씨를 대동하고 雲中酷露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諸般設計 方針에 대한 장시간 연설이 있었고, 설립예산액 1만 6,000원 중 國庫金 기타 보조가 1만 3,000원이라 하며, 부족액 3,000원은

면민의 부담이라는데, 각출방법으로 戶稅의 비례로 配徵키로 하고, 一方으로는 同面 土地를 소유한 支柱에게 寄附金을 모집하여 보충할 계획으로 임원 세씨는 不眠不休로 노력중이며, 일반면민은 각 지주와 유지인사의 많은 同情이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任員諸氏의 열성을 감사히 여긴다 하며, 당선된 임원은 회장 申致均, 延昌熙, 安斗鉉 諸氏라더라(광주).

『廣州公昔後援會 總會』 『동아일보』 1928년 6월 14일자, 4면.

경기도 광주공립보통학교 후원회에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부터 동교 강당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회장 鄭芝秀씨 사회로 개최하고 左記 諸般事項을 보고한 후 동 5시에 폐회하였더라(광주).

- 一, 회비징수 상황
- 一, 의연금수지 상황
- 一, 소확 3년도 실시 사업

『廣州少年會發起』 『동아일보』 1928년 8월 20일자, 3면.

경기도 광주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당지 천도교 총리원 안에서 광주소년회 발기회를 열고 창립총회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당지 천도교 총리원에서 열기로 하였더라(광주).

제4장

해방 후 성남 여성의 관련 자료

1. 성남 여성의 정치·사회적 동향

2. 성남시 여성단체의 현황

- 1) 성남 여성단체의 사회 활동
- 2) 사회복지와 관련된 성남 여성단체 활동
- 3) 문화·관련 여성단체 활동

3. 해방 후 성남 여성 활동에 관한 자료

- ▶ 판교·문중마을 여성의 경제활동 사례
- ▶ 성남 여성문제의 현안과 환경문제에 대한 여성좌담회 자료
- ▶ 성남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김영미의 기고문
- ▶ 성남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례 자료
-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의 토론회 자료
- ▶ 참사랑복지회의 정관
- ▶ 성남여성의 삶에 대한 녹취록
 - 1) 수정구 진복선 녹취록
 - 2) 아담동 최해자 녹취록
 - 3) 중원구 김순례 녹취록
 - 4) 태평1동 오춘애 녹취록
 - 5) 태평3동 차성호 녹취록
 - 6) 광주삼동 김수남 녹취록
 - 7) 태평4동 서일순 녹취록
 - 8) 태평동 전덕수 녹취록

제 4 장 해방 후 성남 여성의 관련 자료

서 승 갑 (경원대 감사)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바로 오랜 틀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고, 새로운 사회발전의 밑그림 형성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주체적인 현실 참여에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량을 효율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여성운동이라 할 수 있다. 여성운동은 참여와 비판을 기조로 안과 밖의 기회 공간을 극대화하는 것이 운동의 중요한 전략이 된다. 따라서 여성운동은 상담과 교육, 여성대중 조직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여성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올라오는 여성들의 역량으로 스스로 세력화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발전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성운동의 출발점은 경제성장의 척도나 통제적이고 형식적인 인식의 틀에서 탈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 및 사회 전반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발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관행적인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성남지역의 여성들이 전통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일제 강점을 극복하고 해방한 한국 사회는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행정상으로 성남지역은 중부, 돌마, 낙생, 대왕면의 38개 리로 출발한 것이지만 광주군 관할 구역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서울 근교지역에 위치

한 성남은 교통이나 문화 수준이 열악하였고 인구 성장률이 저조한 전형적인 농촌 사회의 일단을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남지역에서 여성운동이 가시화될 수 있는 기반은 열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 여성들의 삶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변화된 형태에 일정 부분 조용하여 상이하게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성남시의 경우 1980년부터 여성들 중심의 전문적인 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시민운동의 초석을 마련한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시민의식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나 기독교여자청년회, 성남여성의 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 성남 여성의 정치·사회적 동향

성남 여성들이 주체적인 시대 인식과 참여 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는 1948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선거 방식에 참여하면서 성남 여성들은 자신의 정치 의식을 나타낼 수 있었고 여성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은 1990년대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에 여성의원들이 진입이다. 정치의 장으로 진입한 사건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정치적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한 성남시의 여성정책과 성남 여성의 의지력에 의한 결과물인 것이다.

성남 여성의 사회 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성남의 지리적 특수성에서 발원하는 공감대 형성의 구조이다. 성남시의 특수성은 도시의 성장 과정이 인위적인 관계로 시민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전국 각지에서 집결하여 형성된 도시민들이기 때문에 동질성이나

지역성이 약화된 반면 자신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표출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내재한다. 성남시의 출발 과정에서 도시화가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심이 요구되어 자생력과 응집력을 결집할 수 있었다. 원성남의 시민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이웃을 배려하여 공동체 정신을 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남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성남의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과 분당의 신도시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도시화로 진행되면서 생계에 직면한 여성들이 상호부조를 위한 아동의 위탁이나 교육에 관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남의 특성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남 여성들의 적극적인 삶의 형태는 여성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분당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성남 시민사회의 인적 구성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파생한 문화적 이질성은 참여정신이나 이웃을 배려하는 본연의 자세에 의해 융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 (명)					
	전체		당연직		위촉직(A)	
	계	여 성	계	여 성	계	여 성
62개 위원회	833	194	252	8	617	186

<도표 2> 성남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명단

구분	성명	성별	현직
시의원	김숙례	여	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현감	남	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단체	김은영	여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정숙	여	가정법률상담소장
신회원	여	소시모경기도지회장	소시모성남지회장
송태수	남	성남발전연구소장	경원대학교 학생처장
최영희	여	평등여성분과위원장	전국여성지도자협의회 부회장
조남덕	여	성남 YWCA 회장	YWCA 이사
학·관·결연 대학교수	이영숙	여	경원전문대 생활보육과장
	이혜경	여	경원대 교양학부장
학계	이길순	여	신구대학 기획실장
	문영보	여	신구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교육계	김석희	남	성남교육청 학무국장
기타	박정자	여	한국리더십학교 이사

2. 성남시 여성단체의 현황

1) 성남 여성단체의 사회 활동

▶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1980년대 여성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단체간의 교류와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의체가 모색되다가 1980년 8월에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설립 초기의 협의회는 한국부인회, 성남시여성합창단, 여약사회, 전국주부교실 성남지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남지구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수정구여성합창단 등이 주요 단체로 참여하였다. 이후 성남여성단체협의회는 점차 확대되어 13개 단체의 2만 1,800명이 활동하다 2002년 7월을 기준으로 36개 단체에 회원 수는 1만 5,322명으로 확대 재편되어 활성화된 것이 특징이다. 2003년 9월에는 3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만 4,056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성남여성단체협의회는 각 여성단체 상호간의 유대 및 친목 도모를 증진하는 한편 지역 사회 발전과 여성운동의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단체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여성직능단체 등 일부 이익 단체가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봉사 활동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가 시행하는 중요 사업이나 행사 관련사항을 살펴보면 협의회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 생활에 관련된 사업 내용은 주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중고품 교환 및 폐품수집 활동, 알뜰시장 운영, 불법 사재기 감시단 운영, 새질서·새생활 운동, 콤포비 주방운동 등이다. 특히 봉사 활동의 분야는 공부방 운영, 화재 예방사업, 환경미화 행사, 재해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직적으로 대처한 것이 특징이다. 협의회는 교양과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부업교육, 건전거래권장, 주부백일장 개최, 솜씨자랑대회 개최, 지도층 여성 간담회 등의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정한 후 연계한 후 사회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전력하고 있다.

<도표>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가입 현황

단체명	소재지	회원수	설립일	대표자
여성단체협의회	화랑로 106번지 여성문화회관내	14,056	'80. 8.30	김은영
미망인회	수정구 태평4동 2340-1 보춘회관내	1,000	'90. 7. 1	김현배
새마을 부녀회	수정구 태평3동 5028 분당구 아담3동 155(사)	6,232	'86. 5.10	김숙희
전국주부교실 성남시 지회	중원구 성남동 3781	60	'74. 4.11	최연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남시 지구 협의회	수정구 태평4동 2338 안일빌 3층 중부적십자봉사관	17	'77. 4.11	고성순
여성외용소방대	수정구 탄대동 4031	38	'82. 4. 1	김종순
성남시 여성합창단	수정구 태평2동 3364 현대맨션 301호	35	'73. 3.15	박종순
류권자 연영	분당구 이매동 344-1 현대그린빌라 102	50	'90. 5.20	이희자
고향생각주무모임성남총협	분당구 아담동 129-1 302호	200	'89. 4.30	이덕식
고향생각주무모임여성총협	분당구 구미동 128-4	30	'92.12	최순호
수정구 여성합창단	수정구 신흥2동 30 수정구청내 주공A	30	'80. 8.30	백원남
중원구 어머니 합창단	중원구 상대원1동 383-1 삼실맨션 102-302	50	'92. 9. 1	류선행
분당구 어머니 합창단	분당구 분당동 38 셋방마을 308-1003	32	'95.	김은숙
성남문화사랑회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현영A 319-805	51	'98. 5.20	오성림
현사합창천연합회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A 129-1005	300	'97. 6	김정자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지부	수정구 태평2동 3330-1(자) 수정구 신흥1동 5055(사)	1,500	'92. 3	김복순

▶ 기독교여자청년회(YWCA)

기독교여자청년회는 1908년 1월 19일 기독교 선교운동과 여성권의 향상 및 청소년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체이다. 주요 활동으로 무료취업상담(고령자, 여성직업교육), 소비자 보호운동,

청소년 활동,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생활용품 재활용 센터 운영과 결식아동 등을 지원한다.

참고로 2003년 성남 YWCA의 활동 사항에 대한 일단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성남 YWCA 직업개발부에서 하반기에 도우미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가사도우미 교육과 산모도우미 교육 등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성남 YWCA 사업부는 이동 아나바다를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에 성남시청 앞 농협장에서 개설하고 있다. YWCA 사회문제부는 경동보일러 회의실에서 성남에 살고 있는 자동차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녹색자동차 교실을 무료로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YWCA 정체성과 사업부의 활동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YWCA 정체성

YWCA는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약자로 한글로는 여자기독교청년회로 표기한다. 청년운동(Young), 여성운동(Women), 기독교운동(Christian), 회원운동(Association), 국제운동 등 5가지로 YWCA 정체성을 설명한다.

- 1) 청년운동체로서의 YWCA는 청년들이 가진 변화에 대한 욕구,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하고 생명력을 활동의 근간으로 삼는다.
- 2) 여성운동체로서의 YWCA는 독립된 존재인 여성의 자아의식을 고취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뿐 아니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한다.
- 3) 기독교운동체로서의 YWCA는 소외된 이웃과 미인간화되어 가는 사회 현상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을 사회 변화 및 사회 개혁 차원으로 심화시킨다.

4) 회원운동체로서의 YWCA는 사회에서 중보적, 화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평화와 정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한다.

5) 국제운동체로서의 YWCA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국제적인 유대와 협조를 강화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헌신한다.

성남 YWCA의 활동

회원부

회원부에서는 YWCA 운동의 근간이 되는 회원운동을 전개하며 회원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회원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YWCA 중점사업인 양성평등 실현운동과 북한 바로 알기 및 협력실천사업을 추진하는 활동을 벌인다. 성남 YWCA는 어린이부터 성인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원층을 갖고 있으며 회원활동을 통해 자기개발과 지도력을 키우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직업개발부

성남YWCA 직업개발부에서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실업극복을 위한 여성유망직종 설명회, 성남고령자 인재은행의 운영을 통해 취업상담·정보제공 및 교육받은 가사도우미, 간병인,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출장요리사 등을 회원 가정에 파견하여 취업을 무료로 알선하고 있다.

사업부

YWCA 활동을 위한 기금마련과 회원들에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마자회,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쁜 소비운동의 정착과 아나바다 나눔터 상설운영, 벼룩 시장을 통해 각종 생활용품의 재활용 및 교환을 한다.

사회문제부

사회문제부는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대비하고 피해구제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민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상담원으로서의 자격과 역할을 배양하기 위해 소비자 상담원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성남 여성의 전화

1994년 12월 개원하여 올해로 5년을 맞이하는 민간여성 인권운동 단체이다. 성남여성의 전화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넓혀 평등한 사회를 열어가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 의식향상 교육,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적 여론형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구명 활동 및 법적·제도적 지원 활동, 여성문제 상담 및 상담사례·통계분석 등 각종 조사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성남여성의 전화 2003년 구체적 사업의 일단을 살펴보면 기능과 위상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성남여성의 전화에서 5월에 '가

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의 선포식을 갖는 한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대중에게 계몽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성남여성의 전화에서는 부부재산 공동명의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여성 인권에 대한 개념을 사회·문화·경제·정치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여성 평등의식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한편으로 성남 여성의 전화는 최근 성남지역에 살고 있는 60살 이상 여성노인 303명을 대상으로 '여성노인 성의식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의 결과 '성생활을 삶의 활력소'라고 생각하는 노인이 45.5%로 나타났다.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성남지부는 1988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소비자의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와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을 통하여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 목적과 시행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목적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소비자문제의 조사연구와 자발적인 소비자 운동을 통하여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고, 환경친화 및 개선적인 소비생활을 증진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성남지부는 소비자운동 확산의 일환

으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첫 번째 지부로 개설되었다.

성남지부는 그 동안 매년 약 6~7,000여 권의 소비자 고발을 접수하여 처리함을 물론 지난 '88년도부터 현재까지 성남지역의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물가안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 그리고 대학생과 주부, 직장인 등 일반소비자에게도 꾸준히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 의식 변화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지역 소비자 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30여 명의 정에 모니터요원으로 구성된 소비자 모니터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타 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하다. 또한 홈페이지(www.sosima.org)를 통하여 사이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 사례와 소비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성남지부는 '90년대 이후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환경호르몬, 농약, 식품 첨가물, 등에 관심을 갖고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농산물지킴이'를 운영하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는 농산물 안전성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농산물 지킴이로 위촉하여 교육을 이수케 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통과정에서 부적합한 수입농산물을 적발하게 되며,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이나 품질인증 농산물과 전통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된 좋은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농민에게는 안전한 농산물

을 생산하는 동기를 부여해 소비자 보호와 농민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민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의 사업 내용

소비자 상담 및 정보 제공

각종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여 중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기업 및 정부에 시정 또는 건의하여 또 다른 소비자가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소비자 교육

소비자 관련 지식이나 피해사례 그리고 소비자 주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모니터 교육

소비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비자 문제 조사 연구

소비자 고발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를 심도 있게 조사, 연구하여 바람직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환경보호 관련사업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를 광범위하게 연구합니다.

소비자 문제 세미나 및 캠페인

소비자, 전문가, 정부당국 및 관련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토론하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합니다.

자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처리의 전 과정에서 자원 및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운동을 합니다.

상품 검사

상품의 안전성, 가격, 실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상품검사를 실시합니다.

가격조사

신속, 정확한 가격정보제공 및 물가안정을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세탁물 심의회

세탁물 사고 발생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출판

대중매체나 출판물을 이용하여 각종 소비자 관련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성남시 새마을부녀회

성남시 새마을부녀회는 성남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로 성남지역에 중앙연수원이 존재하는 관계로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특히 새마을부녀회의 활성화는 성남시에 내재한 특수한 여건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는 서울에서 반강제적으로 이주한 철거민과 도시화로 인해 이농한 빈민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이 결합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단계에서 이웃과 공조하여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사회 구조 때문에 연대의식이 활성화되었고 상호 부조적인 단체나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성남시 모범시민상에서 성남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새마을 활동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새마을 운동에 관련하여 수상한 것에서 나아가 시민운동의 부문에서도 수상한 것은 새마을부녀회의 운동 범주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새마을 운동은 생활의식 개혁운동, 민간사회 안전망운동 등을 펼치면서 도시화에서 과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민간사회 안전망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사회 안전망운동

1. 활동체계 확립 및 현장활동 활성화

민간사회 안전망운동 교육 : 2회, 1,071명

민안망 사업 및 활동 격려 : 현장지도 및 격려서한, 연 2회

사업 평가보고회 : 사례발표 및 활동자료 전시, 활성화 의견수렴

새마을운동신문에 민안망소식 운영 및 활동 내용 소개

2. 이웃사랑 나눔 운동 지속추진

사랑의 쌀 나누기

- 대표적 나눔운동으로 정착
- 각급 단위조직 또는 민안추 자체계획에 의거 연중 추진

사랑의 김장 나누기

- 대표적 나눔운동으로 정착
- 각급 단위조직 또는 민안추 자체계획에 의거 김장철 집중 추진

사람의 집 고쳐기

- 민안방운동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 지역 내 관련 기술 및 기능보유자, 단체, 기업을 활동회원으로 영입
- 도배, 장판, 도색, 보일러, 지붕 등 보수
- 일선 읍·면·동 민안추 활동 특성화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영세가정 등
- 생계지원 : 쌀, 밀반찬, 도시락, 생필품 등
- 복지지원 : 이·미용, 목욕, 세탁, 청소, 무료진료, 건강상담, 말뼉, 효도관광, 생일상 차려드리기, 경로잔치 등

2) 사회복지와 관련된 성남 여성단체 활동

▶ 한국 참사랑복지회(사)

참사랑복지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3동 87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성남 주민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되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보육시설 운영,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지역복지 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주

민 자활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참사랑복지회의 소명현장과 조직 및 임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아가 참사랑복지회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관도 소개하기로 한다.

소명현장

한국 참사랑복지회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들과 함께 함에 있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입니다.

이들의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일,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우며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 협동과 연대로 복된 마을을 만드는 일등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복지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사업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 ▷ 노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한 가정봉사원 파견(Home Helper) 사업
- ▷ 수양-아들딸이 되는 길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배우는 가정봉사원 양성 교육사업
- ▷ 노후를 대비하며 민주, 자립, 협동의 가치로 지역사회 고령자 자치모임(Community Senior Club)을 지원하는 자립사업
- ▷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고 나눌 줄 아는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아동보육사업(Child Edu-Care)
- ▷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와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복지 교육사업

참사랑의 조직과 임원 현황 : 총회원 : 226명

고 문

이상탁 (경기도의회의원), 박순환 (대한한의사협회)

자문위원

이종희 (크린탑코리아), 조중한 (박예치과 원장)

이사장

최종건 (복음의원 원장)

부이사장

김광배 (새한가정의원 원장)

상임이사

소형섭 (남성공업사 대표), 정기태 (오크플러스 대표), 지관근 (성남시의회 의원)

이 사

권혁식 (자영업), 김평 (현대중앙의원 원장), 박진범 (성남내일신문 본부장), 송영천 (송영천회계사무소 대표), 신석복 (내추럴하우스 대표), 유연식 (푸른기획 대표), 이유진 (에덴동산 대표), 정낙수 (신구대학물리치료과 교수), 최재문 (이공건설 대표), 최창규 (정석아카데미학원 원장), 백진구 (진산한의원 원장)

감 사

이길우 (경원세무회계사대표), 최주석 (최주석세무사대표)

▶ 아동복지팀

원 장 : 장원정

주임교사 : 이수연

교 사 : 임진주, 권현정, 김지연, 주현녀, 나경은, 이현숙, 박미
자, 김배순

▶ 지역복지팀

팀 장 : 양은선

사회복지사 : 이정호

▶ 재가노인복지팀

원 장 : 권태복

대 리 : 양은선

사회복지사 : 이정호

사 무 원 : 최선희

▶ 성남 일하는 여성의 집

일하는 여성의 집은 기혼 또는 미혼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정보 제공, 알선 등을 통해 여성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동부 국책사업기관이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1997년 5월 성남에 개소하게 되었다. 특히 성남 일하는 여성의 집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후 여성의 취업과 재취업 알선 기관으로 활성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에는 연중 1,000여 명의 여성을 취업시키려는 취업알선 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성남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6층 대강당에서 2003년 7월에 북한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리한 너구리」를 상영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성남 일하는 여성의 집은 지금까지 지역사회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성남 여성의 전화'가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여성 고충상담

- 직장 및 가정생활 고충상담 실시

②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산업

- 무료 구인·구직 알선
- 취업정보 비치
- 여성취업 및 직업진로 교육
- PC통신 이용한 취업정보 실시사전점부
- 직업 흥미도 및 적성검사 실시
- 직업관 및 직업진로 교육 실시

③ 직업능력 개발사업

- 여성유망직종개발 및 연구
- 성남시와 노동부 위탁직업훈련 실시
- 취업을 위한 전문직종 강좌 실시
- 여성을 위한 취미, 교양 강좌 실시

▶ 여성복지회관

성남 여성복지회관은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성의 복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경원사회복지 부설 열린여성상담소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열린 여성상담소가 2003년 성남시 중동 가곡빌딩 3층에 개소하였다. 여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원사회복지회가 성매매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설 기관인 열린여성상담소를 개소한 것이다.

열린여성상담소는 우리 사회에 성매매 없는 평등의식과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상담 및 구조활동을 통한 성매매 관련 사건을 발굴하고 연계망을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상담, 법률,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여성들을 위한 소모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

런 중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두서명을 받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성남시 요보호 여성 상담시설

2003년 9월 현재 요보호여성 상담시설은 가정법률상담소 부설의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법인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센터,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쉼터이다.

가정법률상담소 부설의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부설의 가정폭력상담소는 분당구 야탑동 610번지 여성문화회관 1층에 위치한다. 1987년 9월에 개소하였고 근무하는 직원은 2명으로 건물 면적은 23.5평이다.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수정구 태평2동 7288-25번지 오현빌딩 6층에 있다. 근무 직원은 3명으로 건물 면적은 55평이며 1994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경원사회복지법인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법인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수정구 태평2동 7268-9번지 송남빌딩 501호에 위치한다. 상담소 운영인원은 3명이며 건물 규모는 29평이다. 2001년 9월에 상담을 시작하여 운영 중이다.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센터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센터는 수정구 태평2동 7288-25번지 오현빌딩 6층에 위치한다.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쉼터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쉼터가 있으며 조일묵, 이정숙이 대표자이다.

3) 문화 관련 여성단체 활동

성남시는 성남 여성의 지위와 문화적 소양을 확대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주력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관내 주부들이 평소 연마한 기량에 대한 기예경진 대회와 바랍직한 주부상을 정립하기 위한 훌륭한 여성상을 발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13회 성남시 주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시는 지역사회 여성들을 위해 2003년 4

월 18일 여성아카데미를 야탑문화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특강으로 '아름다 눈으로 세상보기'라는 제목으로 페미니스트 이숙경 씨의 강의를 있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활동하는 성남지역 여성 관련 단체를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사업 및 향토문화 연구를 위하여 향토문화연구소, 문화학교, 예덕관, 문화의 집, 향토사료관 등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삶과 문화적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여성운동에 주력하기 위해 성남문화원에서는 성남문화원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성남문화원의 문화학교는 시민들에게 향토문화의 이해도 제고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와 교양을 배울 수 있는 기회 확대하고 향토문화의 주체며 문화지도자로서의 양성을 통해 자긍심 고취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원의 추진방향은 타 일반기관의 상업적인 목적을 배제하여 차별화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습득하고 문화사랑의 마음을 함양토록 한다. 나아가 개설풍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순수성을 고취하도록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문화지도자의 양성 도모하는 것이다. 참고로 문화학교 연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남문화원 문화학교 연혁

1996. 11. 18. 문화대학 1기 213명 입학

1997. 2. 21. 문화대학 1기 수료

8개과(향토역사과정, 민속·생활문화과정, 한문초급반, 서당식한문중급반, 생활영어초급반, 중국어초급반, 러시아어 초급반, 일본어 초급반) 173명 수료

1997. 3. 17. 문화대학 2기 213명 입학

1998. 2. 20. 문화대학 2기 수료

10개과(한문초급반, 향토역사반, 서당식한문반, 생활영어 반, 중국어초급반, 중국어중급반, 러시아초급반, 일본어 초급반, 전통요리반, 꽃꽂이반) 150명 수료

1998. 3. 9. 문화대학 3기 163명 입학

1998. 10. 31. 준문화학교로 인가

1999. 2. 23. 문화대학 3기 수료

8개과(향토역사반, 한문초급반, 생활영어반, 일본어초급반, 일본어 중급반, 국악반, 중국어 중급반, 서화반) 110명 수료

1999. 3. 8. 문화대학 4기 237명 입학

1999. 9. 21. 문화관광부로부터 정문화학교로 지정받음(제234호)

2000. 2. - 11개과(민요반, 전통무용반, 향토역사반, 서예반, 서화

반, 한문기초반, 생활영어반, 생활일어반, 생활중국어반, 문화·도우미양성반, 소자본꽃집창업반) 225명 수료

2000. 3. 6. 문화학교 5기 245명 입학

2001. 2. - 8개과(전통꽃꽂이반, 민요관소리반, 전통무용반, 서예반, 생활영어반, 생활중국어반, 생활일어반, 서화반) 184명 수료

2001. 3. 12. 문화학교 6기 230명 입학

2002. 2. - 11개과(생활영어반, 생활일어반, 생활중국어반, 전통무용반, 민요관소리반, 풍물반, 전통꽃꽂이반, 서예기초반, 서예중급반, 서화기초반, 서화중급반) 182명 수료

2002. 3. 11. 문화학교 7기 200명 입학

▶ 경원대학교 사회봉사단 집현전

경원대학교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회봉사단 집현전은 문명퇴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이다. 1995년 경원대학교에서 한글학교를 개설하여 문명인을 위해 무료로 교육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도교수하여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되어 한글과 일반 소양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초급반은 기초부터 시작하고 중급반과 고급반은 상당한 수준의 읽기와 쓰기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월·수·금 2시간씩 수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00여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한편으로 경원대학교 천화숙이 추진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은 여성운동의 각 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복지체험학습을 통해 자아실현과 건전한 삶을 유지시키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가고 있다. 자원봉사의 추진 사항은 외국인 대상 봉사활동, 장애인단체 자매결연, 시민단체 사회봉사, 독거노인 세대방문, 복지관 방문 봉사 활동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 성남시 여성문화회관

성남시는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내지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성남시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인해 2001년에는 여성의 위상을 반영하고 여성의 역할을 집결하기 위한 여성문화회관이 개관되었다.

여성문화회관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의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개발과 문화에 대한 복지 욕구가 팽창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성남시는 지방문화의 활성화와 여성에게 다양한 생활정보의 교환 및 문화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회관을 건립한 것이다. 성남 여성문화회관은 야탑동 산 151-1번지에 위치하며 30필지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문화회관의 설립 취지와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취지

-성남시 여성문화회관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우수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각종 문화교양강좌와 스포츠센터, 컴퓨터교육 등 알찬 운영으로 최고의 여성문화공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은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뮤직컬 전용극장 등과 연계하여 문화명소로 거듭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개설한 교육프로그램

스포츠교실(수영, 에어로빅, 헬스)

-문화예술강좌(서예과, 사군자, 사진예술과, 미술수채화과, 민요교실, 기타연주과, 댄스스포츠, 한국무용과, 선물포장과)

-의류관련강좌(현대의상과, 홈패션과, 의류수선과)

-음식관련강좌(제과제빵, 한식조리, 출장요리, 생활요리, 오븐요리, 손님초대요리, 펌백·이바지음식)

-미용관련강좌(미용자격대비, 생활미용과, 피부미용과(메이크업))

-어학관련강좌(영어회화과, 일어회화과, 중국어회화과, 생활한문과)

-컴퓨터관련강좌(컴퓨터과)

-건강관련강좌(생활요가, 아로마 마사지과, 발건강관리과)

▷ 야간 직장인반

직장인센스요리, 영어회화과, 생활요가

▷ 부모·자녀 참여반

제과제빵과

▶ 성남가정법률사무소

1956년에 창립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설립자: 이태영 박사)의 성남 지부로, 성남여성회관 1층에 위치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의 만인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가정법률사무소는 부부갈등 및 가정문제에 대한 화해하고 조정하는 일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료 대서 및 무료 변론 등 법률구조 사업을 펼친다. 한편으로 쉼터를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쉼터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거처를 분리해야 하거나 집중상담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이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및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남가정법률사무소는 지역사회 단체들과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며, 지역사회 인권 및 여성의 권익 옹호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 업무이다.

▶ 한국 음식업중앙회 성남시 중원구 지부(사)

음식업중앙회는 국민보건 및 위생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 의한 위임 및 위탁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민식생활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보급 운동,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위생감시, 기타 장학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외식산업 경영정보 제공 및 관련법령을 안내하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 성남시 어머니 합창단

성남시는 시로 승격한 후 여성들의 기여활동이나 문화활동에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성과물이 여성합창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 어머니 합창단은 1975년에 발족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 구별로 합창단이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성남시 여성합창단, 수정구 어머니합창단,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중원구 어머니합창단, 성남어머니합창단연합회 등이 활동한다. 특히 난과음악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음악을 통한 문화창달에 일정 부분 역할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정리한 여성 단체 외에도 더욱 중요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성남시 전체 여성 단체를 조사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관계로 앞으로 연구되어야만 하는 일부 단체를 소개하기로 한다.

- ▶ 성남여성문학회 창립(1991년)
- ▶ 보육정보센터
- ▶ 여약사회
- ▶ 주민생활협동조합
- ▶ 성남 함께하는 주부모임
- ▶ 여성민우회 성남지회

3. 해방 후 성남 여성 활동에 관한 자료

- ▶ 판교·운중마을 여성의 경제활동 사례
- ▶ 성남 여성문제의 현안과 환경문제에 대한 여성과단회 자료
- ▶ 성남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김영미의 기고문
- ▶ 성남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례 자료
-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의 토론회 자료
- ▶ 참사랑복지회의 정관
- ▶ 성남여성의 삶에 대한 녹취록
 - 1) 수정구 진복선 사례
 - 2) 야담동 최혜자 사례
 - 3) 중원구 김순례 사례
 - 4) 태평 1동 오춘애 사례
 - 5) 태평 3동 차성호 사례
 - 6) 광주 삼동 김수남 사례
 - 7) 태평 4동 서일순 사례
 - 8) 태평동 전덕수 사례

▶ 판교·운중마을 여성의 경제활동 사례

1999년을 기준으로 성남시 인구는 92만 1,204명으로 이 중 경제활동의 인구는 71만 5,809명이다. 성남시의 취업률이 51.3%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인구는 36만 7,206명이다. 전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은 35%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은 32.9%, 나머지는 임시직, 일용직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남성노동자의 63.4%가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음과 비교하면 여성은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운중동의 경우 여성은 1,094명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791명으로 전체 여성 인구 중 72.3%에 해당한다. 비경제활동 인구보다는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운중동은 주위 여건이나 사회적 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사례에서 보면 여성 근로자들은 주로 음식 숙박업,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근로자는 개인 사업이나 공공서비스가 36.6%이고 음식 숙박업의 종사자가 31.4%, 광공업 분야는 21.0%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평소 경제활동의 상태를 보면 여성의 경우 주로 일하는 상태는 26.6%이고 틈틈이 일하는 상태는 9.8%, 가사에 종사하는 경우가 44.5%이고 학교나 학원에 종사하는 경우가 9.6%, 기타가 10.8%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운중동 여성의 경제활동도 이러한 비율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운중동은 농업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중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반적인 수준 이하를 유지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관교동 여성의 삶에 대한 일단을 파악하기 너더리길에 위치하여 슈퍼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밀한 자료를 입수 하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여성의 지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자영업자를 경영하는 여성의 경우 4인 가족으로 전세를 살며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례이다. 소매업의 가구는 슈퍼마켓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성남에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임대업이 주요 소득원이라 할 수 있다. 슈퍼를 운영하여 하루 평균 매출이 5만 원 정도이지만 반면에 부업과 임대업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슈퍼마켓을 경제활동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은 무급 가족노동종사자와는 상이한 형태로 여성이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식운동에서 화훼농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관한 사례는 무급 가족노동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드라이 플라워에 종사하는 화훼농은 부모를 포함하여 8인 가족의 자영업자이다. 20년 동안 종사하면서 개발한 노하우를 기본으로 소재를 이용하는 응용 산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직원은 없고 부인과 함께 작업하는 형태이며 노지에서 옥잠화라는 자생 식물을 재배하는 부업도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훼농의 경우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원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월평균 수입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나아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중요롭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역시 책정하기 어렵고 소액의 지출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특히 문화 활동비 등의 지출이 적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황은 운중동 여성의 보편화된 현상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생활 수준 열악화는 남성의 경우 가족의 생계 책임자, 여성은 피부양자라는 성별 노동분업의 뿌리깊은 가치가 다른 지역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인 생활 수단 정도로 간주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여성 정책은 기존의 사고와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이 문제이다. 정부 실업정책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다. '99년 실업대책 예산 중 여성훈련 및 취업지원강화 차원에서 계획된 여성 실업대책 예산은 실업대책 예산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여성 실업대책은 일부 직업훈련과 실직여성 가장을 위한 지원책 정도인데, 여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그 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데다가 직종도 적고, 그마저 전통적 여성직종에 몰려있으며 저연령, 신규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열악한 형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실업대책 관련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성남 여성문제의 현안과 환경문제에 대한 여성좌담회

이제 여성은 가정을 구성하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뿐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끌어갈, 남성과 똑같은 반쪽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해 나가야 한다. 남성위주의 사회체제와 그 속에 갇혀있는 사회제도 세력의 의식을 일순간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의제에서는 지난 8월 21일 지역여성활동가를 모아 지역현안 문제인 환경문제 등을 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볼지 좌담회를 마련하여 얘기를 나누었다.

일 시 : 2000년 8월 10일(목) 16:00

장 소 : 성남의제 21 실천협의회 사무실

사 회

· 주혜숙 (성남 YWCA 사무총장)

참 석

- 김민자(성남시의원)
- 박혜영(시민모임여성대표)
- 김미희(성남시의원)
- 장연희(여성민우회 성남지회)
- 한경순(성남시생활계장)
- 정정옥(시민모임 집행위원)

여성의 정치참여 중요성

주혜숙 : 작년부터 여성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지려 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못하다가 성남의제21 편집위원회의 차원에서 지역현안 문제와 환경문제를 여성입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함께 자리를 마련하게 됐으니 현장에 있는 분들로서 편안하게 느끼신 대로 얘기를 했으면 한다.

주혜숙 : 얼마 전에 '남부경찰서에서 민주노총 알몸수색 인권유린 사건'이 있었는데, 성남뿐 아니라 경기 여성 전체가 모두 힘을 합쳐 풀어나간 것은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법적으로 30% 정해 놓았지만 실제 성남 시의회는 30%도 안 되고 다른 지역은 이 보다 더 낮은 실정이다.

김민자 : 여성 참여율을 30%로 법적으로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것 같다. 주변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끌어내야 하며,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혜숙 : 막상 여성지도자들에게 여러 사업의 대표로서 참여하라고

권하면 많이들 뒷걸음질한다. 법적으로 30% 참여율을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인재발굴이나 교육이 없었기에 실질적인 참여 유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YWCA에서 '여성정치 지도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여성 우리가 말로만 여성의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그 교육의 질을 높여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자격이 부여가 돼, 후속 프로그램도 가지 꾸준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민자 : 여성 지도자 교육이 작년에 있었다.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직은 인재를 많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성지도자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박혜영 : 현재 성남에는 3명의 여성시의원이 있는데, 도에는 어느 정도인가?

김민자 : 경기도에는 여성도의원이 없고, 비례대표로서 이영성의원만 있다.

정정욱 : 여성의 정치참여 중요성을 말했듯이, 여성이 어떻게 정책 활동을 이끌어낼지 예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김민자 : 의회에서는 여성정치인을 키우기 위한 세미나와 기타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탁상 교육이 끝나고 나면 후속 연결프로그램이 제대로 없어 마음만큼 자주 되지 않는다.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문제이다. 경기도 차원에 교육이 진행된다면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주혜숙 : 성남뿐 아니라, 경기지역 6군데, 날짜는 다르게 안산, 의정부, 고양, 수원, 성남(이천, 광주, 하남)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이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교육뿐 아니라, 지역에 나갔을 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까지도 하려고, 현재 규모가 크게 준비되고 있다. 이영성 국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현재 밀어주고 있다. 필요성이 있어 마련은 됐는데, 참여

를 안 하면, 기회마저 잃어버린다. 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 적
극적 추천 및 발굴이 필요하다.

정정옥 : 여성정책국에서 기획을 하나

주혜숙 : 가정법률상담소 경기여성연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9월
추석 지나고 나서 6회에 걸쳐서(지역별 1회) 성남은 11월 11
일 전후에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은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해
여성단체 정책담당자들과 크리스찬 아카데미 강사들이 연대
해 진행할 것이다.

김민자 : 축하하신 분들이 경험담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혜숙 : 성남시 시의원이 선배로서 힘을 북돋워 줘야 한다. 타지역
에 비해 여성문제와 여성지도자 및 기타 여러 가지에서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정연희 : 교육의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

주혜숙 : 성남 인근에서 50명(하남, 이천, 광주 포함해서), 참여인원
이 너무 많아지면, 후속프로그램으로 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장소는 용인에 있는 삼성연구원(연수원)이고 2박 3일 예정이
다. 교육은 계속되고 교육하는 사람만 바뀐다. 1차 교육을 하
면, 그 속에서 선별되고 2차 교육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잘되
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정연희 : 서울에선 자기가 참가비를 내고 하는데... 여기서는 참가비
를 본인 부담하면, 불가능할 것 같다.

한경순 : 정부에서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 있
다. 이 기금으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김미희 : 성남시에도 여성발전기금이 마련되어 있다.

주혜숙 : 성남시의 여성발전기금이 있지만 현재보다 더 확충되어야
한다.

한경순 : 아직 전체적인 개관정도만 잡혀있고, 여성단독으로 기금이
부족한 편이다. 올 하반기에 예산을 받을 것이다.

정정옥 : 아동교육에 있어 지도하는 선생님 99%는 여성이고, 노인 복지에서도 마찬가지다. 늘 이것들 속에 여성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 분리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분명히 제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

주혜숙 : 실질적으로 성인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은 많이 미흡하다. 어린이여성, 청소년여성, 등 뭉뚱그려 기금이 있으나 성인여성 대상으로 한 여성발전기금이 지역에 있는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 안 된다.

김민자 :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15억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까지 30억 목표로 하고 있다.

주혜숙 : 여성발전기금 등을 통해서 성인여성 프로그램이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작은 것들이 아닌,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성취업의 문제점 및 방향

정정옥 : 사업계획을 할 때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 여성실업...

주혜숙 : YWCA에서 여성실직자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한다. 여성유망직종 설명회를 했는데, 반응은 좋았다. 문제는 실질적인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김민자 : 교육과, 취업이 연속적으로 연결이 잘되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교육은 교육만으로 단절이 되어 버리니 문제인 것 같다.

주혜숙 : 교육을 할애 있어도 가정이 있는 주부들에게는 장기간 시간을 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주일 정도 하는 단기교육은 인기가 많다. 장기교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드는 게 사실이다. 성남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취업교육과, 취

업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

김민자 : 근로복지회관 및 구청에서 여성 사회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들이 취미나 시간 보내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려는 열의는 없다.

점철옥 : 전문직으로 취업을 하려면 전문인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동안 이 사람들을 위한 생계보장제도도 필요하다.

박혜영 :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전문인을 양성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그러니 단순한 교육으로 그에 맞는 공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전문인을 만들어놔야 공급만 있고, 수요가 없다. 일단은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주혜숙 : 단기교육 후에 취업이 가능한 것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다. 교육을 장기간 해야 하는 전문직은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들보다 더 전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인 전문직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김미희 : YWCA 사무실은 분당에 있는데, 구시가지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당까지 가나요?

주혜숙 : 구시가지에서는 일자리를 원하고, 분당에서는 일할 사람을 원하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탁아문제

장연희 : 요즘은 24시간 교대 일자리가 많으니, 밤에 일하는 사람들, 출장이나 기타 여성을 위한 24시간 탁아시설이 성남에 있어야 한다. 여성취업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여성

이 가정일 때문에 그만두지 않게 하는 시설 보충이 필요하다.
 김민자 : 24시간 탁아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에 지원하는 단제가 하나도 없어서, 현재는 무산된 상태이다.

정정옥 : 전국적으로 24시간 탁아시설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정정옥 : 실제로 시설운영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24시간 탁아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주간보다 훨씬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지원이 현재보다 많아지지 않으면, 24시간 탁아시설을 운영할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정정옥 : 24시간 탁아시설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까다롭다. 운영비의 60%가 지원이 되고 상시 보육인원이 3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상시인원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프거나, 적응을 못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자기 탓을 하고, 집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것이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있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

한경순 : 사실 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은 정말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시설도 많이 잘못된 것들이 있기도 하다.

장연희 : 북한의 탁아시설이 세계적이라고 하는데 우선 먼 곳이 아니라도 북한의 탁아시설을 시설 운영자들이 견학해야 한다.

주혜숙 : 성남 구시가지에는 맞벌이가 많고, 분당 신시가지는 젊은 신세대 직장인 여성이 많으니 탁아문제만큼은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장연희 : 탁아문제의 해결책으로 양로원과 고아원이 함께 있으면 양로원의 어르신들이 정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다.

정정옥 : 일본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1인당으로 하고, 돈을 많이 버

는 사람은 그만큼 비례해서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그러나 평등한 교육을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화되어 있어서 천차만별의 가격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연희 :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보며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50대 노인들에게서 탁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혜숙 : 성남시에서 양로원시설과 고아원이나 탁아시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정말 획기적인 것이다.

정정옥 : 탁아시설에 대한 선진국의 시설을 견학하는 일도 중요하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된 선진국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주혜숙 : 탁아문제는 결국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해외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교류를 해야 한다.

정정옥 : 보육교사 시찰단을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장연희 : 시찰단구성 및 계획에 관해서 교육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성남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이다.

청소년보호 문제

주혜숙 : 탁아문제에 이어서 청소년들의 탈선 문제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중동에 유흥가가 현재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곳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그곳은 학교와 불과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 곳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성남이 유흥가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정청옥 : 전국에서 여관이 가장 많은 곳이 성남이라고 한다. 모란 대로에 밤에 가면, 여관들의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외국 같은 분위기가 난다.

주혜숙 : 여성들이 특히 성인여성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할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혜영 : 건축법에 규제를 엄하게 해야 한다. 현재 지어진 것을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줄여가게 하고, 앞으로 이러한 유흥을 위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을 기준으로 반경 몇 미터 이내에 학교나, 청소년들이 있을 만한 곳에서 멀게 해야 한다. 여성단체 및 환경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야 하며,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혜영 : 환경단체 및 여성단체에서 잘 감시해서, 여관 업주들이 귀찮게 생각하고, 이에 지을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 혹은 유흥업소를 지을 때는 평가서를 단체에 받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한다면 성남에 유흥업소가 많이 줄 것이다.

주혜숙 : 지역의 경찰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하며 실제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장연희 : 요즘은 법규를 강화해도, 돈을 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누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장연희 : 나쁜 어른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런 어른들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김민자 : 요즘 사회가 아이들도 돈 때문에 원조교제 같은 것을 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박혜영 : 우리 사회에 용리가 너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단위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많이 늘려주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윤리는 다시 설 것이다.

장연희 : 도덕적인 문제가 먼저 바르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열쇠가 보일 것이다.

주혜숙 : 이미 생겨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여성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중요한 문제들에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박혜영 : 분당은 조금 덜하지만, 성남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마땅히 가족이나, 친구들과끼리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나쁜 쪽으로만 기우는 것 같다. 그러니, 작은 공원이라도 많이 만들고, 소규모의 음악회 같은 것을 많이 개최해서, 함께 건전히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 문화적 혜택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고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사회도 조금은 더 건전하고 밝아질 것이다.

주혜숙 : 분당도 실질적으로는 공간이 많지 않다. 공원은 구시가지보다 많지만, 실제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곳은 그만큼 많지 않아, 마찬가지이다.

김민자 : 정보센터 등 부분적이지만 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장연희 : 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대상별로 좋아하는 것을 해야한다. 그렇게 해야만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아울러 이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면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혜숙 : 우리가 여성의 정치참여 및 취업, 사회진출을 위한 탁아문제 등을 다루었는데 탁상공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

- 남지역에서 먼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여성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야 하는데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한다.

특히 생활쓰레기는 직접 부딪히는 부분이다.

장연희 : 음식물 쓰레기는 밤 10-12시 사이에만 수거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수거해야 한다.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기에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

정정옥 : 그래도 아파트는 어느 정도 그런 구조가 가능하지만 구시가지 경우 힘이 든다.

장연희 : 실질적으로 아파트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다.

정정옥 : 아파트는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지켜보니 음식물 수거함에 열쇠를 만들고 일정 시간에만 수거해도 좋을 것이다.

장연희 : 음식물 쓰레기에 국물을 짜면 수질이 나빠지므로 음식물은 신문지에 국물을 적시고, 나머지는 말려서 기타 쓰레기와 함께 버려야 한다.

부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간을 밤 10-12시만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아파트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 단체 수거함에 20cm마다 효소를 뿌려 퇴비로 사용하기도 한다.

주혜숙 : 여성이 깨어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기에 너무 벅차다. 남성들도 가사분담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비닐봉투 사용이 많이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정정옥 : 처음에 비닐봉투를 돈주고 사야하니 그냥 웬만한 건 그냥 들고 왔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고, 점점 무더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박혜영 :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하는데 처음엔 습관이 안

되어서 가지고 다니는 걸 자주 잊어버렸다. 그래서 여러 곳에 장바구니를 넣어두었더니 이젠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장연희 : 모스크바는 주부들이 장바구니가 3~5개 정도 용도별로 다 있다고 한다. 우리도 그 정도로 되어야 한다.

주혜숙 : 그래도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박혜영 : 캠페인을 벌여도 될 것이다. “몇명이 주부는 장바구니가 5개”

장연희 : 환경에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성남의제 21에서 발해-

▶ 성남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김영미의 기고문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문턱에 와 있다. 새해에도 올해에 밟던 해가 그대로 흐를지만 그리고 새로운 천년이라고 각종 행사와 사건을 만들면서 상업적 냄새를 풍 풍기는 마스크의 태도가 불쌍 사나운 가운데 우리 여성들은 다가오는 새 천년을 새로운 의미로 맞이하고 싶다.

새로운 천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경제성장,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만인이 함께 하는 성장’,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지구’를 모토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다. 지난 20세기 우리 여성들은 ‘개발’과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남성에게 억압당하는 생활을 해 왔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를 외치며 진행된 개발의 과정에서 장애인, 여성, 빈민, 노인, 아동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희생되었고, 지구환경이 심각해

파괴되었으며, 사회에 폭력과 부정부패가 난무하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여성에 대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의 현황을 성남 지역의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성남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성남가정폭력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현황을 살펴보면('99년 1-11월) 총 2359건의 전화상담과 399건의 면접상담을 받았고 이중에서 가정 폭력(아내 구타) 문제는 619건, 성폭력 문제는 368건이다. 그리고 구타 상담 중 일시보호시설(쉼터)로 연계한 것은 월 10건 정도이다. '성남가정법률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성남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99년 1-9월) 총 419건의 면접상담을 받았고 이 중에서 시설로 연계한 것은 14건이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볼 때 '예전과는 무언가가 다른 해가 뜰 것 같아 보이는' 2천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남·여 간의 성적인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모토로 하며 '늦게 가더라도 만인이 함께 가는 것'을 가치있게 여기는 21세기는 그 동안 성장위주의 사회에서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어나 주인으로 나서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여성적 특징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남성적 특징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 특징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며 남성과 함께 손잡고 함께 가는 21세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성해방의 걸림돌은 '남성' 그 자체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여성해방'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일부의 남성들이 얼마 전 '안티페미니즘'(Anti-Feminism)을 표방한 '한국남성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려 하는, 여성해방의 진의를 곡해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수백 년을 변변히 이어온 남성들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관습 속에서 배태되어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남성들에 의한 여성억압의 행동거지를 보다 보면 때로는 남성이 여성억압의 주범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남성은 남성대로 이 사회

의 억압적 구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권위와 체면 속에 갇혀 있던 인간됨을 스스로 해방하는 길은 다가오는 21세기를 여성과 함께 평등·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성남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례

경기도 성남시 수진 1동 성남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에 사는 20대 여성 2명이 악몽 같았던 1년여의 커피부 생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도망쳐 나오려 해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업주가 준 선불금은 나중에 산더미 같은 빚이 돼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고, 다행히 벗어난다 해도 협박에 시달릴 가족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옥에서 보낸 10년 같았다.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은 뒤 겪은 술 손님 커피부와 배매춘의 반박, 업주의 비인간적인 폭압, 공무원과 업주의 유착관계 등을 증언한 내용이다. 두 여성이 유흥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지난 2000년 9월이다.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던 정모(24)양은 '아르바이트로 해보라'는 친구의 말을 믿고 한 유흥업소에서 일을 도와주다 결국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커피부의 길로 접어들었다.

10월 들어간 성남동 K주점의 업주(51.여)는 정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 대해 고리를 붙여 가물로 떠넘겼고, 결국 정양은 1년 만에 2,100만 원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술 손님들과의 2차도 반강제적이었다. 만약 윤락을 거부하면 술값 전부를 정양이 부담해

야만 했다. 정양은 “몸이 불편하고 생리 중에도 윤락을 강요받았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결근 일수를 계산하여, 돈을 물어냈다”고 한다.

정양은 지난해 11월 말 고민 끝에 언니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언니는 이곳 저곳서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업주를 찾아갔다. 그러나 업주는 “빌린 돈 600만 원을 더 갖고 오기 전에는 절대 보낼 수 없다”며 오히려 갑갑하고 험박했고, 업주의 주변 인물들이 정양의 자취방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정양과 함께 있던 변모(25)양도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가출한 친구를 찾으러 업소에 들른 것이 화근이 됐다. 변양은 “지난해 9월 어느 날에는 다리를 다쳐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인데도 업주가 관할지역 경찰관이라며 ‘2차 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정양과 변양은 “경찰, 세무서, 구청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그 때마다 업주는 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짜증을 내면서도 ‘잘 접대하라’고 주문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전화 등 성남지역 여성, 사회단체들도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의 토론회

-건강한 청소년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 토론회-
사례

토론회 개요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3년 11월 현재 약 3,344만여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의 약 69.8%의 보급률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약 67.1%의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그 이후 각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8명 정도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휴대전화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휴대전화가 청소년 문화를 구축하는 새로운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는 이러한 배경 아래 청소년 휴대전화 사용의식 및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주 제 : 건전한 청소년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 토론회

■ 일 시 : 2003년 12월 26일(금), 오후 3시~5시

■ 장 소 :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7층 대회의실

■ 주 최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

사 회 : 송태수 교수

(경원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본 모임 운영위원장)

발제 1. 우리나라 휴대폰시장 현황과 문제점

김용재 부장(시민미디어정보센터 정보화 팀)

발제 2. 휴대폰 사용으로 본 청소년문화
지금종 사무처장 (문화연대)

발제 3. 청소년 휴대폰 사용실태 조사 결과
김경희 (소비자모임 성남지부장)

지정토론

김명숙 총무(소시모 안산지부)

정경우 실장(소시모 성남지부)

김태진 사무국장(성남의제 21)

박근령, 최지연(송신여고)

장종범, 김범주(성남공고)

이인애, 윤복순(성보여정고)

자유토론

▶ 참사랑복지회의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의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나눔의 생활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권익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이하 "회"라 한다)

라 한다. 이 회의 영문명칭은 Korea Cham-Sa-Rang Welfare Society(약칭 'KCWS')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 ①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3동 2980-20에 둔다.
- ② 이 회의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소(지회)를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 ① 이 회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
 3.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사업
 4.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5. 지역복지연구, 교육, 출판 및 홍보사업
 6. 국내외 사회복지 전문단체와의 교류사업
 7. 사회복지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사업
 8. 그 밖에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승인 등)

이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행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주무관청에 승인을 얻는다.

제6조(수혜범위)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이 회의 목적과 취지에 관동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회원의 종류 및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이 회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의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임의 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단,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권리)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이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회비납부의 의무
2. 이 회의 정관 및 제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준수

제11조(상벌)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는 포상하

고 정관, 규정 또는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 의 결의 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 및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정지)

이 회의 회원이 정관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 이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인
2. 부이사장 - 1인
3. 상임이사 - 3인
4. 이 사 - 20인(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5. 감 사 - 2인

제14조(임원의 선출)

-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선출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 의 결의 을 거쳐 선임한다.
- ③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등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이 있는 자로 선출할 수 있다.
- ④ 임원은 본 회에 임명한 자로 한다.
- 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 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5조(임원선임의 제한)

이 회는 임원상호간의 있어서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임원의 수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제4항에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감사와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그 순위에 따라 부이사장, 상임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직능에 속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감사에 관한 기준 및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대우)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결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이 회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0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이 회의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제위원회)

① 이사장은 이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장 직속기구로서 기획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두되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회별 역할 및 운영범위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22조(총회)

- ① 이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의결을 한다.

- ① 해산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⑤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거나 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24조(총회 소집)

-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이 회의 감사가 제18조 제4호에 의거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이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 회사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의결권을 가진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 1인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회의록 작성)

총회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3인 이상이 기명 날인한 후 이 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구성)

이 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간부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 임명에 관한 사항
4.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29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3개월 간격으로 개최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5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⑥ 의사록에는 의사의 결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참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한다.

⑦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산 및 회 계

제 1 절 재 산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이 회의 재산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 사용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31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찬조금, 지원금과 기본재산에 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정부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4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36조(사업회계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장이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 이전에 작성하여 매년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회의 매 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 후 2

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매년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8조(사무국)

- ① 이 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두되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통괄하고 지부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직 등에 관하여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9조(정관변경)

-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별표1의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동 규칙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0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구성원 각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고방법

제41조(공고의 방법)

- ① 이 회가 정관과 법령 및 기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기관지에 실는다.
-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실는다
-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42조(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타 관계법률을 준용한다.

제43조(운영규정)

이 정관에 시행에 관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법인 설립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997. 9. 18.)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 1. 22.)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1. 10. 10.)

▶ 성남여성의 삶에 대한 녹취록

1) 수정구 진복선 녹취록

나는 1957년 부산에서 3남 3녀 중 2녀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철공소를 하시고 어머니는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다. 아버지는 원래 서울 분이신데, 영등포에 사시다가 6·25때 피난 내려오시면서 부산에서 정착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어머니를 만나셔서 결혼하셨다. 아버지의 철공소 사업이 실패하면서 부산 부전초등학교 5학년에 재

학중이던 나와 가족들은 아버지의 고향인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서울 목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고향인 영등포로 계속 철공소 일을 나가셨다. 그 당시 1970년 초에 크게 흥수가 나서 지금 목동 아파트단지가 재개발이 되면서 성남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 때에 목동이 재개발되면서 목동에 살던 대부분의 원거민들이 성남으로 이사하였다.

당시 경기도 중부면 수진리 108단지, 현 태평 3동으로 이사를 왔다. 그때는 몇 번지가 없고 단지 단위로 주소를 나누었고 1호, 2호, 3호 이렇게 집들에 번호를 매겼다. 성남에 와서도 아버지는 계속 영등포로 용접이나 철공소 일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집에 계셨다. 일을 하고 싶어도 당시 성남에는 딱히 일할만한 직장이 없기도 했다. 나중에 70년대 후반에 부업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어머니는 일을 하셨다.

성남에 처음 이사왔을 때에 철거민들은 20평씩 분양을 받았는데, 천막집이나 판잣집이 많았다. 당시 성남에는 수도 시설이 거의 없었다. 수도를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의 성남병원 근처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교통편도 없어서 물지게를 지고 다녔다. 수도물이 나오더라도 며칠에 한번씩 나오는 꼴이었고 그 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수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우물물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물물이 고이는 대로 미다 먹고 열쇠를 돌아가면서 관리했다. 그래서 항상 물이 부족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먹고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꽤 많았고 부딪치는 경우도 많았다.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꼭 큰돈이 아니더라도 옷가지를 훔쳐 가는 경우도 많았다. 밤에 자고 있을 때 창문을 열고 옷을 꺼내서 돈 빼가고 빨래 널어놓으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우리 집에도 그런 도둑이 한 번 들어서 옷가지를 훔쳐 간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워낙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거의 줌도둑들이었고 큰 절도범은 없었다.

그때는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호롱불을 켜놓고 생활했고, 난방도 지금처럼 보일러가 아니라 연탄으로 난방을 했었다. 먹는 것도 귀했는데 거의 혼합곡을 사먹었고 밀가루 음식을 애용했다.

7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부업 일이 조금씩 생겼다. 현재 태평중학교 건너편의 빌라 터에는 가내수공업 센터가 있었는데 그 곳은 액세서리 같은 것을 만드는 곳이었다. 거기에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1975년도에 남편을 만나서 계속 사귀다가 결혼을 했다. 18살 때였다. 당시 남편도 성남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성남에서 살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일을 하면서 힘이 들 때라 다정하게 잘 대해주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첫사랑과 결혼을 한 셈이다. 그때는 연애결혼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것은 큰 용이었다. 그리고 연애하다가 배신하거나 하는 행위는 더욱 큰 용이었다.

남편과 '75년 12월에 중앙예식장에서 결혼을 했다. 그때 총 예식비용이 1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다. 드레스 대여비가 5만 원 정도였고 미리하는데 3000원 정도 들었었다. 신혼여행 같은 것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보통 차 타고 드라이브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위키힐로 해서 신흥사까지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왔다. 당시 회사에서 어린 나이이고 사내 커플이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에 대해 배려를 해주었다.

산집 살림집은 재래식 한옥이었는데 연탄보일러에 재래식 부엌을 사용했고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했었다. 20평씩 분양받은 땅에 집들이 3개씩 있었다. 80년대부터 임식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때 시장은 중앙시장이 있었는데 교통편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걸어다녔다. 그때 길은 진흙길이어서 걸어다니기도 쉽지 않았다. 리어카에 아재를 파는 사람도 많았고, 사진기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리어카에서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많았다.

버스는 지금 수진리 고개에서 영등포나 을지로로 나가는 차만 있

있고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거의 걸어야 했다.

결혼해서 딸 셋을 낳았는데, 모두 성남서 초등학교를 나왔다. 당시에는 애를 낳을만한 산부인과도 거의 없었다. 병원은 중앙시장 근처에 호산나 회원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근처엔 병원도 많지 않았다. 의료 시설도 아주 열악했다. 나중에 안하 병원이나 성남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이 생겼다. 그리고 그 때는 의료보험이 안 되어서 병원비가 매우 비쌌을 때였다. 뽕만큼 아프면 그냥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었고 아주 급해야만 병원에 가는 형편이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남편만 일을 다니고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 일을 나가지 못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조금 크면서 부업을 하게 되었고 집안 살림을 조금씩 늘려 나갈 수 있었다. 남편이 직장을 10년 정도 다녔는데, 중국으로 그런 가내수공업이 넘어가게 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다. 퇴직금에 용자를 받아서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가 '90년대 중반이었는데, 21평짜리 집이 9,400만 원이었다. 이사를 6번한 끝에 집을 산 것이었다. 처음에는 방 한 칸에 전세 10만 원짜리에 살았고 그 다음엔 35만 원 그 다음엔 90만 원 그리고 반지하에 방 2칸에 주택개량이 된 새로 지은 집에 살게 되었는데 그때 전세금이 1,700만 원이었다. 그게 '90년대 초였다. 그리고 나중에 1층에 집을 사게 되었는데 2,700만 원이었다.

주택개량이 이루어지는 80년대 후반에 잠실로 나갈 수 있는 100번 버스가 다녔고 도시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으로 집도 새로 많이 짓게 되었다. 그 때 주택개량이 되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 집을 새로 지으면서 수도개량이 이루어졌다. 집짓기 전에는 수도사정이 좋지 않았고, 수도시설이 있어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결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보통 수도 있는 집에 연결을 해서 수도비를 내는 형식으로 사용했다.

막내딸이 2살 정도 되었을 때 새마을 활성화(부녀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때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거리가 없는 시간

에는 거리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지도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때때로 경로잔치 등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했다. 나도 없이 살았고, 돈 많다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마을 활성화 일을 열심히 했다.

애들이 클 때만 해도 변변한 학원도 제대로 없었다. 그리고 큰딸이 어렸을 때에는 유치원도 없어서 부녀회에서 골목 유치원을 열었다. 동네 놀이터에서 애들을 모아서 유치원처럼 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시에서 나와서 가르쳤다. 80년대가 넘어가면서 각 동네서 유치원이 생기기 시작했고, 학교도 많이 생겼다.

그때 학원은 주산학원, 웅변학원, 태권도 학원이 제일 많았다. 우리 애들은 주산학원에 보냈는데 학원비가 1만 7,000원 정도 했다. 미술학원이나 피아노 학원도 있었지만 그건 대부분 고급에 속하는 학원이었다. 그리고 학원보다는 학습지 같은 일일공부가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그 때 학습지 가격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몇천 원이었던 것 같다.

애들이 크면서 부업을 하게 되었을 때 7만 원 정도 받았고 많이 팔는 달에만 1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의 직장에 처음 나가게 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4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조금씩 월급이 올라갔다. 여기는 거의 맞벌이를 하는데 나도 돈을 벌고 남편도 돈을 벌게 되면서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딸들이 모두 커서 학비도 들지 않고 딸 둘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수입은 안정되고 돈 들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은 혼자 여가생활도 즐기고 할 정도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내 생활에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

(진복선, 수정구 태평3동, 48세)

2) 아탑동 최혜자 녹취록

나는 1961년 경상북도 도리원에서 태어났다. 3남 4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내어 준 교사사택에서 살았다. 아버지가 교사이셨기 때문에 우리집은 별 어려움 없이 꽤 잘 사는 편이었다. 다른 예들은 고무신을 신고 보자기를 매고 다닐 때 우리 형제들은 가방을 매고 구두를 신고 다녔었다.

아버지가 전근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나도 초등학교를 여러 번 옮겨다녀야 했다. 인동, 구미, 풍각 초등학교 등 여섯 번 정도 초등학교를 옮긴 것 같다.

77년도에 오빠가 서울에 있는 지하철 공사에 다녔는데 방학 때 오빠를 만나러 서울에 내려오게 되었다. 그 때 아는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 사귀다가 결혼하기 전에 20살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먼저 시댁에 들어간 건 아니고 밖에서 둘이 살았는데 정말 살기가 어려웠다. 집에서는 손에 물도 안 무치고 살았는데 갑자기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어서 부끄러워나 힘들었다. 그때는 남편이 일하던 회사에서 제때 월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일에 라면 한번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보리랑 쌀을 섞어서 먹고 간장 하나만 놓고 밥을 먹은 적이 많았다.

그때는 수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길어다 먹었다. 그때 물값이 10원이었는데 그걸 아끼려고 임신했을 때 물지계를 8번이나 저 날랐던 적도 있었다.

첫애를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으로 들어갔다. 수도가 없어서 남의 집에서 수도를 끌어다 썼다. 시댁에 들어가서는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다. 수도가 없으니 받아놓은 물로 빨래를 빨았는데 받아 놓은 물이라서 훨씬 차가웠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고무장갑도 사주시지 않았다. 몇년 만에 친정에 갔을 때에 고무장갑을 잔

꼭 사오기도 했었다.

시댁에 처음 왔을 때 작은 고모님께서 오셔서 시어머니께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주워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냉대를 받았다. 친정에 있을 때 워낙 일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잘 하지 못해 밥 못하고 일 못한다고 구박도 많이 받았었다. 당시는 남편의 형들이랑 여동생도 모두 결혼을 안 해서 다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첫애를 낳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직접 지금 큰애를 받으셨다.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도 안 하셨다.

그때는 교통편이 없어서 성호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걸어야 했었다. 천 원이면 장을 넉넉히 볼 수 있었다. 임신했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장을 보러 다니셨는데 임신한 몸으로 중간 정도까지 마중을 나가서 집을 받아 머리에 이고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성호시장 뿐만 아니라 모란까지 가는 버스도 없었기 때문에 모란장까지도 걸어야 했다.

지금 시청 중간에는 탄전이 흐르고 있었고 나가는 차 따로 들어오는 차 따로 다녔었다. 서울 가는 버스가 있긴 있었지만 혼하지 않았다.

동네는 철거민들이 이주해 온 것이기 때문에 판잣집이 많았다. 지금 시청길이랑 그 뒤에는 공무원 주택 빼고는 모두 공터였다. 그리고 시대 뒤쪽도 거의 다 공터였는데 가건물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빨래는 우물에서 빨았었는데 큰 형님이 시집오시면서 수도를 찾았다. 그때의 난방시설은 다 연탄이었는데, 아기 낳고 연탄가스를 팔아서 난리 났었던 적도 있었다. 그때는 연탄가스 마시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가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석유 난로 같은 데에다 밥을 지어먹었다.

생활이 어려워 시어머니께서는 노가라 껌질 벗기는 부업을 하셨고, 나도 시간이 날 때마다 도와드렸다. 그 때 동네사람들의 대부분

이 그 일을 많이 했었고 모두 맞벌이를 했었다.

시아버지는 가끔 노동일 하러 나가시고 남편은 작은 회사에 나갔었다. 그때 월급이 7만 원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부업을 해서 돈이 모이면 리어카 같은 데서 양온넵비나 그릇 같은 생활용품을 사서 모으셨다.

3년 정도 살다가 따로 나가 살게 되었는데 멀리는 아니고 같은 동네였다. 40만 원짜리 전세였는데 방이 하나고 부엌은 있었지만, 부엌이라고 딱히 팔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그리고 부엌이랑 방이랑 구분도 안 되어 있어서 밤에 비닐을 씌워서 부엌문을 만들었다. 비가 오면 비도 새는 허술한 곳이었다. 분가할 때 시어머니가 양온넵비랑 흑백 텔레비전 그리고 하얀 옷장을 선물로 주셨다.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기 보살피고 시댁에 가서 일하고 거기서 밥 먹고 집에 와서는 거의 잠만 자는 정도였다. 시댁에는 큰형님이 시집오시고 다들 결혼하여 분가하고 돈을 벌고 하면서 생활이 조금 편해졌다.

결혼 없이 동거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85년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뒤늦게나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살다가 돈을 조금 모아서 더 나은 전세방으로 이사를 갔다. 그때는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애들을 봐주시곤 했었다. 시청 뒤쪽으로 이사했을 때는 아이들이 똘만큼 커서 학교 다니고 했기 때문에 부업을 할 수 있었다. 귀걸이나 목걸이, 구슬 끼는 부업이었다. 이렇게 해서 또 얼마만큼 돈을 모은 후에는 다시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는 미싱을 배워서 가방 부분작업을 하는 부업을 했다. 이 때 부업해서 탄 첫 월급으로 청약 저축 통장을 만들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적금을 들 여유가 없었지만 부업을 시작한 후 만든 통장에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부어 분당 지금 사는 곳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분양받은 후에도 계속 같이 맞벌이를 했다.

친구 소개로 주방보조로 일하면서 일을 배워서 나중에 주방장까지도 했었다. 가게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월급이 한 달에 150만원 정도로 올랐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 나는 분당에서 작은 가게를 내어 장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모두 커서 대학도 갔고 큰애는 벌써 졸업해서 직장에 다녀 돈도 벌고 있고, 작은아들은 군에 가있다. 남편 이랑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은 안정되었고 지금은 별 어려움 없이 여가생활도 즐기면서 윤택하고 살고 있다.

(최혜자, 분당구 아탈동, 44세)

3) 중원구 김순례 녹취록

나는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구룡리 마을에서 아버지, 어머니 밑으로 1남 3녀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당시 아버님께서도 종중(宗中)의 일을 맡아 하시면서, 많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셨는데, 내가 기억하기로 논 세 마지기과 밭 열 마지기를 농사 지으셨다. 매우 많은 일을 하실 정도로 당시의 아버님 건강은 좋으셨다.

내가 학교에 다닐 나이에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였다. 그 당시 여자는 공부를 많이 하면 나중에 시집가서 시집살이가 사나워 생활이 편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시집가기 전까지 나는 집에서 어머님 밑에서 집안 일을 도우면서 생활하였다.

부모님 밑에서 십대를 지내면서 이십대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슬하에 5남 1녀를 두었다. 딸 하나는 지금 부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며, 아들 중에는 공무원과 기술자들도 있다.

남편 역시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틈틈이 농사일도 도와주었다. 그리고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하여 몇 년 동안은 저 혼자서 농사일이며 자식 교육을 시켜야만 했다. 서울로 올라간 남편을 따라

서 생활을 한 곳은 바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성남이었다. 그 때가 1969년이었는데, 당시 이 곳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조건이었다. 집에 놓았던 쌀, 보리 등의 잡곡을 훔쳐 가는 일은 다반사였고, 심지어는 밭에 심었던 마늘도 다 캐어 가곤 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 시골에서 가지고 올라온 돈을 다 써버리자 할 수 없이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공장 직장 생활 및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지난 성남에서의 30여 년의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오늘날 이렇게 자식들 모두 권사하고 보니 기억에 남기도 한다.

(김순례, 중원구 중동, 74세)

4) 태평 1동 오촌에 녹취록

나는 충청도 서산에서 4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오빠들은 모두 중학교 교육은 마쳤지만 내가 공부를 할 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이 무척 어려워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좀 형편이 나아지자 이번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 북한군들이 우리 마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약탈을 해갔다. 우리 집에서도 쌀, 돼지, 닭 등을 가져가기도 했다. 이런 등등의 일들로 더 이상 학교 교육의 기회는 오지 않았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나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살림을 배우면서 20살을 맞이하였다. 그 해 가을이었는데, 집에 오신 이모께서 어머니에게 ‘출애’ 시집 보내도 되겠다며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 말에 ‘무엇집이면 시집갈게요’라고 대꾸했고, 그 때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남편의 고향이 ‘성남’이었다.

시집을 온 시댁의 곳간에는 쌀이 오십 가마니나 쌓여 있을 정도로 넉넉한 집안이었다. 어려서의 가난한 환경과는 전혀 딴 판이어서 비교적 고생을 덜 한 시집살이였다.

남편과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고, 제가 배우지 못한 한 때문에 자식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모두 대학교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욕심도 없다.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오춘애, 수정구 태평1동, 65세)

5) 태평 3동 차성호 녹취록

나의 고향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면 읍내리 1구이다. 형제 관계는 2남 3녀이고, 이 가운데 셋째 딸로,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고모, 작은아버지가 함께 살고 계셨다.

아버지는 당진 읍내 버스를 가지고 운수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시어 집안은 비교적 넉넉하였다. 당시 저희 집 사랑채에는 미슴이 거처하면서 우리집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넉넉한 집안 환경에 오빠와 언니들은 모두 학교를 다녔었다. 그러나 나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때 6·25 사변이 일어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내가 다녀야 할 학교에 불을 질러 학교가 전소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후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그만 배움의 때를 놓치고 말았다. 한 번 놓치고 만 기회는 그 후로 찾아오지 않았다.

한편, 오빠가 서울의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나는 오빠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 때 오빠가 글자를 많이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학교를 가지 못한 것에 마음이 아파 온다.

그 후, 내 나이 스물 셋 나이에 충남 보령군 보령면 보령리 2구 군청에 근무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시집을 가 습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내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식만큼은 명문대학교를 보내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래 지금 아들 한 녀석은

얼마 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 때의 기쁨은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결혼 몇년 만에 오빠의 권고로 서울 용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 곳에 초그만 가게를 하나 열어 장사를 하였다. 그러던 차에 성남이 재개업한다고 하여 남편이 서울 가게를 처분하고 성남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때가 1980년도였습니다. 고모네 식구, 남동생네, 조카딸까지 다같이 와서 자리잡고 장사를 하면서 생활하였다.

(차성호, 수정구 태평3동, 66세)

6) 광주 삼동 김수남 녹취록

나의 고향은 지금의 경기도 구리시에 인접한 아치울이라는 곳으로, 당시 부모님과 저희 형제 3남매가 생활하고 있었다. 내가 11살 되던 해 아버지는 6·25때 의용군으로 끌려갔었고, 어머니와 우리 3남매는 큰덕을 따라 지금의 경기도 광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었다. 피난 간 곳에서 큰덕의 딸이 '마마'에 걸려 고생을 했는데, 그 때 내 막내 동생도 '마마'에 전염되어 죽었다.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우리는 다시 예전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동생 하나만을 데리고 판 집으로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다. 그 때부터 혈혈단신이 되어버린 나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어느 옷가게의 점원이 되어 내 나이 25세가 될 때까지 점원 생활을 하면서 착실히 돈을 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오촌 아저씨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 주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을 따라 간 곳은 당시에는 차도 다니지 않는 곳으로 시골 캄캄산중이었고, 집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거의 다 쓰러져 가는 흙집이었다. 당시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6명의 어린 시동생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막내 시동생 나이가 6세였다.

내가 시집간 당시 어른들과 남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그냥 얼마

안 되는 밭에 곡식 농사를 지었으며, 주로 끼니는 조밥으로 때웠고, 쌀 3가마니가 전부였다. 도저히 이런 생활로는 살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에 나라도 뵈가를 해야겠다고 하여 잠곡 장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장사를 하러 간 곳은 서울의 중앙시장이었다. 서울로 나가는 차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주 경안까지 가야 했는데, 당시에는 집에서 경안까지 가는 차편이 따로 있지 않아 머리에 잠곡을 이고 몇 십리 길을 걸어 다녀야 했었다. 서울에 가서도 그 날 준비한 양을 다 팔지 못하는 날에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 시장 근처에서 새우잠을 잔일도 많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가져간 곡식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너무나 행복했었다. 그리고 몇 해 뒤에 비로소 집까지의 교통편이 마련되었는데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운행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장사를 하면서 딸 1명과 아들 2명을 낳았고, 여기에 6명의 시동생들까지 책임을 져야 했기에 단 한 순간도 쉴 틈이 없었다. 그렇게 억척같이 벌어서 시동생들과 내 자식들까지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시킬 수가 있었다. 또 모란장으로의 교통 수단도 생기면서는 시장을 옮겨 다니기도 하였다.

내가 지금의 남편을 택한 것은 물론 중매를 하신 아저씨의 권고도 있었지만 그 때의 남편은 내가 보기에든 똑똑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사람이었던 점이 내 마음을 끌었던 것 같다. 시집 간 몇 해 뒤에 남편이 이장이 되었는데, 당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다던 분을 찾아가 임포 아닌 부탁도 했었고, 그것이 순조롭게 안 되자 마을의 여러 사람들과 힘을 합쳐 전기를 끌어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시부모님들도 고생하던 나를 잘 도와주시곤 하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고생고생해서 생활하던 차에 마침 이 곳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소문이 났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에게 밭을 팔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밭지는 많았지만 골프장을 짓는데 우리의 땅이 꼭 필요했던 모양이었다. 골프장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지 남편을 그 골프장의 직원으로

채용했다. 아마도 땅을 사기 위함이었으리라 짐작했었다. 아무튼 그 골프장에서 약 10년 간 직장 생활을 하였다. 또 매마침 골프장 앞으로 주유소 내의 매점을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 때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매점을 운영할 수도 있었다. 그 기간이 약 9년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주유소 사장이 가게를 내놓으리라고 해서 내주고 그 후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때 내 나이 55세였다.

성남의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들리는 소문에 성남의 중심지역에는 서울의 판잣집 천거민들을 이주시켰고, 조금 더 높은 지역인 은행동 지역에는 신체 장애자들을 이주시켰던 같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우리 딸의 마늘이나 곡식들을 훔쳐 가는 일도 일어나곤 했었다. 심지어는 땅 속에 묻어둔 함아리에 넣어둔 쌀까지도 가져가곤 했다.

성남의 개발과 함께 우리가 살던 이 곳에도 개발의 불이 일면서 골프장이니 현대식 집들이 들어섰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우리 땅을 몇 년 전의 시가, 즉 평당 3,000원으로 계산하려고 하자 거절하자 당시의 현 시가인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 물론 지금은 100만 원이 넘는다. 그리고 지금의 효성냉장 옆에다 지금의 집을 짓고 창고를 만들어 임대할 주고 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비하면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두 아들 녀석들 잘 결혼하여 집도 한 채씩 마련해 주어 부모의 역할을 나름대로 한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시원하다. 현재는 여든 여섯의 어머니와 남편과 생활하고 있다.

(김수남, 경기도 광주 삼동, 64세)

7 태평 4동 서일순 녹취록

나는 1936년 6형제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우리 형제 모두는 일본에서 태어났다. 부모님들은 부산에서 생활하시고 계셨고, 아버님은 고철 등 쇠를 모아 파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였다. 그 곳에서 우리 형제 위로 6명의 형제를 더 낳으셨는데, 얼마 있지 않아 모두 병에 걸려 죽었다고 들었다. 당시 부모님은 아이들이 자주 병에 걸려 죽자 옛말에 도망을 건너가 살면 불상사가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는 대한해협을 건너셨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셨고, 그 곳에서 우리 형제들 무사히 기를 수 있었다고 하셨다. 물론 그 곳에서의 일도 고철을 모으는 일을 하셨다.

다행히 일본에서의 생활이 좋아지게 되자 내 위의 형제들은 모두 고등교육까지는 바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소학교 3학년까지만 다녔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어는 잊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할 수가 있다. 반면 한글은 많이 깨우치지 못했다.

한국(대구)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해방이 되고 내가 11살 되던 해였다. 당시의 국민들의 삶이 모두 그랬듯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부족 힘이 들었다. 우리 집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6형제 중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내가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 장사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속칭 '양기' 물건 장사의 재미가 그나마 솔솔 하였다. 때때로 헌병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던 물건도 빼앗기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야간에는 한글 배우는 곳을 찾아가 약 석 달 동안 배우기도 했었다.

그렇게 장사해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내 밑 동생들 교육도 시킬 수 있었다. 비록 힘든 생활이었지만 동생 교육을 내 힘으로 시킬 수 있었다는 뿌듯한 마음에 힘든 줄도 몰랐다.

내 나이 22세 때 주위 사람의 소개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재취의 자리였다. 당시 남편에게는 두 명의 아이가 딸려 있었다. 남편의 고향은 경상북도 성주였고, 김천에 있는 학교에서 교편

을 잡고 있었다. 재취 자리에 섰듯 내키지는 않았지만 몇 번 만남을 가지다 보니 사람이 똑똑하고 마음 씀씀이가 포근한 사람임을 알고는 결혼의 뜻을 세울 수 있었다.

결혼 기간 동안 두 명의 전처 자식에 내가 낳은 아들(쌍둥이) 4명을 교육시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처의 자식들은 본인들이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대학교 교육은 못 시켰고, 쌍둥이들은 대학교 교육까지 시켰다. 지금 현재 전처의 자식들은 따로 나가 자기들끼리 생활하고 있고, 쌍둥이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현재 국방부에 있고, 또 한 명은 고시 1차 합격 후 2차를 준비하고 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50세에 병으로 먼저 돌아가셨다. 그 때 남편의 병 간호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집도 팔게 되었고, 아들이 있는 서울 근처의 성남에 와서 혼자 살게 되었다. 성남에 온 지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다.

성남에 와서 아이들 밤이며 설거지 등 조금 도와주고 특별히 직장이나 장사를 하지는 않고 있다. 성남시에서 하는 공공 사업에 나가 용돈 정도 벌고 있다. 또 가끔씩은 형제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아들이 용돈도 주고, 동네 친구들 따라 밭에서 밭일을 하고 돈을 받기도 한다. 별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얼마 뒤에는 손주들을 돌보아주어야 하기에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같이 지내는 일은 좋지만 가능하다면 나 혼자 따로 생활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의 내 심정이다.

(서일순, 수정구 태평 4동, 68세)

8) 태평동 전덕수 녹취록

나는 1937년 경상남도 함천에서 육 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위로는 오빠가 한 분, 언니가 한 분 계시고, 아래로 남동생 하나에 여동생이 두

명이 있었다. 내가 두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도 다닐 수 없었다. 또 할머니께서는 여자들이 공부하면 집안이 어지럽다고 공부를 시키시지 않으셨다. 또 여자는 자고로 손가락도 셀 수가 없어야 시집가서 잘 산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공부가 너무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시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다.

학교에 갈 수 없었기에 봄에는 산을 돌아다니며 고사리를 따고, 겨울에는 약초를 캐어 그것을 말려 찹을 사오곤 했었다. 당시의 내 별명이 '쌀심'인 것도 이 때문이었다. 남자도 아닌 조그만 여자 아이가 정말 똑똑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들었다. 그렇게 일만 하는 도중에도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책을 뜯으려 바구니를 들고 나갔다가는 책 던져버리고 학교에 몰래 가 교실 담장 밑에서 언니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숨어 지켜보기도 하였다. 어떤 때에는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곤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쑥스러워 망설이면서도 교실 한쪽 구석에 가 앉아 있곤 하였다. 그럴 때면 언니가 나를 무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것이 나의 학교 공부 전부였다.

친정에서 그리저럭 생활하다가 1954년 내 나이 17살 때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댁이 시골이어서 물을 길어다 먹고 산에서 땀감을 마련해 물을 지펴야 했다. 또 홀년이 자주 들어 집안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워낙 어렸을 때부터 생활력이 있어서 돈이 된다면 어떤 일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고, 그리면서 살림살이도 하나 둘 늘어만 갔다. 당시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고 홀시아버지와 위로 두 분의 형님과 생활하였지만, 바로 위 형님의 시집살이가 웬만한 집안의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심했다. 그렇게 마음 고생을 해 가면서 11년간을 시댁에서 눈물로 보내야만 했다.

당시에 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낮에는 순서 기다리기가 만만찮았다. 그래서 나는 앞도 보이지 않는 칠혹같이 어두운 새벽 2시에 물을 길곤 하였다. 한 번은 물을 길어 오는데 앞에 반짝반짝 하는 불빛이 있어 자세히 보았더니 호랑이의

눈빛이었다. 너무나 무서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뒷걸음질 쳐 갈 때까지 나를 쳐다만 본 적도 기억에 남는다.

시댁에서의 생활로 도저히 먹고 지내기가 어려워 큰 결심으로 하고 대구로 나왔을 때가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다. 배운 공부도 없었고 오직 배웠다는 것이 조그만 장사 일이었기에 이곳에서 건어물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글씨를 몰랐던 당시에는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때마다 손님들 보고 직접 써 놓고 가라 했었다. 건어물 장사로 두 아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대구에서 시켰고, 그러다가 천척의 소개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 때가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니까 아마도 1980년도로 기억이 난다.

서울에 와서는 천척이 하는 숯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강원도, 강화도, 충청도 등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다. 이 때 많은 돈도 벌게 되었다. 그 후 1992년 10월경에 동생의 소개로 다시 성남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성남에 와서도 8년 동안은 서울로 일을 하러 다녔다.

당시만 하더라도 성남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기억이 나는 것은 개울에 물이 흘렀고, 도로나 길 등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길만 하더라도 군데군데 나 있는 오솔길로 올라가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산악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나름대로의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던 차에 같은 산악회의 한 친구가 어느 날 공부 배우러 가자는 얘기를 꺼내었다. 경원대학교에서 무료로 한글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망설였으나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소원했던 나였기에 용기를 내어 찾아갔다. 지금도 처음 학교에 갔을 때가 생생히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2002년 새해부터 한글을 배웠으니 햇수로는 벌써 3년째 접어들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면서 공부 재미에 시간가는 줄 모

르게 되었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학교에 간다는 기쁨에 늘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전덕수, 태평동, 68세)

◎ 편집후기 ◎

사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본래 목적이었던 성남지역 여성들의 삶을 충분히 복원하지 못하였다. 이는 필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보다 사료 발굴의 한계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지역 여성사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성남지역 여성들은 타지역과 다른 특수한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긍심이 강하고 단합과 공감대 형성이 공고하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여성사 자료를 조망하고 광주지역과 혼재된 사항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전통시대와 일제 강점기는 행정적으로 성남지역이 광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성남지역은 신석기 유적이 삼평동에서, 청동기 유적이 금토동과 태평동·수진동·사송동·하산운동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원시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남은 인근에 한강이 있는 관계로 삼국시대부터 주목받았고, 비록 성남이라는 명칭은 아니었지만 광주의 일원으로서 한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성남 지역의 특수성은 성남지역 여성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역과 봉수대와 같은 군사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러한 시설의 운영은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정상적인 업무 외에 잦은 왕의 행차와 군사, 관원들의 행차를 응대하기 위한 낙생역민을 비롯한 성남·광주지역의 주민들의 부담은 컸고, 일부 역민들 중에서 도산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성남이 교통의 요지로서 유동인구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남 여성들은 여행객이나 숙박객들을 상대로 행상을 하거나 주점을 경영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 낙생장과 같은 시장에

서 상행위를 하거나 또는 주점에서 일을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마련하기도 했을 것이다. 집안에서는 이러한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건의 제조에도 종사하였을 것이다.

이외에도 도미 치의 일화에서 보듯이 이미 일찍부터 이 지역에는 임금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절개를 지킨다고 하는 유교적인 사회윤리가 여성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후 고려말에는 성리학의 중심지로, 조선후기에는 실학의 본산인 광주지역에 속해 있었으므로 유학적인 분위기가 매우 성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조선시대 많은 열녀들이 배출되었고, 성리학자이며 여류문인인 강정일당과 같은 여성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한말부터 일제시대에 걸쳐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천주교와 기독교를 적극 수용한 점으로 보아 이 지역은 항상 새로운 문물을 집합에 진취적이었고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남의 지역적 독자성과 내재된 자연적 성격 등이 여성운동을 지속적이고 강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여성운동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기초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 성남·분당 지역의 활발한 여성운동은 성남 시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되어 활성화되었다. 성남여성단체협의회를 기반으로 한 운동은 소비자 문제나 직업개발, 여성인권, 문화운동 등에 호응하면서 시민에게 다가간 것도 한 특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앞으로 연구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미흡한 결과물이라도 내놓게 되었음을 조그마한 위안으로 삼고 싶다.

끝으로 『성남지역 여성사 자료집』의 출간을 앞두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이대열 성남시장님과 김상현 시의회의장님, 그리고 남선우 성남문화원장님을 포함한 성남문화원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의 자문위원이셨던 조동걸

한일역사연구위원회 위원장님, 조유전 전 국립문화재 연구소장님, 김호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님,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기획조정실장님 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편집과 인쇄의 마무리에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기울이신 도서출판 다산 최진자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승갑, 박순임, 김도형, 김진호 연구원들과 자료 수집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경원대학교 역사·철학부의 김경선, 조보람, 채아람 양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03년 12월

연구 책임자 전화숙
경원대학교 역사·철학부교수

연구책임 : 천화숙(경원대학교 역사·철학부 교수)
성남문화원 무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자문위원 : 조동걸(한일역사연구위원회 위원장, 국민대 명예교수)
조유전(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김호일(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중앙대교수)
변화순(한국여성개발원 기획조정실장)

집필 및 편집 : 박순임(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
천화숙(경원대학교 역사·철학부 교수)
김도형(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서승갑(경원대학교 강사)
김진호(경원대학교 강사)

성남지역 여성사 자료집

발행일 : 2003년 12월 31일
발행처 : 성남문화원
주 소 :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829번지
전 화 : 031) 756-1092, 1028
전 송 : 031) 756-1096
제 작 : 도서출판 다산
인 쇄 : 명인문화사

이 책은 국비와 도비·시비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